



10

주제 97(2008)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7(2008)년 제10호

(루계 제732호)

## 차 례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외1편).....	3
사랑에 대한 생각.....	3
작가들은 공화국창건 6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한 공지안고 올해 작품창작을 빛나게 결속하자 .....	3
우리 당의 모습 .....	5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	6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높이 칭송한 첫 기념비적송가 .....	6
불멸의 자욱에 아로새겨진 위인의 숭엄한 철학세계 .....	8
세계 경구, 격언 .....	11
봄소나기 .....	12
뜻깊은 기념일에 .....	22
빛과 열, 투쟁과 희망의 《불》이 밝히는 심오한 철학세계 .....	22
과원의 처녀 .....	25
주체문학의 대강 .....	26
나의 당원증 .....	26
꽃길을 걸으며 .....	28
장군님 걸으신 길 잊지를 말자 .....	28
여기로 오시라 (외2편).....	29

못잇을 바다 못잇을 파도야 .....	29
《다시 오겠소》 .....	30
물길덕이야기 .....	30
대계도의 밤 .....	31
대동문영화관앞에서 .....	32
그는 전쟁로병 .....	33
교정의 길 .....	44
약속 .....	44
사랑의 문 .....	45
여기도 《최전연》이다 .....	45
졸업휘장 .....	46
이 땅은 넓다 .....	47
사진 .....	57
류행과 고상한것 .....	58
군고구마매대 .....	59
내 삶의 년륜 .....	67
교단에 올라 .....	67
내 모습 .....	67
교훈시 .....	67
교문에 서서 .....	68
내 삶의 년륜 .....	68
선군시대의 요구와 작가의 형상세계 .....	69
별들이 웃는다 .....	73
필명에 깃든 사연 .....	80

## 가사

#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외 1 편)

리인모

백두의 대으로 광풍을 부시고  
역풍을 길들인 김정일장군  
당신만 있으면 고난이 무어나  
당신만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광폭의 정치로 천만을 이끌어  
기적을 창조한 김정일장군

당신만 있으면 역경이 무어나  
당신만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일심의 대군단 강철로 다지고  
보검을 안겨준 김정일장군  
당신만 있으면 대적이 무어나  
당신만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 사랑에 대한 생각

따스한 이불속에 잠들다가도  
문득 깨어나 생각하는것  
내 이 사랑 다 아는가 장군님사랑  
내 집 앞방에도 당신의 사랑  
내 집 뒤방에도 당신의 사랑  
눈물이 말라버린 늙은 이 몸도  
고마움에 울고읍니다  
아, 김정일장군이시여 사랑의 화신이시여

손자의 손목잡고 거닐다가도  
문득 멈춰서서 생각하는것  
내 이 사랑 다 아는가 장군님사랑  
차디찬 감방에서 펴던 이내 몸

지평이인생으로 시들던 이 몸  
당신의 큰 사랑이 그 무엇인지  
늦게나마 알고읍니다  
아, 김정일장군이시여 사랑의 화신이시여

세상에 이런 사랑 또 있는가를  
분단선 넘어서 알았읍니다  
내 언제나 잊지 않으리 장군님사랑  
조국이 무엇인지 알게 한 사랑  
혁명이 무엇인지 알게 한 사랑  
끝없이 아껴주고 내세워주신  
그믿음 고맙읍니다  
아, 김정일장군이시여 사랑의 화신이시여

## 작가들은 공화국창건 6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한 금지안고 올해 작품창작을 빛나게 결속하자

홍영길

지금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나라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일대 룡성과 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격동적인 시기에 영광스러운 우리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기념한 크나큰 금지와 자랑안고 올해 마감을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문학작품창작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새해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 군대와 인민과 함께 우리 작가들도 공화국창건 60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해 정초부터 명작창작전투를 줄기차게 벌려왔다. 이번에 진행한 공화국창건 60돐 문학축전작품창작과정과 여기서 달성한 커다란 성과들이 그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작가들은 올해 창작하는 작품들마다에서 우리

공화국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위대한 인민의 나라이고 가장 존엄높은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이며 우리 인민의 영원한 삶과 행복의 요람이라는것을 그 어느때보다 소리높이 구가함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성을 자랑차게 과시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작가들은 공화국창건 60돐을 앞두고 창작한 작품들에서 우리 수령님은 공화국을 창건하시였을 뿐아니라 반만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이민위천》의 리념을 구현한 사회주의 새 조선을 일떠세우시고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며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분이사라는것을 진실한 예술적형상으로 빛나게 창조함으로써 아버지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에 바치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작가들은 조국땅위에 국력이 강화

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사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려던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의 숭고한 뜻과 위업을 이 땅우에 더 활짝 꽃피우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문학작품창작에서도 자못 커다란 성과를 안아왔다.

최근에 창작된 총서 《불멸의력사》의 장편소설 《청산별》, 총서 《불멸의 향도》의 장편소설 《불》, 《봄의 서곡》, 단편소설들인 《움트는 아침》, 《열다섯번째 해》, 《적동색머리수건》, 《민음의 세계》, 시 《위대한 영생》, 《김정일장군찬가》 등 많은 우수한 작품들의 성과적창작은 그 뚜렷한 실례이다.

작가들이 공화국창건 60돐을 앞두고 진행한 문학작품창작에서 이룩한 그 모든 성과는 전적으로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며 올해를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게 될 장엄한 투쟁의 해, 민족사적인 경사의 해로 되게 할데 대한 새해공동사설의 정신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기에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다.

오늘 작가들앞에는 공화국창건 60돐을 맞으며 진행한 문학작품창작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년말을 앞두고 공동사설에 제시된 모든 전투적과업을 더욱 철저히 관철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들은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참된 주체형의 혁명적문예전사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다양한 주제, 다양한 종류의 성과작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자기들이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가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언제나 당이 의도하고 요구하는 작품들을 사상예술성이 높게 창작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지난날에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백두산3대장군의 숭고한 모습을 보여주는 우수한 작품들을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에 맞게 최상의 수준에서 왕성히 창작하여야 한다.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문학작품창작은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창작의 생명이며 언제나 좌우명으로 되여야 한다. 이것을 떠나 우리 작가의 존재에 대하여, 참된 삶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작가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형상을 보다 빛나게 창작해냄으로써 올해 공동사설에 제시된대로 선군조선의 제일국력인 정치사상적위력을 강화하고 더우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수령결사옹위정신, 일심단결의 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참답게 이바지해야 한다.

작가들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나라의 방위력

을 튼튼히 다지는데 이바지하는 작품창작에도 응답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대오로 억세게 준비된 백두산혁명장군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받는 이런 무적의 인민군대가 있기에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오늘도 맑고 푸르러있으며 래일에도 영원히 그러할것이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긍지이고 자랑이다.

작가들은 작품들에서 우리 군대의 영웅적투쟁 모습을 인상깊게 형상해냄으로써 인민군대가 당의 군대, 최고사령관의 군대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는데서뿐만아니라 위대한 선군령장을 높이 모신 오늘의 영광스러운 시대에 리수복, 김광철과 같은 10대, 20대의 영웅들을 더 많이 키워내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고 원민, 원군기풍을 높이 발휘하는데 기여할 사상정신적량식으로 되는 작품들도 적극 창작해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전선은 강성대국건설의 주공전선이다.

작가들이 생동하고 진실한 예술적형상으로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경제전선의 모든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기여하는 작품들을 창작해낼 때 그것은 년말을 앞두고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다.

작가들은 인민경제전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우고 인민생활제일주의를 높이들고 나갈뿐아니라 과학기술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는데 이바지하는 작품들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창작해내야 한다. 그리하여 작품들이 올해를 인민생활향상에서 실질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보람찬 해, 기쁨의 해로 되게 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차게 불러일으키는데서 친근한 벗, 생활의 길동무로 되도록 해야 한다.

작가들은 올해 공화국창건6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그 성과를 더욱 빛내기 위해 이악하게 투쟁해나가는 선군시대의 전형들을 계속 빛나게 창조해내야 한다.

여기서는 우리 당의 선군령도업적을 지침으로 삼고 모든 사업을 위대한 장군님식대로 해나가는 일군들의 모습, 비상한 애국적열의와 창조정신을 가지고 분발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모습 등도 그 어느때보다 생동히 형상해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선군시대의 인간전형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따라배우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날 것이며 결국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기여하게 될것이다. 또한 작가들은 혁명전투주체의 작품들

# 우리 당의 모습

김석주

나를 정답게 불러주는 목소리가 있어라  
걸음걸음 이끌어주는 손길이 있어라  
그 목소리 그 손길 없으면  
내 어이 혁명의 그 먼먼 길은  
한자육도 곧바로 갈수 있으랴

타이름도 일깨움도 있는  
다정한 그 목소리 정어린 그 손길을  
한생토록 가까이 느끼며 걸어왔나니  
가슴속 사연도 터놓고 속삭이는 그 품  
우리를 영원히 동행자로 불러준  
그 모습이여

그 모습이 어찌하여  
우리 당의 모습으로 안겨오는것이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사는  
그런 위대한 어머니로 그리워지는것이나

천만의 심장에 박동을 주는  
크나큰 심장을 지녔다  
다심한 마음 열렬한 사랑을 지녔다  
인민의 행복을 가장 기뻐하고  
인민의 아픔을 가장 아파하며  
섬없이 사색하고 일하며

과 계급교양, 조선민족제일주의교양에 이바지하는  
작품들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과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작품들도 창작  
하여야 한다.

더우기 여기서 작가들은 외세와 야합한 리명박  
과 그 패당을 비롯한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조국  
통일방해책동을 짓부시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북  
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자랑찬 투쟁모습을 보여  
주는 다양한 작품들을 창작해냄으로써 조국통일  
을 하루빨리 앞당겨오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뜻깊은 올해 작가들이 승리자의 영예와 긍지안  
고 년말창작전투를 더잘 벌리기 위해서는 현실체  
험을 실속있게 해나가면서 창작전투를 더욱 긴장  
하게 벌려나가는것이다.

현실은 창작의 비옥한 토양과 같다. 현실을 떠  
나 창작실에서 작가들이 명작창작을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수도 없는 일이고 그것은 곧 작가의 죽  
음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작가들은 언제나 현실에 몸을 꼭 잠  
그고 생활체험을 하면서 시간을 아끼고 창작적사

창조의 밤을 새우시는  
그이는 그이는 우리 장군님

최전연 눈덮인 전호가에서  
병사의 손을 녹여도 주시고  
삼복철 무더위에 땀을 흘리며  
끝없이 걸으시는 공장의 구내길 농장의 들길...  
내 낮에도 밤에도 그 발걸음소리 들으며  
헌신 또 헌신하시는  
거룩한 모습을 우러르나니

그러면 내 눈앞에 우렛이 안겨오더라  
백두의 붉은기를 진두에서 휘날리며  
서슬푸른 총대로  
무적필승을 펼치는 그 모습  
사회주의조국을 떠메고 인민을 향도하며  
천만리 선군길을 가는  
우리 당의 모습이

인자한 어머니 친근한 아버지  
영원히 수령님의 이름으로 백전백승하는  
한없이 귀중하고 위대한 조선로동당  
시대의 진로우에 태양같이 빛나시는  
아, 우리의 김정일동지이시여!

색을 깊이 해가며 년말 창작전투를 힘차게 벌려  
야 한다.

작가들이 년말 창작전투를 벌려나가는데서 창  
작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나가는것도  
중요하다.

창작지도일군들은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  
기 일군들처럼 창작지도사업을 최대의 마력을 내  
여 실속있게 해나감으로써 창작되는 모든 작품들  
이 선군시대의 명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 창작지도일군들이 당의 문예사  
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실력과 함  
께 완강한 실천력, 뜨거운 인정미와 감화력을 소  
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공화국창건 60돐  
문학축전작품창작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  
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작가들이여! 올해 명작창작의 자랑찬 성과는  
창작의 주인인 작가들 자신이 안고있다.

공화국창건 6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  
인 자랑안고 또다시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키며  
올해 년말창작전투도 잘 결속해나감으로써 당의  
작가로서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하고선군시대 작  
가된 크나큰 긍지와 보람을 더욱 힘있게 펼쳐나  
가자.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첫 당조직을 내을 때의 인상가운데서 잊혀지지 않는것은 김원우가 회의를 꾸리면서 연락옆에 붉은기를 세우느라고 애쓰던 일이다. 그 기발의 붉은 색조는 혁명을 위해서 마지막피 한방울이 다할 때까지 싸우려는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해주었다.》

《그후 우리는 첫 당조직에 건설동지사라는 소박한 명칭을 붙이였다. 그 명칭은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혁명의 첫걸음을 떼였고 생사를 같이 할수 있는 동지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결속시켜 혁명을 심화 발전시키며 중국적인 승리를 달성하려는 우리의 포부와 의지를 그대로 담고있었다.》

《첫 당조직—건설동지사는 우리 당의 래야였고 씨앗이었으며 당의 기층조직들을 내오고 확대하는데서 모체적의의를 가지는 조직이었다.》

##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높이 칭송한 첫 기념비적송가

김현규

주체혁명위업의 뜻을 올리던 첫시기에 창작된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이 세상에 처음으로 울려 퍼진 때로부터 80년 세월이 흘러갔다.

지금으로부터 80년전인 주체17(1928)년 10월 길림의 《태풍합》 정미소집에서 차광수, 김혁, 김원우 등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모임을 가지었다.

그때 혁명시인 김혁동지가 일어나 흥분된 목소리로 열변을 토하였다.

《동무들! 지금부터 〈조선의 별〉이라는 노래를 배우겠습니다.

이 노래는 그 어떤 유명한 시인이나 음악가가 창작한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지혜를 모아 지어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숙한 점이 없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에는 우리의 지도자 한별동지를 조선혁명의 향도성으로 맞이한 우리들,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끝없는 기쁨과 자랑이 깃들어있는것입니다.

깜깜한 밤하늘아래서 피눈물을 뿌리며 헤매이던 우리의 겨레가 찬란한 향도의 별을 맞이한 오늘의 이 기쁨, 이 영광을 안고 노래를 부릅시다. ...》

그의 말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은 환호성을 터뜨리며 한없이 설레이는 기쁨과 환희속에서 이 노래를 따라불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수령을 노래한 혁명적인 가요이다.》

항일혁명투사이며 혁명시인이였던 김혁동지가 작사, 작곡한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높이 칭송한 기념비적 작품이다.

3천리강산을 밝게도 비치네  
깃땀한 조선에 동은 트리라  
2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

시가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선의 밤하늘》, 그것은 강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 조국과 인민의 비참하고 암담한 현실에 대한 반영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우리 인민들은 일제를 반대하는 민족해방운동을 끊임없이 벌려왔지만 반목과 질시, 우여곡절과 실패의 쓰라린 교훈으로부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을 옳바른 길로 이끌어줄 령도자를 목마르게 기다렸다.

바로 이러한 때 혁명의 령도자의 출현은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이러한 사상감정은 드디어 분출하여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낳게 하였다.

3천리강산을 밝게 비치며 캄캄한밤하늘에 솟아오른 조선의 새별, 청년장군—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한 환희와 기쁨은 시가의 첫절에서부터 격정을 터뜨린다.

《깃땀한 조선에 동은 트리라》는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철석같은 믿음과 신뢰이며 불타는 심장의 웨침으로서 수령님만 계시면 반드시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으리라는 확신에 찬 서정적주인공의 격조높은 목소리이다. 그리하여 이 힘찬 목소리는 3천리강산을 메아리쳐 울리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칭송과 다함없는 흠모의 감정정서는 더욱 승화되어 《2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에서 드디어 폭발된다.

《새별》이 떠오르기를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들은 얼마나 바라고 또 바랐던가. 그리하여 우리 2천만동포는 조선의 《새별》 다시말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함으로써 빼앗긴 나라를 찾고 자주적인 인간의 삶

을 누릴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송가는 계속하여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 하에서 자주성이 여지없이 유린되고 말살된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령도를 받들어 혁명의 한길에서 변함없이 충직하게 나가리라것을 힘있게 노래하고있다.

## 2. 캄캄한 밤하늘 바라다보니

신음하는 조국산천 어리여오네  
변치 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마음  
2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

조국을 떠나 이국땅에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는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마음은 쓰리고 아팠다. 눈을 감아도 신음하는 조국산천, 겨레에 대한 생각은 그들에게 울분과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혁명에 대한 필승의 신념과 혁명앞에 다진 굳은 맹세로 이어졌다.

그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절대적인 믿음, 변치 않은 마음이었다.

《변치 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마음》에서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혁명앞에 다진 그 맹세를 지켜 기어이 조국을 해방하리라는 숭고한 혁명정신은 더욱 심원하게 울리고있다.

그러면서 1절에서와 같이 2절의 마지막행에서도 새별을 우러러 따르며 그 맹세를 지켜 싸우리라는 굳센 의지를 가다듬는다.

송가의 마지막절에서 3천리강산에 새별이 더욱 빛남으로 하여 조국해방의 그날이 기어이 오리라는 서정적주인공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싸워나갈 때 혁명은 승리하고 자주적인 나라를 세우리라는 지향의 랑만에 넘치고있다.

## 3. 간악한 강도 일제 쳐몰리치고

3천리에 새별이 더욱 빛날제  
조선아 자유의 노래 부르자  
2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수령님의 령도를 받기 때문에 조국해방은 필연적인것이며 또 반드시 그렇게 될것이라는 확신에 찬 그 목소리는 새별이 더욱 빛남으로 하여 것처럼 힘있게 울리는것이다.

한마디로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를 예술적일반화를 통하여 높은 경지에서 형상함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 힘있게 이바지하였다. 뿐만아니라 송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수령을 노래한 혁명적인 가요인것으로 하여 송가문학의 고전적본보기로 되고있다.

이러한 수령송가문학이 있었기에 해방직후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절세의 애국자, 전설적영웅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칭송하면서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장편서사시 《백두산》이 나오고 우리 당의 기초축성시기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주체혁명위업의 유일한 계승자로 높이 모시고 따르며 나아가서 우리의 장군님을 21세기의 태양으로 우러러 받드는 과정에 수많은 송가작품과 함께 그후 《김정일장군의 노래》와 같은 불멸의 혁명송가가 나오게 되었다. 력사적으로 고찰해보아도 세계문학사상 수령에 대한 송가문학은 이미 존재하였다.

그것은 중국에서 자기 수령을 노래한 《동방홍》과 이전 소련에서 자기 수령에 대한 노래 《레닌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쓰팔린 깐따따》(교성곡) 등적지 않은 작품들을 들수 있다. 하지만 그 송가들은 그나라에서 혁명이 승리하고 그들이 국가수반이 된 후에 나왔는데 그들이 혁명활동을 벌리던 시기에 그들의 주위에는 수많은 동지들과 작가, 예술인들이 있었지만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송가작품이 나오지 못하였다.

실로 우리나라에서처럼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초기혁명활동시기 10대의 청년장군이신 우리 수령님을 혁명의 령도자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받들며 수령송가를 지어부른 나라는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 초기혁명활동시기로 말하면 우리 민족의 운명이 암담하던 시기였다. 그때적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혁명의 전도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였지만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오직 혁명적의리와 깨끗한 충실성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을 적극 옹호하고 내세웠으며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쳤다.

더우기 혁명시인 김혁동지가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흠모하고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창작한것은 후날에 가서 이 노래가 빛을 보게 되리라는것을 예견하고 그렇게 하였거나 수령님께서 국가주석으로 되실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한것이 아니었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오직 혁명투쟁의 실지 체험을 통하여 찾은 진리와 신념과 자기의 령도자에 대한 혁명적의리로부터 출발하여 진심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따랐으며 심장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수령님을 모시는 자세와 립장에서는 그 어떤 드림도 없었다.

우리들은 초기혁명활동시기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혁명의 령도자로 내세우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투쟁에서 승리한것처럼, 우리 당의 기초축성시기에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바쳐 충직하게 한생을 빛내인 일군들처럼 그들의 모범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80년전에도 그러하였지만 오늘은 물론 먼 후날에도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마음속에 길이길이 남아 영원히 불리워질것이다.



## 불멸의 자욱에 아로새겨진 위인의 숭엄한 철학세계

김용부

인민을 위해 한생을 바친 위인의 발자욱은 세월의 눈비속에서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만경대의 낡은 초가집에서 혁명의 첫걸음을 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길에 영광에 넘친 력사의 자취를 남기시였으며 새 민주조선의 일터와 화산천리길,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 불멸의 령도자욱을 찍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혁명의 년대기우에 찍으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스러운 발자욱에는 주체의 찬란한 빛발도 나래치고 세기의 기념비적창조물도 솟아있고 천금주고 살수 없는 동지애의 노래도 뜨겁게 울린다.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리여있는 불멸의 자욱들을 숭고한 예술적화폭에 담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돛기념 단편소설집(1) 《력사의 자취》는 빛나는 형상적화폭들을 통하여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잊지 말라고 그리고 끝없이 빛내여가라고 우리모두에게 뜨겁게 절절히 속삭여준다.

×

수령형상문학에서 기본은 수령의 위대성을 높이 칭송하는데 있다.

수령형상작품에서 종자는 수령의 혁명사적에서 찾아면서도 기본은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품모를 높이 부각시키는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하고 주제는 수령님의 혁명활동과 업적, 위대한 품모와 관련된 문제로 제기되어야 하며 사상도 수령의 위대성을 높이 칭송하려는 작가의 사상미학적주장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령형상문학에서는 실재한 혁명사적에 충실하면서도 성격형상을 중시해야 하며 수령의 위대성을 보다 심도있고 의의있게 보여주는 방향에서 종자를 잡고 주제와 사상도 밝혀내야 한다. 여기에서도 기본은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철학세계와 특출한 철학적예지를 깊이있게 그려내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에서는 수령님의 비범한 철학세계를 깊이있게 그려내야 수령님의 뛰어난 품모와 업적을 옮겨 보여줄수 있다.》**

수령형상문학에서는 이 세상 그 어느 정치가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철학세계를 지니신 절출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철학가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그리는데 형상의 초점을 두고 수령님께서 지니신 위대한 령도예술과 고매

한 품모가 바로 특출한 철학적예지에 근원을 두고있다는것을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물론 작가가 설정한 소재와 종자의 성격에 따라 탁월한 령도 예술가로서의 위대한 품모, 위인의 사랑과 믿음의 세계에 형상의 각광을 집중할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빛나는 령도업적과 숭고한 품모의 기초에 놓여있는 사상의 위대성, 심원한 철학세계를 깊이있게 그리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어버이수령님의 빛나는 령도예술도, 숭고한 품모도 다 그이의 비범한 철학세계에 바탕을 두고있기때문이다.

단편소설집 《력사의 자취》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심오한 철학세계를 품위있게 형상한 주옥같은 작품들이 수록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철학세계는 비상히 높고 풍부하며 무한대한 넓이와 깊이를 가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철학세계에서 기본핵은 사람을 세계의 주인으로, 인민대중을 력사발전의 주체로 보고 그들의 사상이 발동되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불변의 진리, 주체의 신념이다.

단편소설 《눈석이》(석운기 작)는 이 위대한 진리를 예술적으로 확증하여준다.

몇사람의 호위병만 데리고 적들이 옥실거리는 국경지대로 진출하시는 사령관동지의 담력과 의지는 어디에 기초하고있는가. 과연 이 길에서 승리할수있다는 담보가 있는가. 박수현의 순박한 눈, 조달수의 영채도는 눈에도 의혹이 실리고 불안의 마음이 가셔지지 않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의혹, 이 불안을 말끔히 씻어내듯이 격조높이 말씀하신다.

《조선혁명을 수행할 력량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주로는 조선사람들속에, 말하자면 우리가 가는 바로 그곳에 있는것이요.》

《혁명사상이 있고 혁명적구호가 있는 곳에는 혁명적인민들이 모여드는 법》이라는 이 말씀속에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사람이며 그들의 사상의 식만 발동되면 얼마든지 대포, 탱크, 비행기로 무장한 일제도 능히 타도할수 있다는 주체철학의 진리성이 내포되어있다.

해방후 왜놈들은 도망치면서 죄물을 뽑지 않은 채 전기로를 파괴하였다. 그리고는 20년이 걸려도 조선사람의 손으로는 돌릴수 없다고 떠벌였다.

과연 누가 무슨 힘으로 전기로를 다시 살릴수 있는가. 이것이 단편소설 《철의 력사》(변희근 작)가 제기한 심각한 사회적문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문제의 답을 주체사상에서 찾으시었다. 그 답은 바로 노동자들이 공장의 주인이라는것이다.

《...로동자들의 힘으로 못할 일이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공장도 기계도 집도 대포도 비행기도 군함도 다 로동자들의 힘과 지혜로 만든게 아닙니까? 로동자들이 힘만 합친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대담하게 달라붙어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 안있어 우리 힘으로 공장을 돌릴수도 있고 철을 생산할수도 있습니다.》

주인으로서의 자각은 거인의 힘을 낳고 거인의 힘은 세기적기적을 창조하는 법이다. 이 땅에 기적이 창조되였다. 불과 1년남짓한 기간에 첫 쇠물을 뽑았다. 로안에서 이글거리는 쇠물은 단순히 전기적힘으로 끓인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자기들을 공장의 주인, 혁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우리 수령님에 대한 로동계급의 충정의 열도, 그들의 불타는 심장이 끓인 쇠물이였고 주체철학의 진리성을 확증하는 신념의 응결체였다.

탁월한 전략가, 령도의 예술가로서의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령도풍모도 그이의 심원한 철학세계에 뿌리를 두고있다.

언제나 인민을 하늘처럼 믿으시고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것을 락으로 삼으신것은 우리 수령님의 좌우명이였다. 참으로 우리 수령님은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잠시의 휴식도 없이 헌신의 성스러운 길을 걸으시였다.

단편소설집에 실린 소설들에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령도풍모를 《휴식》의 철학적의미속에서 심오하게 밝혀내고있다.

휴식이란 선다는 의미이다. 만사람에게 통하는 이 의미는 유일무이하게 우리 수령님께만 통하지 않는다. 한평생 인민을 위해 바치신 아버지수령님께 휴식이란 없었다. 밤이 껍 같었다고, 이제는 좀 주무셔달라고 늘 간절히 아뢰이던 전령병들과 부관들의 목소리, 여기에는 우리 인민들과 혁명전사들의 최상의 부탁과 간절한 소원이 깃들어있다.

피어린 항일혁명의 불바다만리속에서 수현이(《눈석이》), 전령병 창길이가(《봄의 서곡》(백현우 작))가 새벽이 되어온다고, 이제는 좀 쉬여달라고애타게 말씀 올리나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국이 해방된 다음 꼭 쉬시겠다고 말씀하신다.

드디어 력사적인 조국해방의 날이 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에 개선하시였다. (이제는 휴식을 보장해드릴수 있게 되었구나.) 이것이 항일투사들의 마음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물거품처럼 허물어져버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건설, 군건설, 인민정권건설로 밤새워 일하시며 조국에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을 생각하시어 잠들지 못하

신다. 휴식을 권고하는 일군들에게 인민들의 생활이 편일 때 꼭 쉬겠다고 말씀하신다. 전화의 날에는 미국놈들을 쳐몰리치고 승리한 다음에 쉬겠다고, 전후에는 전쟁의 상처를 가신 후에 휴식하겠다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시는 우리 수령님의 헌신의 력사는 이렇게 흐른다.

전쟁의 폐허우에 천리마가 날고 사회주의조선이 자랑차게 일떠섰다. 드디어 아버지수령님께서 당결정을 받아들이시고 어느 산골군으로 휴식하러 떠나신다. 그러나 담당의사 오영준의(《크나큰 사랑》(리영규 작)) 눈물젖은 시야에는 산간지대 농민들의 생활향상과 군의 지위와 역할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밤낮이 따로없이 일하시는 우리 수령님의 모습이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어찌 다 차례지신 휴식은 《휴식》이 아니라 가장 긴장된 사업의 연속과정이었다. 우리 수령님께 한평생 휴식이란 없으시였다. 이것이 바로 재능있는 우리 작가들이 특색있게 밝혀낸 《휴식》의 참다운 철학적의미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품모도 사랑과 믿음의 철학세계에서 뚜렷이 부각된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지니신 믿음과 사랑은 동지들을 아끼고 후대들을 사랑하시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동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우리 수령님의 천품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지애로 혁명을 개척하고 동지애로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그 무엇을 주고도 살수 없는 동지애의 숭고한 철학세계,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우리 수령님의 정신세계를 단편소설들은 빛나게 그리고 뜨겁게 형상하고있다.

사령관동지께서 뜨거운 믿음으로 《민생단》보따리를 불속에 집어넣는 순간, 녀도 기쁨도 사랑도 되찾고 재생의 길에 들어선 어제날의 《민생단》협의자(《눈석이》)들이 수많은 전투에서 영웅적으로 싸워 조국해방의 그날을 앞당겼고 이 위대한 사랑속에서 한 녀성과학자(《탄생》(김수경 작))가 행복의 절정에 올라섰고 이 사랑속에서 과오를 범한 한 일군이 관료주의지배인으로부터 《우리 지배인》(《생활의 향기》(김정 작))으로 다시 불리우게 되었으며 현대의학이 소생불가능을 선언한 영웅전사 박성호(《밤나무술이 설레일때》(리종렬 작))의 생명을 우리 수령님의 사랑이 재생시켜주시였다.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품모에서 중요한 측면의 하나를 이루는것은 혁명의 계승자들인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 한없이 숭고한 후대관이다.

재능있는 우리 소설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품모를 그리면서 이 세상 어느 정치가도 지닐수 없었던 숭고한 후대사랑을 열정을 담아 뜨겁게 노래불렀다. 이것은 이 단편소설집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단편집에 오른 《력사의 자취》

(권정웅 작), 《혁명의 후계자》(김홍무 작), 《행군길》(박현 작), 《크나큰 어버이품》(리동구 작), 《사랑의 길》(최창학작), 《해빛밝은 나라》(최학수 작), 《삶》(안동춘 작)이 혁명의 계승자육성에 바치신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를 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고있다. 혁명가유자녀들에 대한 사랑, 전재고아들과 이 나라 평범한 아이들에 대한 사랑... 참으로 이 사랑의 세계는 끝이 없다. 여기서 한가지 실례만 들자.

단편소설 《해빛밝은 나라》가 우리 수령님의 무한대한 사랑의 세계를 응축시켜 보여주고있다.

전후 재더미만 남은 폐허우에서 공장건설, 살림집건설로 강제 한메터, 세멘트 한키로그람이 귀중한 때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평양학생소년궁전 건설을 발기하신다. 그것도 보통건물이 아니라 수천세대분의 살림집을 지을 자재를 들여 대극장의 2배나 되는 궁전을 짓자고 하신다. 모든 일군들, 특히 설계가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 사실앞에서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이때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단호히 그리고 뜨겁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돈을 모아두었다간 어디에 쓰겠소? ... 집을 짓고 공장을 짓고 과수원을 확장하는것도 다 후대들을 위해서요. ... 우리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왕〉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왕들에겐 궁전이 있는 법이요. ... 아이들이 〈왕〉이기 때문에 이 집도 〈궁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소.》

우리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왕》이기때문에 《궁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깊은 이 말씀속에 우리 수령님의 후대사랑이 집약되어있다.

이처럼 단편소설집에 오른 소설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철학세계를 깊이 파고들어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사상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품모의 위대성을 단편소설의 《작은》울타리를 벗어나 큰 작품과 맞먹는 서사시적화폭으로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하고 특출한 철학세계는 진실하고 생동하며 품위있고 기름진 형상수단과 수법의 능숙한 활용으로 뜻깊고 깊이있게 그려지고있다.

단편소설집에 실은 단편들은 특색있고 이채로운 형상수단과 수법들의 능숙한 활용으로 수령형상단편소설은 물론 현대단편소설문학의 산모범으로 된다.

시점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소설의 립체미를 돋구고 생활현상에 철학적분석을 예리하게 주고있다.

시점을 어느 한 사람의 눈길로 고정하면 작품의 흐름은 평면적으로 되고 이야기는 단조로와져

수령의 빛나는 형상에 손색을 줄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집에 오른 작품들은 거의 다 시점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자기의 특색을 살리고있다. 작가의 시점, 제3자의 시점, 수령의 시점으로 다양하게 설정하고 다각적으로 파고든 결과 생활의 본질도 예리하게 밝혀내고 구성도 립체화되어 소설의 립체미를 살려주고있다.

선택된 생활소재의 특성과 작가적개성에 따라 생활표사방식도 다양하고 특색있게 탐구하고있다.

단편소설 《눈석이》는 생활소재의 특성과 종자의 요구, 정론적분석을 가하기 좋아하는 작가의 개성적 특성이 구현되어 한편의 정론시와 같아졌다.

단편소설 《력사의 자취》는 우리 수령님과 아이들의 인정세계를 깊이 관것으로 하여 한편의 뜨겁고 눈물겨운 서정시를 련상시킨다. 반면에 단편소설 《봄의 서곡》은 사령관동지의 탁월한 전략전술적예지와 전법을 보여주는 한편의 서사시와 같다. 단편소설 《고향집》(리병수 작)이 풍만하고 향토적인 맛이 짙게 배인 향토시와 같다면 단편소설 《해빛밝은 나라》는 동심도 비끼고 격정도 차넘치는 한편의 수필과 같다.

실로 이 작품집에는 풍만한 생활도 차넘치고 사랑과 믿음, 행복과 기쁨의 눈물도 있으며 범박한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과 정을 초월한 사랑의 극치, 수령과전사간의 사랑의 세계가 최상의 경지에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뜨겁게 펼쳐진다. 말그대로 위인의 위대한 사랑이 짙은 향기가 되어 차넘치는 아름다운 시의 세계, 시의 화원이다.

생활세부창조의 빛나는 모범도 여기에는 다 있다.

우리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의 숭고한 철학세계를 의미심장하게 보여주는 성격적인 세부, 심리정서적인 세부, 표현성이 강한 세부의 창조로 작품들의 형상세계는 더욱 풍만해졌으며 철학적의미는 보다 깊어졌다.

단편소설 《밤나무숲이 설레일 때》의 세부는 이채롭다.

무릇 사람들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수술대우에 올라 생사의 한계선에서 오락가락할 때 저도 모르게 찾는 부름은 어머니이다. 그러나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고 부대의 돌격로는 열었으나 육체는 엉망진창이 된 상태에서 수술대우에 누운 박성호는 어머니가 아니라 밤을 찾는다. 그의 주머니에 있는 밤알 세알중에서 한알을 꺼내어 그의 손에 쥐여주니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안도의 미소가 어리고 밤알을 잃을세라 꼭 쥔다. 영웅전사의 손에 쥐여진 밤알, 그것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최고사령부 앞마당의 밤나무에서 딴 밤들을

전원부대 전투원들에게 보내주신것이였다. 부모없는 성호에게는 그것이 곧 어머니의 애뜻한 사랑이였고 아버지의 속깊은 정이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보내주신 밤알이 죽음의 나락에서 허덕이는 영웅전사에게 새 생명을 준 명약이였다.

단편소설 《해빛밝은 나라》의 토성랑세부도 인상적이다. 탁아소도 유치원도 없는 그 험한 세상에서 어린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아이의 허리에 바줄을 매고 그것을 토굴집기둥에 매어놓고 일하러 나간 어머니, 장마철에 개구리가 토굴집방안에 뛰어들어 그와 어울려 노는 어린애, 이 세부는 참으로 많은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여주는 가슴아픈 세부이다. 이 하나의 세부로 지난날 우리 인민의 피눈물나는 주체난을 대변에 알수 있으며 반면에 아이들에게 화려한 궁전을 세워주시는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어버이사랑을 가슴뜨겁게 느끼게 된다.

이외에도 단편소설 《생활의 향기》에 그려진 비둘기세부, 단편소설 《삶》의 손전지세부, 단편소설 《태양을 우러러》(김수범 작)에 그려진 신임장세부, 이 모든 세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철학세계와 인간미를 보여주는 기쁨지고 특색있는 보석같은 세부들이다.

심리묘사와 언어표현에서도 높은 예술적경지에 오르고있다.

수령형상소설에서는 수령님의 심리세계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여 위대한 인간의 거창하고 웅심깊은 심리세계를 자유분방하게 펼쳐놓아야 한다.

작품집에 수록된 단편소설의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내면세계에로 직접 침투하여 그이의 숭고한 심리세계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묘사하여 수령님의 위대성을 뚜렷이 부각시키고있다.

혁명전사 설송이를 밤마다 기다리시는 수령님의 간절한 심리세계, 그처럼 인민들의 사랑을 받던 지배인이 인민우에 군림한 관료로 되는데 대하여 온밤 가슴아프게 생각하시는 민음의 뜨거운 세계, 한 과학자의 고민과 시련을 두고 친정어머

니처럼 마음쓰려 하시는 인정의 세계, 말그대로 위대한 수령님의 대해에도 비길수 없는 무한대한 인정의 세계, 끝없이 펼쳐진 사랑의 바다를 시인과 같은 섬세성으로 뜨겁게 노래부르고있다.

언어표현도 높은 수준에서 탐구리용하고있다.

자기나름의 문체적특성이 뚜렷한 소설가들은 최대의 정중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자기의 언어발에서 가장 정교하고 특별히 다듬어진 어휘표현들을 백사장에서 사금을 고르듯이 고르고골라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의 흐름속에 한자두자 정성들여 쏘아박고있다. 그리하여 작품과 독자간의 사이를 가로막던 경계선, 한계는 사라지고 친어버이처럼 다정하고 친근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이 때로는 승엄하게, 때로는 인자하게 그리움에 젖어있는 우리들의 가슴속에 조용히 찾아오신다.

단조롭고 딱딱하고 추상적인 어휘표현들은 멀리 사라졌다. 언어의 능수들인 우리 작가들의 소설에서는 단조롭고 딱딱한 어휘표현들은 없어지고 진실하고 생동하며 친근하고 부드럽고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어휘표현들이 살아 숨쉬면서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드넓고 뜨거운 사랑의 품속으로 다정히 이끌어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기념 단편소설집(1) 《력사의 자취》에는 수령형상단편소설들중에서 정수라고 할수 있는 명작들이 올라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철학세계를 특색있는 예술적수단과 수법들을 능숙하게 리용하여 품위있게 형상한 단편소설들은 선군시대 명작창작의 참다운 본보기로 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수령형상문학창작의 첫시기부터 우수한 수령형상소설들을 내놓은 오랜 작가들의 창작경험을 성실하게 따라배워 수령영생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 세계 경구, 격언

- 《사람들의 행복은 생활속에 있고 생활은 노동에 있다》
- 《남을 위해 사는것이 생활의 둘도 없는 행복이다》
- 《한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것만이 가장 중요한것이다》

- 《생활에서 의심할 여지없는 단 한가지 행복이 있는바 그것은 남을 위해서 사는것이다》
- 《행복이란 후회가 없는 만족이여라》
- 《쾌활한 사람이란 즐거운 현재와 미래를 가진 사람이다》
- 《웃음— 이것은 인간애이다》

# 봄소나기

백남룡

근래에 몸이 버쩍 나서 풍채가 우람해진 창포 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지배인 리장섭은 승용차에 오르기 전에 먼저 담배 한가치를 피워물었다.

일종의 습관이기도 했지만 뒤미처 자기를 바래 주러 사무실 바깥출입문으로 나오는 탄광간부들이 여유를 가지도록 아량을 보이는 것이었다.

《우리 령천은 지배인동지 고향탄광이나 다름없는데 좀 자주 내려오십시오.》

방금 있는 생산참모회의에서 진땀을 뻘 후방부 지배인이 체면을 미뤄놓고 선잠 한마디 했다.

어딘가 발라맞추는기가 느껴졌지만 싫지 않아 리장섭은 승용차문에 손을 얹고 틀지게 옷몸을 젖히었다. 가슴밀굽에서 만성화되다싶이 한 자부심이 은근히 차올랐으나 그는 범상스레 뇌이였다.

《오고싶어도 어디 몸뻔수가 있어야지.》

리장섭은 앞산경사면에 층층이 들어앉은 탄부들의 아담한 살림집들과 그뿐한 생산건물들쪽에 자못 흡족한 눈길을 주었다. 지난날 그의 고심참담한 노력과 완강한 사업열정이 낳은 결실이였다. 탄광의 갱막장천정을 뻗친 동발가치로부터 문화후생시설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은 없다고 할수 있는것이다.

《령천탄광이야 이제 동무들이 내가 오지 않아도 제힘으로 끝구나가질 않소.》

《그래서가 아닙니다. 탄부들이 지배인동지를 한달쯤만 못 보면 속이 썩서 〈우리 장섭지배인〉이 허리병이 도치지 않았나 하구 말합니다.》

《중추에 속하는 령천탄광은 한달에 한번정도 내려와도 잣다고 할수 있지. 한데 탄부들이 아직 두 달 〈우리 지배인〉 이라구 할리 있겠소. 자기네 지배인이 시퍼렇게 있는데.》

리장섭은 막장에 들어가 살다싶이해서 낮색이 혈긔한 젊은 령천탄광지배인을 쳐다보았다. 난장에서 수지안전모를 벗을줄 모르는 그는 겸손하게 침묵을 지켰지만 후방부지배인은 나이 웃벌이 돼서 그러는지 화제를 가로챘다.

《내가 요전에 염소젖을 가지구 갱안에 들어갔는데 압축기수리공령감이 묻질 않겠습니까. 〈우리 장섭지배인〉을 몹시 보기 힘들다 하구요. 그래서 내가 깨우쳐줬지요. 사처에 널려있는 탄광들과 부속공장들을 잔뜩 그러안고있는 령합기업소지배인동지를 어떻게 본다구 그러는가. 석탄공업성에서두 바쁜가 어쩐가 묻구서야 회의부른다구 했지요.》

후방부지배인은 느긋한 웃음을 띠우고 달라붙

는다.

《이거 사람을 너무 취올리구 분장시키지 마요. 그러다 곤두박질시켜 코깨뜨리겠소.》

리장섭은 엄지손가락을 뿔아 동갑인 후방부지배인의 등실한 배부위를 꺾꺾 찢러대며 흥그럽게 뇌이였다.

《능청스럽단 말이요. 날자구 령천에 비끄러매지 못해하는 속셈을 모르는줄 아오?! 령합기업소에서 동발목이랑 후방물자들을 더 읊아낼 궁냥만 가뜰 할테지.》

《원, 령합적으로 살림살이가 그중 나은 우리 령천탄광이 그런 욕심을 내다니요! 맘놓으십시오.》

후방부지배인이 꿈쩍 짙이는데가 있는지 얼굴이 벌개서 손을 내저었다. 그통에 슬며시 어부지리 덕을 바라는 탄광간부들의 의존심까지 로출돼서 관리부마당가에는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하기야 령천이 괜찮게 살지. 이제 양어장결에 다 오리우리를 몇동 더 늘구면 살림살이가 아주 그뿐해질거요.》

리장섭은 응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머리를 끄덕였다. 두봉산기슭의 양어장은 그가 이곳 령천탄광 지배인을 할 때 탄부들을 동원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간고하게 건설한 창조물이었다. 그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강낭죽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판인데 양어장이 다 뭔가고 반대를 했지만 리장섭은 끝내 해내여 이제는 탄부들이 이 산골안에서 비늘이 번쩍거리는 생선맛을 드문히 보게 된것이다.

《양어장에서 오리까지 기르게 됐다고 자만하지 말구 확장공사를 버쩍 다그치라구. 갱막장에 들어가 지 않는 사람들을 다 동원하면 오리우리를 빨리 지을수 있을거요.》

《넘려마십시오. 기초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오리고기를 공급받는만큼 석탄날가리가 높아져야 하오. 동발목이랑 넉넉히 보내줄테니 생산참모회의에서 토론한대로 굴진총화를 실속있게 하구 막장지휘에서 빈틈이 없어야겠소. 그럼 잘들 있소.》

리장섭이 육중한 몸집을 기울여 뒤좌석에 들어앉자 승용차가 주저앉을듯이 움썹거렸다.

방금 갱에서 나오는지 탄가루 묻은 얼굴이 검실검실한 탄부들이 전차길을 따라오다가 령합기업소지배인승용차를 보자 반가와서 굽석굽석 인사했다.

거의가 다 그가 령천탄광지배인시절에 함께 부대끼며 교락을 나누던 친숙한 탄부들이였다. 오래

간만에 만나는데 제대로 되자면 응당 승용차에서 내려와 매 사람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고 짝막한 인사말이라도 건넬는게 도리일것이었다. 그러나 리장섭은 생산참모회의에서 지내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피곤이 짝 물려와 몸을 움직이기조차 싫었다. 또 그다지 깎듯이 레의를 차릴 마음도 나지 않아 뒤좌석에 깊숙이 들어앉은채 약간 고개만 끄덕여 낮익은 탄부들을 알은체 했다.

승용차는 굵고 멋진 붓글씨로 울긋불긋 장식된 속보판들이 주련이 늘어선 아치형정문을 벗어났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차는 경적소리를 요란스레 내뿜다가 종시 멈춰서고말았다.

눈을 감고잠을 청하던 리장섭은 화가 난 운전사가 뭐라고 제압담하며 차문을 열고 나설 때에야 승용차앞을 가로막고 선 웬 처녀를 보았다.

뒤로 간편히 꼰진 머리에 얹은 꽃수건을 목에 감은 처녀는 나이가 어려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것 같기도 하였다. 탄광노동자같아보이지는 않았다. 아무려면 탄광처녀가 무엄하게련합기업소지배인의 승용차를 막아서겠는가.

처녀가 성을 내는 운전사에게 어딘가 미안쩍어 하면서도 손세를 써가며 애타게 호소하는 품이 보통이 아니었다.

리장섭은 처녀의 목소리를 잘 들을수 없었지만 분명 지배인 자기를 만나자고 한다는것을 알았다.

모름지기 처녀는 주변농촌이나 아니면 더 먼곳에서 탄을 달라고 왔으리라고 생각되었다.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그렇게 절박한 탄사정이 아니고야 처녀가 길목을 지킬리 없었다.

원래 운전사는 미림이 든 사람이여서 석탄이나 그밖의 자재와 물건 같은것을 해결받으려고 지배인을 지못게 쫓아다니는 이러루한 사람들과 맞다면 적당한 구실을 붙여 곧잘 때버리곤 했다. 그런데 지금은 처녀가 오돌차게 딱 뻗쳐 그러는지 어찌지 못하고 쫄쫄했다.

퇴근길에 오른 탄부들이 호기심이 나는지 하나둘 걸음을 멈춘다.

리장섭은 마지못해 승용차문을 반쯤 열고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 창진이, 탄을 달라구 그러나?》

운전사는 단숨에 건둥 뛰여와서 허리를 굽히고 낮은 소리로 주어섰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말을 해야 알지요. 무작정 지배인동지를 만나겠다니. …》

《어데서 왔대?》

《이곳 농장 분조장이랍니다.》

《그럼 탄이겠구만. 령천지배인한테 보내라구.》

리장섭이 심드렁히 뇌이고 차문을 닫으려는데 어느새 처녀가 운전사곁에 다쫓아와 섰다. 인사까지 꾸벅 한다.

《저는 지배인동지한테 꼭 제기할 문제가 있습

니다.》

처녀의 얼굴엔 항용 사람들이 무언가 자기한테 소용되는것을 달라고 할 때 나타나는 어쭙음과 송구함이 뒤섞인 간절한 낮빛이 조금도 없었다. 당돌함을 벗어난 어떤 결연한 기색이 떠돌고있다.

리장섭은 부득불 차박으로 나오지 않을수 없었다. 방금전에 탄광관리부마당에서 그를 바래준 후 방부지배인과 또 몇사람이 이쪽으로 오는것 같고 저만치에서는 탄부들이 그가 어려운지 다가오진 못하고 지켜보고있었다. 그는 량손을 굽은 허리춤에 얹고 너그럽게 물었다.

《분조장, 그래 무슨 일인가?》

《저는… 지배인동지를 만나려고 련합기업소에 두번이나 갔었습니다.》

처녀가 왕복 60리길을 두차례나 오갔으면 험치 않은것이다. 그런데 면담시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농장분조장이 찾아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것 같지 않다.

《들어보내지 않던가?》

《한번은 회의를 한다가에 만나절을 기다렸는데 … 지배인동지가 급히 아래탄광에 가시는 바람에 못 만났습니다. 그저께는…》

불쑥 리장섭은 자기가 한가스레 농장분조장까지 만날새 있는가고 계획과장한테 소리지른 생각이 났다. 그저께 일이던가? 너무 바빠 돌아치다나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고 날이 바뀌었는지 아리송하다.

《처녀가 이 무사분주한 지배인을 겨우 붙들었구만. 제기하라구.》

리장섭은 멀쩡이 둘러선 낮익은 탄부들에게 웃음어린 눈길을 보냈다. 그들의 뒤에 와 선 령천탄광 후방부지배인은 어째선지 분조장처녀를 알아보자 낮색을 찌프렸다.

《지배인동지, 오리우리확장공사를 그만두어주시시오.》

처녀의 목소리는 애되면서도 웅골찬 기운이 느껴졌다.

삼시에 주위는 조용했다.

《뭐라구?! 허, 분조장체네가 탄광일에 간섭하다니!》

리장섭은 어이없어했다. 그는 탄부들을 헤집고 나서며 뭔가 사연을 밝히고싶어하는 후방부지배인을 손으로 제지했다.

처녀의 말을 마저 들어보고싶어서였다.

《저는 탄광일에 빠치는게 아닙니다. 탄광에서 오리우리를 더 짓는다고 우리 분조의 부침땅을 침범했습니다.》

《부침땅이라…》

《양어장옆에 있는 포전입니다.》

《몇평이나 되던가?》

《고작해야 백오십평정도밖에 안됩니다.》



후방부지배인이 더 참지 못하고 나섰다.

《우리 탄광사무실에 왔던 체넵니다. 알아들을만큼 말해줬는데도 성화를 먹이누만요. 체네가 땅 몇조각을 가지구 어찌나 암팡스레 구는지…》

분조장처녀를 두루 어루다가 종내 설득시키지 못하고 단단히 충돌한것 같았다.

《여보, 그만하오. 조각땅은 땅이 아니요?! 남의 부침땅을 오리우리부지로 쓰는 사람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치다니.》

리장섭은 후방부지배인을 수그러뜨려놓고는 온화한 얼굴로 처녀한테 돌아섰다. 탄광사람들이 지켜보는데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에 부닥쳤다는 것을 느꼈지만 처녀를 그닥 어렵지 않게 다루어낼수 있을것 같기도 했다.

《분조장은 집에서 뭘 때나?》

《탄을 땀니다.》

《아무렴 탄고장아궁에 다른걸 때겠나.》

리장섭은 처녀의 솔직한 대답에 만족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 령천탄광에서 캐낸 탄이겠지? … 그러니 갱막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탄부들이 오리고기를 넉넉히 먹는데 반대는 없겠지?》

《그걸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쉽게 합의를 볼수 있구만. 오리우리를 넓히자니 어차피 동무네 부침땅귀통이를 다친것 같은데 량해하라구.》

리장섭은 너그럽게 처녀의 어깨를 다독이기가 지 했으나 물러설 기미는 조금도 안 보였다.

《지배인동지, 그건 분조장이 량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리우리기초를 판 그땅은 농장토지등록 대장에 공발으로 등록된 포전입니다.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리장섭은 불현듯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때 지금의 양어장을 건설하던 일이 생각키웠다. 양어장부지를 두봉산기슭의 개울가에 잡기는 했지만 주변에 잇닿은 농장의 부침땅을 얼마간 쓰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때문에 말썽거리가 생겨 뒤늦게 국토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느라고 여간 힘들지 않았다. 이제 또 그와 류사한 일에 부닥쳤다고 생각하니 은연중 화가 치밀었다. 그렇다고 농장처녀를 억박지룰수도 없었다.

《처녀동문 언제부터 분조장을 하나?》

《작년봄부릅니다.》

《이전분조장은 어데 갔나? 아주 말썽 령감이었는데.》

《그분은… 나이들어 분조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남한테서 말썽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 허…》

리장섭은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 처녀의 어무진 반발에 말문이 막혀 허겁지겁 웃었다. 다음순간 탄광사람들이 모인데서 그런 헛웃음을 쳐서거북함을 메꾸는 자신이 불만스럽기짝이 없었다. 길

가에서 지체할 시간도 없는데다가 얼마 안되는 땅때문에 련합기업소지배인이 위신없이 농장처녀에게 량해까지 구하다니.

그러나 인공이 좀 떨어지긴 해도 어차피 제기된 일이니 분조장처녀를 구슬려서라도 해결지어야 했다. 그러지 않고 시시껄렁한 문제라고 령천탄광일군들한테 밀어버리고 그냥 차에 오르면 일이 더욱 우습게 될수 있다.

그는 애써 걸웃음을 지으며 말머리를 돌렸다.

《동무넌 분조원이 몇사람인가?》

《열… 한명입니다.》

처녀는 불필요한 질문으로 느껴졌는지 마지못해 대답했다.

리장섭은 령천탄광 후방부지배인에게 낯을 돌렸다.

《오리잡은거 좀 있나?》

《없습니다. 한창 알을 낳는 봄철인데 잡을리 있습니까.》

《그래두 한 스물댓마리 잡으라구. 이 처녀분조장네 농장원들이 열한명이라니까 통이 크게스리 두어마리씩 주라구. 얼마 되진 않아두 어쨌든 남의 부침땅을 공짜로 가질순 없잖아.》

리장섭은 당황해서 거절하려는 처녀를 밀막았다.

《그리구… 거 탄광에 잘생긴 제대군인총각 하나 없나?... 분조장이 여간 똑똑하지 않은것 같은데 한사람 골라서 붙여주자구. 대바른 처녀네 탄광이 끌어당겨야지.》

《거 좋겠습니다.》

후방부지배인이 제격 호응해나섰다.

《3갱 굴진소대장이 적임잡니다. 키 크구 잘생긴데다가...》

《지배인동지...》

분조장처녀는 어떤 모욕감을 느꼈는지 얼굴이 활짝 달아올랐다. 눈물이 가랑히 맺히고 목소리는 떨렸다.

《생각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스물한살입니다. 우리 분조에는 오리가 아니라... 그 땅에 원래대로 콩을 심게 해주십시오.》

분조장의 눈물어린 항변과 호소에 주위의 분위기는 싸늘하니 얼어붙었다.

리장섭은 늦가을 호두알같이 뽀뽀히 여문 처녀와 더 어떻게 맞설수 없음을 느꼈다. 그는 어린 농장처녀한테 면박당한것 같아 불쾌하기짝이 없었다. 더구나 모여선 탄광사람들의 얼굴에 처녀를 동정하는 기색이 려연한데다가 처녀가 주장하는 것에 비해 오리우리를 확장하는 일이 어딘가 온당치 못해보여 화가 동했다.

《탄광을 도울 마음이 정 없다면 할수 없지.》

리장섭은 울컥 속이 치미는것을 가까스로 눌렀다.

《내 동무네 관리위원장한테 말하겠어! 하긴 나

까지 같필요가 없지. 후방부지배인, 동무가 가서 만나라구. 농장이 우리 탄광 신세를 오죽 지고 사나.»

그는 승용차에 들어앉기 바쁘게 차문을 후려닫았다.

×

도당협의회를 끝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청사앞뜰로 나오시였다.

이른봄의 메마른 찬바람이 부는 음산한 날씨였다.

도시를 병풍처럼 둘러싼 산봉우리들너머로 덩이진 비구름이 몰려오고있었다.

먼길떠날 차비를 갖춘 수행일군이 승용차결에서 초조히 기다리였다. 예정출발시간보다 퍼그나 늦어진것이였다.

그이께서는 협의회에서 석탄과 기계를 비롯한 중요산업을 가지고있는 도가 경제건설에서 응당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대책적인 방안들을 세워주시였다.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걸린 문제들도 일일이 풀어주시느라 시간이 많이 흘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름답드리버드나무결에 서운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서있는 도당책임비서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시였다.

좁전에 도당책임비서는 자신께 오래지 않아 날이 저물겠는데 숙소에서 쉬었으면 하고 간청했다. 그러나 들어줄수 없으시였다. 아침녘에는 철령너머 최전연부대에 도착해야 했다.

《책임비서동무, 거 리장섭이던가... 탄부들이 <우리 지배인> 이라고 부르던 동무 말이요.》

《창포지구 탄광련합기업소 지배인 말입니까?》

《옳소, 그 동무가 왜 보이지 않소. 오늘 협의회에 없었지?》

《예,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 그 동무한테 일이 좀 생겨놔서...》

《무슨 일입니까?》

《달포전에... 령천협동농장의 분조장처녀가 국토관리기관에 신소를 했습니다. 원래 령천탄광양어장에 오리우리가 있었는데 장섭지배인이 확장공사를 벌리면서 그 분조의 룡밭을 얼마간 침범한 모양입니다. 그 문제가 차츰 불어나가지구... 법무에서까지 개입하게 됐습니다. 며칠전에 도법무국에서는 그 동무 문제를 엄중하게 취급하고 사건심의를 끝냈습니다. 이제 곧 법무생활지도위원회를 열구... 행정처벌을 적용할것 같습니다.》

《령천탄광이면 <고난의 행군> 시기 장섭동무가 지배인으로 있던데가 아닙니까?》

그이께서는 차에 오를념을 못하고 뇌이시였다.

《농장포전을 오리우리건설부지로 쓰려고 했다. ... 룡밭을 빈땅처럼 마음대로 파제졌는가?》

《예. ...》

《<우리 지배인> 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다니.》

《탄광양어장옆에 잇닿은 땅이니까 일없으리라 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공사를 벌려놓은것 같습니다.장군님, 걱정마십시오. 제가 장섭동무를 불러다가 잘 일깨워주겠습니다. 무슨 일이나 통이 크게 와닥닥 해치우곤 하는 성미여서 그런 결함을 범한것 같습니다.》

《성격상결함이라... 그러니 책임비서동무는 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서 적용하려는 행정처벌이 썩 달갑지 않은 모양이구만.》

김정일동지께서 누그러게 말씀하시자 도당책임비서는 마음이 놓여 속을 터놓았다.

《제 생각엔... 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서 취급하지 말고 회의에서 비판을 따끔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섭지배인은 지난날 령천탄광에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이구... 지금도 도내는 말할것 없고 석탄공업부문적으로 열손가락안에 꼽히는 지배인입니다. 일개 농장원처녀의 신소때문에 처벌하면 관록있는 련합기업소지배인 인격이... 위신이 바닥에 떨어질수 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사람을 아끼는것으로 평판이 꽤 많은 도당책임비서의 말이 리해되었으나 긍정할수는 없으시였다.

《인격손상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큰 간부는 인격자이고 어린 농장원처녀는 그렇지 못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어린 처녀라도 손상되지 말아야 할 고상한 인격을 지니고있을것입니다. 겹해서 말한다면 사람의 인격은 자기자신이 쌓은 수양, 정신도덕적품모로 세워지는것이지 남이 편들어 세워주는것이 아닙니다.》

그이께서는 나지막한 어조로 문제의 본질을 론하시였다.

《장섭지배인이 지난날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건 나도 압니다. 그러나 과거에 공로가 많고 지금도 역할이 큰 관록있는 일군이라고 해서 어떤 치외법권적존재로 될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위법현상은 그가 누구든지, 아무리 사소한거라 해도 법규범의 테두리에서 공정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책임비서동무는 그 일이 있는 다음에 장섭지배인을 만나봤습니까?》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 지금 장섭지배인이 련합기업소에 있습니까?》

《오리우리 짓는걸 바로잡겠다구 령천탄광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이께서는 출발을 초조히 기다리는 수행일군쪽에 량해의 눈길을 돌리시였다. 이제 가야 할 산길과는 방향이 반대쪽인 령천탄광에 가느라면 시간이 상당히 지체될것이었다. 그러나 리장섭지배인을 만나보지 않고 그냥 떠날수 없으시였다. 결

패있는 그 탄광지배인이 과연 성격상결함으로 신소를 받았는지...

《나하구 같이 가봅시다.》

그이께서 송구스러워하는 도당책임비서를 데리고 승용차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자 수행일군이 황급히 다가왔다.

《장군님, 비가... 소나기가 올것 같습니다.》

《비를 맞으면 뭐라고. 가물었는데 봄소나기야 좋지. 겨우내 쌓인 먼지를 씻기 대지를 푹 적시구. 책임비서, 어서 타시오. 장섬동무를 본지도 오랬소.》

비구름이 무겁게 덮인 산봉우리쪽에서 번개불이 펑긋거리고 꾸르릉— 우뢰가 터졌다. 저으기 경쾌한 맛을 자아내는 봄철우뢰소리는 잇달아 산울림으로 번져 하늘가 멀리로 울려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차창밖으로 흘러지나가는 봄기운이 완전한 산천에 정깊은 눈길을 돌린채 추억에 잠기시었다.

10여년전,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어느 가을날에 김정일동지께서는 령천탄광마을을 께치른 신작로를 지나다가 승용차를 멈추게 하시었다.

산경사지를 따라 아담하게 지은 단층살림집들이 유난스레 그이의 눈길을 끌었기때문이었다.

그이께서는 차에서 내리어 탄부들 몇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령천탄광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네 리장섬지배인자랑을 하였다.

리장섬이 령천탄광지배인으로 임명받고 왔을 때는 탄광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전기가 부족되어 뿔프를 돌리지 못해 막장에는 물이 찼다. 동발목이 부족했고 폐갱되지 않은 갱들은 압축공기가 모자라 굴진을 못해 탄발이 줄어들었다.

리장섬지배인은 갱안에 들어가서 옷통을 벗어 불이고 아래는 속옷만 입은채 물을 폈다. 그러자 탄부들이 달려오고 아낙네들과 아이들까지 물통을 들고 막장에 밀려들어 장밤 물을 퍼서 갱을 살려내었다.

리장섬은 전기사정으로 몇대밖에 돌리지 못하는 압축기를 막장근처에 옮겼다. 그랬더니 착암기대수를 늘일수 있었고 압축기공기압도 높아져 굴진속도가 5배로 올라갔다. 그래서 허물어지다싶이한 폐갱들을 복구했으며 탄광이 앞으로 푹푹하게 캐먹을수 있는 고열탄밭을 마련하였다.

리장섬은 탄광자체로 크지 않은 소성로를 만들어 마르까가 쫄쫄한 세멘트를 구워냈다. 강도가 높지 못한것이였지만 탄부들의 생활에 알맞춤한 단층살림집은 넉넉히 지을수 있었다. 한해사이에 초라하던 탄광마을이 물라보게 면모를 일신하였다.

막장에 들어가 일하는 탄부들이 기름지게 배불리 잘 먹어야 힘이 나고 석탄을 팡팡 캐낼수 있다는것은 당연한 지론이였지만 이전지배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리장섬지배인은 막장지휘를

본때있게 해서 석탄생산을 부쩍 늘이는 한편 후방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렸다. 두봉산골짜기물을 리용하여 양어장을 통이 크게 만들었고 탄광뒤켠 야산들의 자연풀판에서는 염소와 토끼를 대대적으로 길렀다. 젃차는 염소만도 200마리나 되어 탁아소, 유치원아이들은 물론 막장탄부들은 실참이면 의례히 염소젖을 한고뿌씩 마실수 있었다. 탄광돼지목장옆의 부업지는 진거름을 많이 내여 비옥해져서 농사가 류달리 잘되였다.

올감자와 부루, 썩갓 같은 봄남새를 실컷 심어 먹고도 가을에는 술한 톨을 거두어들였다. 그리하여 탄광영양제식당에서는 두부와 콩나물, 비지를 떨구지 않았다. 버섯기르기는 얼마나 알심있게 과학적으로 했든지 이웃탄광들은 물론 먼 타고장기업소들에서까지 본받으러 왔다. ...

그날 김정일동지께서는 너무 기쁘시여 로상에서 지체되는것도 마다하지 않고 탄부들이 《우리 지배인》, 《우리 장섬지배인》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령천탄광지배인을 만나보시었다.

조국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는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지배인이 주저앉지 않고 탄부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부닥치는 난관을 파감하게 뚫고나가 탄광촌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시켰으니 진정 대견스러우시었다.

《나는 인민들이 〈우리〉라는 말을 붙여 부르면서 존경하고 따르는 일군을 만날 때가 제일 기쁘오.》

그이께서는 막장에서 경황없이 달려온 리장섬지배인의 장알박힌 굳은 손을 힘있게 잡아주시었다.

겐안전모를 쓴, 미남자라고 할수 있는 리장섬의 구리빛얼굴에는 석탄가루가 군데군데 묻었고 체소한 몸집을 훌렁스레 감싼 물날은 진근색면직작업복은 무릎어방이 희벗하게 썩 나왔다. 차림새나 체통이 어느 탄부들과 조금도 다름바없었으나 총각시절에 처녀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했음직한 쌍까풀진 큰 눈에서는 40대 초반의 실천력이 드센 일군의 강단과 열정이 번뜩이였다.

《지배인이 탄부들과 같이 막장에서 일하니 탄부들이 좋아 안할리 있겠소.》

《장군님, 탄광지배인도 탄부입니다.》

《그래, 탄부지. 지배인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달라붙으니 령천탄광이 일떠선거요. 갱을 살리고 석탄생산을 추켜세우는것도 잘한거지만 탄부들의 식생활에 근심이 없도록 한것이 정말 기쁘오. 동무같은 지배인이 틀고앉은 기업소는 내가 마음을 놓겠소. 수고했소. 〈우리 지배인〉, 어찌면 몇해사이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할수 있었소?》

김정일동지께서 리장섬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칭찬하시자 그의 탄면지 묻은 두툼한 입술이 벅잇이 열리며 흰이가 드러났다.

《양어와 풀먹는 집집승기르기도 그렇구, 버섯채

배와 온실남새 같은 후방사업은 다 당정책입니다. 저희들은... 그저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했을뿐입니다. 그랬더니 탄부들의 식생활이 풍족해졌습니다.》

《지배인동무, 앞으로도 탄부들한테서 존경을 받으며 일을 잘하기 바라오. 〈우리 지배인〉, 〈우리〉라는 호칭은 인민들이 자기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일군들에게 달아주는 가장 높은 칭호이고 평가요. 일군은 관직을 가져서가 아니라 대중의 두터운 신뢰와 사랑을 받을 때만이 진짜 간부라고 할수 있소.》

김정일동지께서는 눈물이 글썽해서 감격에 겨워하던 리장섭지배인의 미더운 얼굴이 어제런듯 선히 떠오르시였다.

《책임비서동무는 장섭지배인을 몹시 긍정적으로 보는것 같은데... 그에 대해 다른 반영이 제기된건 없습니까?》

《일부 사람들한테서... 지내 틀을 차리고 교만해졌다는 말을 좀 듣는것 같습니다. 찾아온 탄부들도 잘 만나주지 않고... 하지만 련합기업소를 거머쥔 지배인이 보통 바쁘지 않습니다. 그리구 달라는 사람마다 다 석탄을 퍼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틀려먹었다, 교만하다, 어쩌다 하고 비평을 합니다.》

《탄부들이 지금도 장섭동무를 〈우리 지배인〉이라고 부릅니까?》

《예, 그런것... 같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딘가 자신없이 대답하는 도당책임비서를 쳐다보고 빙그레 웃으시였다.

《자기 탄광사람들한테서는 〈우리 지배인〉이라고 불리우면서 남한테서는 신소를 받는다, 모를 일인데... 어쩌니 모순된감이 느껴지는구만.》

《장군님, 장섭동무한테 탄광본위주의가 좀 있습니다. 이번 일도 그래서 빚어진것 같습니다.》

《탄광본위주의라... 본위주의란 말이지. 위법현상의 근원을 본위주의에서 찾는건... 지내 피상적이고 사람을 어루만지는걸로 되지 않을가.》

승용차는 큰길을 벗어나 한참 들추며 달리다가 탄광마을이 건너다보이는 산자드락에 이르러 멈춰섰다.

차에서 내리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도당책임비서를 데리고 양어장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검은 솜타래구름이 짙은 하늘에서는 여전히 실번개가 일고 소낙비를 예고하는듯 웅글은 우뢰소리가 간간히 울렸다.

저물녘의 차거운 바람결에는 봄의 훈향이 여러 겹 숨배여있었다.

노르끼레한 솜털이 핀 버들강아지들이 물오른 실가지들에 촘촘히 매달려 그네를 타고있었다.

햇물이 도간도간 돋은 길센으로 잔거품이 뜬 산개울물이 줄줄 소리내며 넓다랗게 판 양어못의 얇은 곳으로 흘러들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이른봄치고는 물량이 많은편이였다.

갈수기에도 수원이 마르지 않는 산개울물옆에 양어장을 알맞춤히 건설한것을 보면 리장섭이 일할줄 아는 사람이라는것이 대번에 알렸다.

둘레에 버드나무들이 우거진 살찌우기못으로 짐작되는 그중 큰 양어못의쪽에 이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저으기 감탄을 금치 못하시였다.

물풀이 무성한 커다란 높이나 다름없는 양어못 건너편쪽에 수백마리의 오리들이 나앉아있는것이였다. 거의나 싸움질을 모르는 천성이 온순한 오리들은 저마끔 몸에 묻은 물을 털고 부리로 깃을 열심히 다듬는가 하면 방금 물에서 나와 돌로 쌓은 쪽의 경사면을 뒤뚱거리며 기여오르는것들도 있었다. 아직 못가에 떠다니는 오리들의 뒤전에서는 물고기들이 은빛비늘을 번뜩이며 솟구쳐올랐다.

《거 참, 볼만 하구만.》

만족해서 뇌이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양어못쪽길로 허겁지겁 달음쳐오는 리장섭지배인을 반가운 눈길로 띄여보시였다. 체소하던 사람이 보기 좋게 몸이 나고 얼굴이 등실해졌다.

《장군님!...》

리장섭은 당황해서 인사말도 변변히 잊지 못하고 허리만 깊숙이 굽혔다. 눈물이 쿡 치솟으며 앞이 뿌얘졌다. 기쁨과 동시에 말 못할 불안감이 옥죄어들었다.

《그새 잘있었소?》

김정일동지께서는 긴장감을 풀지 못하고 굳어져있는 리장섭을 향해 정답게 물으시였다.

그전날 탄광마을길에서 갱막장의 탄부들과 착암기를 잡고 일하던 장섭지배인을 만나 기쁘시었는데 지금도 허름한 작업복을 걸치고 현장에 있는 그를 마주하니 과오를 범했다는것을 알면서도 반갑고 대견해보이시였다.

《그래 지배인, 뭘 하겠소?》

《낫은 오리우리를 털어서 고쳐지으려구... 의논 하했습니다.》

《허, 분조장한테서 종내 콩밭을 뺏아내지못한 모양이구만.》

그이께서 웃음을 머금고 룡조로 건넌시자 리장섭은 대뜸 우거지상이 되였다. 그러나 그닥 죄스러워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분조장처녀를 어리다고 우습게 봤다가 줄경을 치렀습니다.》

반성인지 변명인지 알수 없었으나 솔직하게 자인한것이라고 할수 있었다.

《저기 파헤쳐놓은게 새 오리우리를 짓자던 곳입니까?》

그이께서는 양어못 왼편에 있는 새끼줄을 쳐놓은 발뼘두리를 가리키시였다.

《예, 기초를... 댔다가 중지... 당했습니다.》

리장섭은 어두운 얼굴로 떠엄떠엄 말쑥울리였

다.

가슴속깊이 잠재해있던 억울함 비슷한 불만의 감정이 꿈틀거리며 솟아올랐다. 양어못두리의 얼마 되지도 않은 땅때문에 어린 농장처녀한테 망신을 당한것이 지금도 내려가지 않는다. 법무국에 불려다니며 조사를 받고 추궁을 들으면서 작게나마 마음고생을 했는가.

그는 하소연하고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치밀었지만 정작 말은 다르게 나왔다.

《장군님… 면목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토지리용허가없이 말뚝 한개도 박지… 않겠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서둘러 결심을 피력하는 장섭의 말에서 그가 농장포전을 다친 잘못을 깊이 반성하지 못함을 서운하게 느끼시었다.

《나한테 면목을 세우는건 그닥 중요한 일이 아니지.》

그이께서는 도당책임비서에게 고개를 돌리고 말씀하시었다.

《창포지구에서 한다하는 우리 장섭지배인과 맞서 신소까지 한 처녀 말이요. 그 당돌한 분조장을 데려다주겠소?》

번개볼줄기가 컴컴해진 하늘 복판을 쭉 갈랐다. 뒤미처 봄우뢰가 꾸르릉 대기를 진동하고 골짜기 쪽에서 불어오는 차거운 산바람이 후둑후둑 비꽃을 날렸다. 굵은 비방울이 잔잔한 못수면에 실무늬를 새겼다.

이제껏 양어못 건너편에 잠잠해 앉아있던 오리무리에서 가벼운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푸른빛대가리에 목에는 흰줄이 가고 온몸에 갈색털이 덮인 《사철오리》수컷 몇마리가 《박 박》소리지르며 앞장에 서자 오리무리전체가 부산스레 움직였다. 그것들은 산만한것 같아도 앞선오리를 따라잡거나 밀치지 않고, 켜를 짓진 못해도 간격은 알맞춤히 보장하면서 일제히 양어못둑길에 뒤뚱거리며 올라서 키낮은 목조건물인 오리우리를 향해 나아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리무리에서 만족스런 눈길을 떼지 못하시었다.

《사양공이 없는데도 제 집을 찾아가는구만. 행군대오가 아주 정연하오. 가관이요. 지배인, 저쪽 앞줄의 갈색오리들뒤에 있는것 말이요, 큰 몸집에 수평자세를 유지하고 나가는 오리들이 〈광포오리〉지?》

《예, 그렇습니다. 그 뒤쪽에 앞가슴이 불룩나온 것들은 〈순안오리〉 품종입니다.》

《꼭 만화영화에 나오는 판료주의자처럼 틀을 차리고 위세를 뽐내는구만.》

김정일동지께서는 웃음어린 얼굴로 리장섭을 쳐다보시었다.

《양어장에서 오리를 기르니 풍치가 참 좋소. 오리배설물로 물고기먹이도 보충하게 되겠지?》

《그렇습니다.》

《오리가 모두 몇마리나 되오?》

《올봄에 까난 새끼오리들까지 합치면 2천마리가 훨씬 넘습니다.》

《대단하구만. 령천탄광이 그만한 오리를 가지구 있으면 부유하다고 할수 있지. 오리목장이라구 불려도 규모가 되겠소.》

《장군님, 우리 련합기업소에서는 이 령천탄광오리사를 더 크게 확장할 결심입니다.》

리장섭은 마음이 흥뜨기 시작했다. 목안이 타들어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앙금처럼 가라앉아있던 억울함이 다시금 자제력의 거죽을 뚫고나오려고 했으나 어쩐지 이번에도 하소연을 터칠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지배인동무, 어떻게 양어장에서 오리를 기를 궁냥을 해냈소?》

그이께서 랑팔을 가슴에 걸고 대견히 물으시니 리장섭은 사기가 올라 설명해드렸다.

《축산잡지에 실린 글을 보구 그대로 했습니다. 사실 처음 양어못에 오리들을 가져왔더니 불안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고장의 적지 않은 늙은이들은 오리가 물고기새끼들을 다 잡아먹는다고 질색하는것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배심을 가지구 오리들을 양어못에 며칠간 꼭박아놓았습니다. 매일 양어못에 와서 지켜보던 늙은이들은 그제야 오리들이 새끼물고기를 잡아먹을 념을 내지 않을뿐아니라 도리어 오리배설물을 물고기들이 잘 먹는것을 보고 무릎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지배인이 정말 잘했소. 양어와 축산을 배합하니 얼마나 좋소. 물고기도 잘 자라고 오리도 많이 기르고, 일거양득이라는것이 바로 이런거요. 앞으로 새끼오리를 많이 내워 탄광마을의 집집들에도 나눠주시오. 오리는 다른 집짐승에 비해 자라는 속도가 무척 빠릅니다. 풀 같은 자연먹이뿐아니라 농수산부산물과 음식물찌꺼기, 부식토나 감탕도 먹고 병에도 잘 걸리지 않기때문에 어디서나 손쉽게 기를수 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얼굴에 벅글썩 웃음너리가 비낀 리장섭을 앞세우고 양어못둑길을 지나 오리우리에 가보시었다.

양어못에 오리들을 서둘러 가져와서 그랬는지 나무판자로 대충 지은것이 분명한 어설핀 우리였다. 갓난 새끼들이 있는 알깨우기방은 그래도 토피로 쌓고 미장도 잘해서 괜찮았으나 나머지 세칸은 비좁은데다 중새끼오리와 살찌우는 오리들이 한데 섞여 북적거렸다.

《지배인, 오리우리가 작구만, 작아. 통이 큰 지배인이 여직껏 이런데서 오리를 기르다니. 수의방역사업도 주먹치기구. 오리목장으로 승격되자면 멀었소.》

김정일동지께서 유감스러워하시자 리장섭은 황

급히 입을 열었다.

《장군님, 사실 제가 이 건물을 임시 짓고 오리를 가져다놓은 다음엔 관심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령천탄광일군들한테 여러번 강조만 하다가 되지 않아 이번에 결심하고 오리우리확장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련합기업소지배인이 직접 나선건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잡도리를 잘하지 못한것 같아.》

김정일동지께서는 머리우에 우산을 높이 들고 선 도당책임비서에게 물으시었다.

《분조장처녀는 오지 않소?》

《오후에 군에 불일이 있어 왔다고 합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비방울이 우산지붕을 점점 세팔게 두드렸다.

마른 풀숲에서 튀겨난 먼지의 알싸한 냄새가 풍겼다.

양어못수면에 굵은 비방울거품이 돌히고 물고기들이 사방에서 철썩철썩 뛰어올랐다.

그이께서는 비에 젖어 번들거리는 양어못뚝을 걸어나오시었다.

《지배인, 이 콩밭자리는 분조장이 처음부터 허락하지 않았단지요?》

《예... 그런걸 제가 기초를 파랴구 했습니다. 사실... 양어못변두리는 양어장에 속하는 땅이나 다름없는것이기에 한쪽으로 오리우리를 지으면서 말하려고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땅때문에 국토관리기관에 찾아다니는게 불편해서...》

《그래도 농장콩밭인데 삽을 대기 전에 일찌감치 토지리용허가를 받을걸 그랬소. 그러지 않았더니 보오. 나중에 법무국에까지 불려다니지 않소.》

그이의 너그러운 타이름에 리장섭은 눈물이 쿡 치웃아 떠염떠염 말씀올렸다.

《장군님...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탄부들한테 오리고기를 넉넉히 먹이자는 생각만 앞세우면서... 서두르다보니...》

김정일동지께서는 리장섭이 말꼬리를 잊지 못했지만 가책속에서도 변명과 하소연이 없지 않은 그의 어두운 속마음을 들여다보시었다.

《탄부들한테 오리고기를 먹이는건 아주 중요한 일이지. 지배인동무, 법무국에서 양어장현지에 나와 조사를 했소?》

《예, 조사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법무국사람들은 탄광오리우리는 별치않게 여기구... 농장콩밭을 건설부지로 쓴것만 추궁했습니다.》

《련합기업소지배인이 탄부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자구 했는데... 법무국에서 사정봐주지 않는단 말이지.》

김정일동지께서는 퍼그나 아량을 가지고 말씀하시었다.

도당책임비서는 오리우리의 불비한 실정과 리장섭의 딱한 처지를 료해하신 그이께서 혹시 사태를 너그럽게 대해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

심스레 침묵을 깨뜨렸다.

《장군님... 아무래도 지배인동무한테 행정처벌은... 과한것 같습니다. 그만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두게 한다구?... 누가? 내가?!》

그이의 얼굴에는 근엄하나 무척 겸손한 표정이 떠오르시었다.

《내게는 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나도 법규정을 지키는 공화국공민의 한 사람입니다.》

사위는 고요해졌다. 우산지붕을 두드리던 비발 소리조차 멎은듯싶었다.

비쏟아지는 양어못수면에 물결을 몰아온 차거운 바람이 그이의 덧옷자락을 날렸다.

비구름은 산봉우리를 덮어버렸고 땅거미지는 골짜기아근에서 안개발이 몽실몽실 흘러나오고있었다.

《난 장식지배인이 기초를 판 오리우리부지가 생태학적전지에서도 맘에 안 듭니다. 우리 저 양어못웃켄 경사지로 올라가봅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얼어붙은듯 서있는 리장섭이와 도당책임비서의 등을 다정히 떠미시었다.

《이 양어못변두리 땅은 지대가 낮고 습한 곳입니다. 우리는 물을 좋아하면서도 습한 곳은 싫어하는 가금입니다. 지배인동무도 아까 비꽃이 떨어지니 오리들이 서둘러 우리를 찾아가는걸 봤지. 우리는 비맞는것조차 싫어하기때문에 우리도 바람이 잘 부는 건조한 곳에 지어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양어장을 감돌아 흘러내리는 산개울옆의 오솔길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엿비스듬히 후려치는 비줄기에 그이의 옷자락이 젖어들기 시작했다.

맨 웃켄에 있는 새끼고기못을 지나 올라가서야 찌리나무와 잡초덤불이 무성한 경사지에 이르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사지의 둔덕에 올라서 어스름이 깃든 양어장과 주변일대를 부감하고 비살을 날리는 바람새도 가늠해보시었다.

《지배인동무, 여긴 대체로 동남풍이 불것 같은데 어떻소?》

《예, 그렇습니다. 비탈지를 따라 내리봅니다.》

《골바람도 방향이 비슷하니 됐구만. 오리우리부지는 여기가 적당할것 같소. 양어못도 가깝고 건조하고.》

김정일동지께서는 아직 리해가 잘되지 않아하는 리장섭에게 따듯이 가르쳐주시었다.

《오리우리는 수의방역상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에 건설해야 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부터... 비탈진 곳에서는 높은 지대에서 내려오면서 알깨우기실과 새끼오리우리, 중새끼오리우리과 큰 오리우리순서로 배치하는 원칙입니다. 이 비탈지에 오리우리들을 아담하게 내리지으시



오. 여름에 가서는 돼지우리도 저쪽에 짓고, 그러면 오리와 돼지배설물이 양어못에 흘러들어 여간 좋지 않을것입니다. 오리우리와 돼지우리사이에 길도 넓게 내고 자그마하게 배합먹이공장도 건설하시오. ... 그렇게 하면 수의축산학적으로도 만족시키고 경제적효과성도 클겁니다.》

《장군님!...》

리장섭은 눈시울이 젖어들어 습벅일뿐 그이의 해박한 축산학지식에 감동하여 더 말을 못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도당책임비서에게 당부하듯 말씀하시었다.

《세멘트나 목재가 퍼그나 들텐데 도에서 보장해주시오. 양어와 축산을 배합해서 탄부들의 식생활을 높이자구 머리를 쓰는 지배인동무를 잘 도와줍시다.》

날은 저물었다.

봄소나기는 잠시 부슬비로 변하는가싶더니 우뢰소리를 꾸릉꾸릉 터치며 또 한차례 쏟아붓기 시작했다.

잡관목술과 풀덤불이 엉킨 비탈지를 적시는 소연한 비소리만이 가득찼다.

그이께서는 축산기지를 새롭게 꾸릴 욕망에 불타는 리장섭이와 도당책임비서를 데리고 미끄러운 비탈길을 내려오시었다.

우산을 썼는데도 불어치는 비줄기에 그이의 덧옷팔소매와 자락은 이미 축축히 젖었다.

양어못쪽길쪽에서 기다리던 농장분조장처녀가 그이한테로 반달음쳐와 인사를 올리였다.

《오, 동무가 여기 분조장인가. 어서 우산밑에 들어오라구. ... 저런, 옷이 폭 젖었구만.》

김정일동지께서는 저녁어스름속에 두눈이 류달리 광채를 띠는 처녀를 반가이 맞아주시었다. 나이와 가정형편, 농사차비정형을 다심하게 알아보고나서 언지시 말씀하시었다.

《분조장이 어떻게되어 신소를 했다는걸 내 다들었소. 이 려합기업소지배인이 콩밭을 뺏으려구 오리를 주겠다, 굴진공충각을 얻어주겠다 하며 열렸다지. 나중엔 탄부들이 보는데서 동무를 올려놓구 가버렸구.》

《그다지... 심하게 그러지는 않았습시다.》

처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주눅이 들고 잔잔한 후회가 느껴졌다.

《분조장, 어떨가. 지배인이 자꾸 달라는데 이 콩밭을 꼭 떼줄가?》

그이께서는 짐짓 정색한 어조로 처녀를 떠보시었다.

《장군님... 며칠전에 관리위원장동지가 저더러 콩이 얼마 나지 않는 땅인데... 농장이 땀값이랑 두루 탄광신세를 많이 지는데 오리우리부지로 떼주자고 했습니다. 양어못변두리땅은 콩을 심기보다 탄광에서 쓰는게 더 경제적이라구... 국가적립장에 서자구 해서... 그게 옳은 말이라구 생각되

니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시다. 그래 오늘 국토관리기관에 다시 찾아갔습시다.》

《거기서 오는 길이란 말이지. ... 허가를 받았나?》

《못 받았습시다. 저더러... 탄광이 콩밭을 뺏는 다구 신소를 하더니 이번에는 오리우리건설부지로 내주겠다고 변덕을 부린다면서... 분조장이 탄광일을 들고다니지 말라는것이였습니다.》

《콩밭은 분조에서 일군거라지?》

《예,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원래는 돌투성이땅이였는데 이전 분조장아바이가 기름작물생산계획을 하겠다구 분조원들을 데리구 개간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학교 갔다와서는 밤마다 어머니랑 같이 돌을 취내구 잡초덤불을 뽑았습시다.》

《음, 그런 밭이였구만. 분조장, 농장원들의 땀이 스민 귀한 땅을 뺏으려 든 이 지배인을 어떻게 혼쌀낼가?... 법조항에는 아마 농경지를 함부로 건설부지로 쓰면서 토지리용질서를 어긴 사람은 행정적제재를 주게 되어있을거요.》

《장군님...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 제가 나이라도 어린게... 땅 아까운줄만 알고 아버지벌되는 지배인동지한테 버릇없이 맞섰습시다. 정말 후회됩니다. ... 문제가 이렇게... 커질줄은 몰랐습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결국한 처녀분조장의 내심속에 흐르는 인정미를 후덥게 느끼시었다. 농장포전을 그지없이 소중히 여기는 처녀, 법을 엄격히 지킬줄 알면서도 도덕적심리는 얼마나 고상하고 뜨거운가, 이런 훌륭한 세대가 협동농장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 기쁘기 그지없으시었다.

《지배인동무, 오리우리부지 허가를 받겠다고 찬비를 맞으며 다닌 이 분조장처녀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그이의 손에 등을 밀리운 리장섭은 진심으로 분조장에게 머리를 숙였다.

《장군님, 잘못했습니다. 전 분조장동무가 이토록 마음 고운 처녀인줄 몰랐습시다. 어리다구 속보구... 콩밭때문에 안타까와하는 순진한 처녀한테 충각소리까지 꺼내며 우롱했습니다.》

《장섭동무, 하나 물어보자구. 탄부들이 지금도 동무를 <우리 지배인> 이라고 부릅니까?》

《...》

《솔직히 대답해보시오.》

《들어본지... 오랫동안.》

리장섭의 목소리는 땅속에 갇아드는듯싶었다.

《내 그러리라고 짐작했습니다. 남한테서 신소를 받는 일군이 결코 자기 사람들과한테서라고 신뢰감을 얻을수 없을것입니다. 이번에 지배인동무가 범한 결함은 단순히 협동농장의 땅 몇뽕기를 함부로 다친데 있는것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비록 탄광로동자들에게 고기를 더 먹이자고 한 훌륭한

명분이 있지만 그뒤에는 남을 희생시키고 자기들 이익만을 챙기려는 연합기업소지배인의 독단과 권력탐용이 있습니다. 도당책임비서동무는 지배인 동무한테 본위주의가 심하다고 했지만 난 자고자대, 교만이라고 분석하고 싶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슴이 아프시여 한동안 말씀을 못하시였다.

어떻게 되어 《고난의 행군》 시기 갱막장에 들어가 탄부들과 같이 물을 퍼내고 착암기를 돌리던 검박한 지배인이 틀을 차리고 거만해졌는가, 교만성이 도수를 넘어 위엄과 권세가 법을 어길 정도로 무엄해졌는가.

사람들로부터 《우리 지배인》이라고 존경을 받는데 습관돼서 자체수양을 게을리하면 어느결에 자기를 과신하게 되고 거기서 부풀어난 자부심은 우월감으로 변한다. 우월감이 지속되면 교만해지기 쉽상이다. 사람이 옳은 충고를 귀등으로 들으면서 오만해지면 법규정도 허술히 여기게 된다. 지금은 협동농장의 부침땅을 떼내어 탄광리익을 챙기려 했지만 그런 무엄한 버릇이 자라게 되면 나중에는 간파할수 없는 엄중한 결함을 빚어낼수 있다. 사소한 위법건이나 큰 부정건은 언제나 한 뿌리에서 자라는 나무줄기와 같은것이다.

《장섭동무, 갱막장에는 언제 들어가 봤소?》

《연합기업소를… 말은 다음엔… 거의나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을테지. … 난 지금도 그전날 저 아래길에서 동무를 만났던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탄광지배인도 탄부입니다.〉 이걸 그대 얼굴구석마다 탄가루 묻은 동무가 내한테 진심으로 한 말입니다. 내가 그 대답에서 감동을 받은것은 동무가 지배인인 자신을 탄부들과 동격으로 놓고 겸손하게 일하고있다는것입니다. 사업이 바쁜 연합기업소지배인이 어떻게 갱막장에 자주 들어가보겠습니까. 문제는 자기가 기업소책임일군이기에 전에 탄부라는 그 정신도덕적인 〈자격증〉을 쥘버리지 않는것입니다. 일군이나 탄부나 농장원치거나 우리는 다 같은 하나의 동등한 인격을 지닌 공민입니다. 직업과 직무와 직급이 다를뿐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무거운 표정으로 서있는 도당책임비서에게 낯을 돌리시였다.

《오랜 당일군인 동무도 알겠지만 원래 수령님께서 간부들을 노동자, 농민보다 썩 낮추어 인민의 심부름군이라고 명철하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번에 도를 몇군데 돌아보면서 느낀바이지만 당, 행정경제기관일군들중에는 드러내놓고 호령질하는 관료주의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실력이나 론리보다 권세의 위압을 풍기기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군들도 없지 않은것 같습니다. 우리의 노동자, 농민들은 일밖에 모르는 순박한 공민들이지만 결코 관직에 맹목적으로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당의 의도를 받들고나가는 그 일군의 실천능력과 청렴결백성, 리치바른 언행을 가늠해보고 존중한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물에 젖은 머리를 숙인채 굳어져있는 리장섭의 어깨에 따듯이 손을 얹으시였다.

《내가 왜 지배인동무 결함을 정도이상으로 엄중하게 분석하는지 리해됩니까?》

《장군님… 모두 저한테… 꼭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자기가 탄부들의 심부름군이고 보통 공민이라는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동무는 어린 처녀지만 법도가 있고 량심이 깨끗한 분조장입니다. 사람은 국가가 제정한 법을 론하기 전에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리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가장 엄격한 량심의 법을 스스로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순결한 공민들의 량심이 모이고 성문화된것이 법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법은 어떤 의미에서 국가의 량심이라고도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창건돼서 반세기가 넘도록 굳건하고 부강한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체도를 진실로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수백수천만의 량심적인 공민들이 공화국의 진정한 법대로 살고 투쟁했기때문입니다.》

《장군님의 가르침을… 일생토록 잊지 않겠습니다.》

리장섭의 큰 눈에 가랑이 고인 눈물이 넘쳐나 불언덕을 타고 흘러내렸다.

산바람이 자자 훑날리던 차거운 안개비도 어느결에 스러졌다.

길옆에서 소낙비에 불어난 개울물이 팔팔 소리내어흘렀다.

《자, 그럼 난 떠나겠소. 분조장, 농사를 잘 지으라구.》

김정일동지께서는 처녀에게 정답게 손을 흔들어주고 어린애마냥 울먹거리는 리장섭의 어깨를 꺼안아주시였다.

《지배인, 처벌을 받아도 기가 꺾이지 말구 일을 본때있게 제끼라구. 탄부들이 다시금 〈우리 지배인〉이라구 부를 때 또 오겠소.》

그이께서 타신 승용차는 어스름속에 멀어졌다.

산정너머 비구름이 가신 검푸른빛하늘에는 금방 비에 씻긴듯 파아랗게 깨끗한 별들이 하나 둘 떠올랐다.

## 뜻깊은 기념일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된지 80돛이 되는 뜻깊은 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투쟁의 길에 나선 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력다툼과 파쟁, 사대와 교조로 얼룩진 선행한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으로는 조국해방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절감하시고 그와는 다른 길, 새로운 투쟁의 길을 찾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신 역사적사실을 뜨겁게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침내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새 세대 열혈청년들로 《E. C》를 조직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시고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신 그 역사적포로를 되새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광에는 숭엄한 빛이 어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이라는 이 명칭 하나만 놓고도 수령님께서 얼마나 위대한분이신가를 잘 알수 있다고,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벌써 세계제국주의와의 전면대결을 선포하신 우리 수령님은 위인중의 위인이시라고 한없는 경의를 담아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감동의 물결이 장내에 뜨겁게 굽이쳤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E. C》는 우리 당의 뿌리이고 선군의 시원이며 단결의 전형이고 우리 혁명의 전통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앞으로 그 어떤 준엄한 시련과 난관에 부딪친다 하여도 《E. C》의 전통을 변함없이 계승하여 수령님께서 개척하신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야 한다고 결연히 말씀하시였다.

## 평론

# 빛과 열, 투쟁과 희망의 《불》이 밝히는 심오한 철학세계

한미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생활의 흐름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사람의 운명에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한 그 근본요인 속에 바로 생활의 사상적알맹이, 종자가 있다.》**

숨죽은 전기로에 불을 지피여 침체와 답보를 끝장내고 전진과 비약을 주었으며 성장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에 희망과 락관을 준 운명적전환의 근본요인은 무엇인가.

총서 《불멸의 향도》의 장편소설 《불》(정기종 작)이 밝히는 심오한 철학세계에 대한 고찰은 이 문제로부터 시작된다.

《북조선조기붕괴설》(우리가 대국상을 당한후 3개월, 늦어도 3년이면 붕괴된다고 하는 이른바 3,3,3붕괴설을 비롯한...)에 이어 《작전계획 5027》(조선전쟁씨나리오)을 내흔들고 《〈B-2〉 전략핵폭격기》(박쥐)들을 팔도에 파견하는 등 미국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절정에 오른 최악의 환경속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필승의 신념과 의지의 불, 사회주의의 운명의 불을 안으시고 성장으로 향하시였다.

성장은 우리 나라 경제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곳이다. 적들은 어리석게도 성장의 마지막로에서까지 불이 꺼지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무너진다고 보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경제를 추켜세우기 위해서나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도 성장을 살려야 한다는것, 성장의 전기로들을 황황 살리고 거기서 쏟아져나오는 펄펄 끓는 쇠물을 새로운 대고조의 봉화로 높이 들자는것이 바로 자신의 구상이고 결심이라고 힘있게 말씀하신다.

주체87(1998)년 3월 성장땅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후 제일 어려움을 때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아오신것처럼 성장의 로동계급을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경제건설의 최전선인 성장에서 강행군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신다.

대국상후 3년이면 조선이 종말된다고 지껄이며 그 시간표까지 짜놓고 각일각 주시하는 적앞에서 최전선의 하나인 성장은 일떠서기 시작한다. 소설은 이렇게 강행군의 돌파구를 성장으로 정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구상과 결심, 성장로동계급에 대한 믿음을 《불》의 근본요인으로 보고 바로 그 속에서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종자를 틀어쥐었다.

그러면 장편소설 《불》의 형상세계에 심어진 사상적알맹이는 무엇인가.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애국헌신의 심장에서 타오른 투쟁과 승리의 불, 사회주의의 운명을 건 불! 이것이다.

소설은 이 《불》을 추켜들고 성장땅에 아로새

겨진 경애하는 장군님의 향도의 자옥자옥을 심오히 밝혀주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로 임명되어 사업의 첫걸음을 떼며 불과한 김용삼 연합기업소 지배인과 전진옥 연합기업소 당책임비서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며 수령님을 받들어 일을 잘한 전 당비서, 지배인들처럼 통이 크게 전격적으로 일판을 벌리자고 뜨겁게 말씀하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숨죽은 공장을 살릴뿐 아니라 생산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열탄을 쓰지 않고 하는 우리 식 철생산방법인 《Z》철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수령님께서 유산으로 남겨주신 주체야금공업의 종자는 철두철미 주체철이라고 밝혀주신다.

생산정상화의 근본열쇠는 《Z》철의 성공에 있다고 밝혀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몸소 진두에서 이끄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제대군인들을 앞에 내세워주시어 온 성장땅에 혁명적군인정신이 내려치게 하시였을뿐아니라 도내의 제일 큰 기업소들 간 협동작전도 몸소 지휘하시어 성장을 추켜세우신다.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무엇이하나 새로 생기여도 성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을 먼저 생각하시였으며 책임비서의 딸 전인복(녀성군관)이 공병작업장에서 사고를 미리 막고 부상을 당하여 조선인민군 11호중앙병원에 입원했다는 보고를 들으시고는 면회를 자주못 가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몸소 구체적인 치료대책까지 세워주시였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한 당일군—전진옥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벌도 주시고 힘이 진하여 주저앉아버린 지배인—김용삼을 두고서는 진심으로 가슴아파하시며 어떻게 하나 성장이 자리를 차고 일떠서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힘을 주고 정을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소설은 주체93(2004)년 12월 12일 또다시 성장땅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끝끝내 성공한 《Z》철공법의 승리를 축하하시며 성장의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에게 높은 국가수훈을 안겨주시는 뜻깊은 이야기를 펼치면서 성장의 불이야말로 장군님의 심장에서 타오른 위대한 애국헌신의 불, 사회주의운명의 불이라는 진리를 힘있게 터치고있다.

불, 성장의 불이 밝히는 철학세계는 이로써 끝나지 않는다.

불의 의미가 가지는 사상교양자적가치에 대한론의 한걸음 더 깊어진다.

그것은 성장의 봉화가 담벽에 써붙이는 구호가 아니라는것이다. 봉화는 지피기만 하고 소문을 내는것으로 끝나는 상징적인 개념이 아니다.

일단 불을 들었으면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끝까지 내달려야 한다. 순간이라도 주저하고 벗어나면 불은 꺼지고 또 담보가 시작된다. 끝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이것을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사랑하신다.

꺼지지 않는 불, 식지 않는 심장을 좋아하시기

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도에서 생산한 전기로 급히 불을 지핀 5호전기로를 보여드리려는 일군들을 만류하시며 내가 온다니까 부랴부랴 살려놓은 전기로를 보아선 뭘 하겠는가, 공장구경은 그만두고 마주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신다.

성장책임비서에 대하여 적극 칭찬하는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에게 《흠— 끝장을 보고야만다, 내가 바로 그것을 제일 좋아한다는걸 알고 우정 갖다붙이는게 아니요?》 하시며 크게 웃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중속에 차넘치는 기쁨도 꺼지지 않는 불, 식지 않는 심장을 지닌 인간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옹호의 정이다.

이러한 리치는 성장의 생산정상화에도 구현되고 투쟁속에서 성장하는 매 인간의 구체적인 생활에도 구현된다.

전진옥, 김용삼, 송근우, 허필웅을 비롯한 책임일군들, 박철진, 장봉구 등 평범한 로동자, 기술자들의 생활과 투쟁에는 《끝장을 볼 때까지》라는 요구성이 강하게 지배하고있다.

전진옥책임비서의 과오는 사람을 끝까지 믿고 이끌어주지 못한데 있다.

허필웅설비부지배인이 완력있고 손탁이 드센 소문난 일군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난 일부 거칠고 조잡한 결함을 제때에 바로 잡아줄대신 본인이 제기한다고 하여 다른 기업소로 조동시켜버린다. 상급당조직의 엄한 추궁과 책벌로 자신의 과오를 깨달으면서 전진옥은 어려운 때일수록 사람을 믿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드는길에 생사운명을 같이할 혁명동지로 굳게 뭉쳐야 한다는 심오한 진리를 배운다.

김용삼지배인은 《련관부문이 다 죽었구... 전기가 딸리는데다가... 고철두 없구...》하며 절망에 빠지던 끝에 《장군님, 정말 힘이 들구... 자신이 없습니다.》라고까지 무덤하게 대답올리며 경애하는 장군님께 큰 걱정을 끼쳐드린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성장을 찾으시어 지배인과 책임비서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며 첫 과업을 주실 때에는 흥분하여 만세도 부르고 일을 과감히 내밀다가 실패와 난관이 꼬리를 물자 꺼렇게 질려 주저앉고마는 김용삼의 패배주의는 심각한 것이였다.

축구장의 공격수처럼 끝까지 공격하여 꼴을 넣으리라는 속다짐도 있었고 불쌍한 어머니와 자기를 끝까지 찾아보지않고 중도에서 쫓겨난 아버지를 끝없이 원망하기도 했던 김용삼, 축구장에서나 아버지에게 대해서는 《끝까지》를 요구하는 그가 경애하는 장군님앞에 다진 가장 숭고한 맹세는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것이다.

김용삼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가슴아픈 걱정을 끼쳐드리고난 뒤에야 자기 일개인의 패배주의로 성장의 로동계급을 모욕한 정치적과오를 뼈저리게 깨달으며 주저앉은 자기에게 변함없는 믿음과 힘을 주시는 장군님의 사랑에 의하여 끝끝내 일어선다.

높은 기술실무, 수십년의 일군경력, 축적된 경

힘으로 무시할수 없는 지위를 차지한 송근우 련합기업소 기사장, 유감스럽게도 그는 동면하고있었다. 진통을 겪으며 전진하는 대오의 제동기가 되었던 송근우는 동지들의 진정한 충고와 당조직의 방조를 받고서야 자신을 뉘우치게 되며 퇴직하는 날까지 기술일군답게 기업소를 개진하는데 크게 이바지한다.

장봉구기술자, 박철진용해공에게서는 사랑에서의 신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은 성강땅이 사랑하는 평범하면서도 아름다운 처녀—고영란과 약혼까지 하였다가 허영과 출세에 눈이 어두워 간부집 딸과 서슴없이 밀려다니는 장봉구, 변호사처럼 말도 잘하고 수재급의 기술자여서 《야금공학의 별》이라고도 불리우는 그에게 사랑은 무엇이었는가. 조직과 벗들의 타매를 받으며 그가 흘리는 쓰거운 눈물과 몸부림은 참으로 교훈적이다.

그에 비하여 박철진의 사랑은 불처럼 뜨겁고 열렬하다. 그는 옥영이가 처녀의 몸으로 데려다 키우는 딸 수림이까지 통채로 사랑하면서 엄중한 과오를 범하고 법적처벌을 받고있는 아버지때문에 고민하는 옥영에게 사심없는 진정을 기울이고 동지적충고와 힘을 준다.

《사람이 한번 언약을 했으면 죽으나사나 끝까지 지켜야지.》라고 부르짖는 박철진의 말은 장봉구와의 대조속에 참으로 많은것을 시사한다.

결국 이 소설은 꺼지지 않는 불, 식지 않는 심장들에 대한 이야기의 끝없는 련속이다. 이 과정은 불의 의미가 추상적인 말이나 선언적인 구호로써가 아니라 매 인물의 구체적인 생활속에 깊이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하는 진지한 탐구과정이다.

성강의 봉화가 상징적인 구호가 아니듯이 이 소설도 시종일관 조국의 운명, 사회주의운명의 불을 추켜드신 경애하는 장군님과 그이를 따르는 참된 혁명전사들의 심장에 열을 주고 빛을 주는 불의 의미에 대한 해명으로 열주하였다.

신화로 엮어낸 프로메테우스의 불은 분명 상징적인 형상이다. 그러나 성강의 불은 오직 사실로만 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새로와지는 사회주의 조선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바로 이 진리로 하여 장편소설 《불》이 밝히는 철학세계가 그로록 심오하고 무게있는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장편소설 《불》은 문제제기의 견지에서뿐만 아니라 성격탐구의 견지에서도 뚜렷한 몫을 가진 성과작이다.

문학이 인간을 그린다고 할 때 그것은 곧 그의 성격을 그린다는것을 의미한다.

사건보다는 성격!

부피두터운 장편치고 두드러지는 사건은 세계이다. 강피갑(주강케스)을 만드는 일, 새 《X》철의 시험과 생산에로의 도입, 대형산소분리기이관.

자칫하면 생산실무적문제로 기울어져 따분하고 지루한감을 줄수 있다. 이러한 생산문제에서 인간성격을 어떻게 도출해내겠는가.

작가는 여기서 단순한 생산실무를 본것이 아니

라 그 과정에 벌어지는 새것과 낡은것, 투신과 보신, 실천과 말공부간의 격렬한 대립과 충돌을 보았다.

우선 이 소설에서의 새것은 몇몇 기술자들이 지혜를 모으는 단순한 기술혁신이 아니라 엄청난 새것이라는데 특징이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퍼주신 불의 의미가 말 그대로 사생결단의 각오와 실천에 있는것만큼 성강의 기적은 레사로운 수자나 한두결음의 전진으로 재일수 없다.

종래에 선철로 만들던 강피갑을 강철로 만드는 놀라운 새것, 1만 8천평방의 건평에 여섯개의 공정과 열한채의 건물을 뛰어넘어(즉 열한개 동의 건물을 없애고) 새 성구장을 건설하는 통이 큰 새것, 서해기슭의 한 공장에 사장되어있는 1만 5천립방짜리 대형산소분리기를 단 6개월안으로 성강에 옮겨와야 하는 엄청난 새것, 실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배짱과 담력이 아니고서는 상상할수도, 실천할수도 없는 새것이다.

이 새것에서 물러나면 그것은 성강의 새 주인 공들의 총퇴각, 비참한 대실패를 의미하고 이 새것을 기어이 이룩하면 종래의 권위나 표창을 내두르며 은근히 위압하고 가로막는 보수주의자들, 경험주의자들을 타격하게 된다.

엄청난 새것의 창조에는 기술자들뿐아니라 책임일군들, 노동자들까지 지혜를 모으고 실패를 쌓아 한치한치 전진한다.

투신도 몇동이 땀을 흘리고 몇백밤을 새우는 정도가 아니라 지어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고귀한 헌신이다.

이로부터 성격들이 충돌하고 또 화해한다.

먼저 두사람, 책임비서와 지배인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지배인은 그 무엇이나 짓눌러버리는 대형프레스마냥 우람차고 거칠진 돌격형인 반면에 책임비서는 늘 웃음을 잃지 않는 패남아이면서도 사업에 들어가서는 끈질기기로 유명한 사나이이다. 같은 점이 있다면 둘다 류달리 승벽이 강한것이다.

아버이수령님을 받들어 일을 잘한 전 지배인, 당비서들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어 전격적으로 일판을 벌리고 서로 떠밀어주며 어깨걸고 파감히 돌격하는 두 일군의 성격은 무게있으면서 매력있다.

또 두사람, 송근우 련합기업소 기사장과 허필웅 설비부지배인이 충돌한다.

지배인이 공격수라면 기사장은 능란한 방어수인데 허필웅은 바로 그 방어형을 못마땅해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흥분으로 달아오르지 않는 냉담한 침착성을 가진 송근우에 비해 허필웅은 언행이 거칠고 단도직입적이며 어디서나 어깨를 들어대는 완력형이다. 그는 비록 자기가 거칠고 소란스러운 기질이지만 그것이 기사장의 친절과 겸손보다는 더 진실하고 더 유익하다고 굳게 믿고 있다. 때문에 사업 초기에 책임비서가 기사장에게 기대를 걸고 일판을 벌리자 이에 불끈하여 다른 기관으로 훌 떠나가버린다. 그러나 진실하고 통이

큰 그는 제강소를 떠나버린 못난 일꾼인 자기를 두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음쓰신다는 가슴뜨거운 믿음의 사연을 전달받고는 사나이울음을 터뜨리며 다시 초소로 돌아온다. 대형산소분리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생명을 기꺼이 바쳐 그것을 구원한 성장사나이—허필웅의 형상속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믿음이야말로 영웅적성장의 뿌리이며 토양이라는 진리가 쇠물처럼 끓어번지고있다.

다른 또 두사람, 박철진과 장봉구가 인상적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안고 성장땅에 온 제대군인들중의 한사람인 박철진은 로동도 사랑도 군인식으로 내민다.

현란한 수식이나 감탄사는 쓸줄 모르지만 진심을 기울이고 열정을 바치며 우물쭈물을 질책하고 직관 들이댄다.

반대로 장봉구는 능란한 처세술과 풍부한 어휘소유로 처녀들의 눈을 멀게 하고 인차 홀려내기도 하지만 또 인차 버림도 받는 가련한 인물이 다.

털거된 인물들이 거의 극단적이라 할만치 대조적으로 형상된것은 그들이 지닌 개인적성미나 기질의 대조에도 원인이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성장의 봉화 그자체가 새것과 낡은것, 투신과 보신, 실천과 말공부간의 심각한 대립을 전제로 하고있기때문이다.

대조적으로 부각되는 인물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전반적인물형상의 격을 높인것도 성격창조에서 거둔귀중한 성과이다.

《강철령감》 최진수를 대표로 하면서 쇠물을 끓이는 사람들—용해공들의 성격이 그려지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뜨겁고 담차고 격하기 쉬운 성격

들로 생동하게 묘사되었다.

불과 인연맺은 사람들로서 맥이 없어 걸음이 떠지다가도 로앞에 서서 불이 흰해지기만 하면 불에 자극되어 관관 달라지는 사람들—힘있고 락천적이고 불의를 순간에 불살라 동맹이치는 정의감으로 하여 끝없이 돌보인다.

전진옥책임비서를 대표로 하여 련합기업소안의 여러 당일군들이 어깨걸고 나서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당사업을 알고 과학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다.

전진옥은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전문기술을 배운 사람으로서 《자》철의 성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박사의 학위까지 받았다. 허군수 《자》철공장 초급당비서도 《자》철에 운명을 걸고 목을 내댔던 사람인데 역시 실력이 높은 일꾼이다.

이들의 형상은 정보산업시대의 현실적요구에 맞는 새형의 당일군의 형상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세워주시는 성장사람들의 고유한 성격미를 알게 되며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당일군의 징표를 보게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구상을 현실로 꽃피운 성장사람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에 대한 감명깊은 형상으로 하여 소설의 사상예술적풍격은 더욱 높다.

장편소설 《불》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에 힘있게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새로운 대고조의 불, 기적과 혁신의 불을 지피는 귀중한 사상정신적량식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선군조선의 미래이고 운명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를 격조높이 구가한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강성대국건설에 힘있게 이바지하여야할것이다.

## 가사

## 과원의 처녀

오순영

수령님 오셨던 파일동산에  
행복의 사과나무 심던 그 봄날  
세상에 태어난 우리 복순이  
오늘은 파일동산 주인되었네

사과꽃 향기를 마시며 자라  
능금불 어여쁜 우리 복순이

그 열매 가지마다 붉게 익는 날  
아버지장군님을 만나뵈웠네

꿈에도 그립던 그 품에 안겨  
처녀는 행복의 눈물지었네  
언제나 그 영광 가슴에 안고  
다시 모실 그날만을 기다린다네



#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에서는 우리 당의 고유한 특성을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함으로써 세상에서 우리 당이 제일이라는 사상을 힘있게 강조하여야 한다.》

《문학에서는 우리 인민을 힘있고 존엄있는 위대한 인민으로 키운 당의 업적에 대하여서도 생동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당의 위대성을 노래하는 작품에서는 형상을 격식화하지 말아야 한다. 당의 위대성을 무게있게 보여준다고 하여 요란한 수식사와 현란한 미사려구를 랍발하면서 정치적인 내용을 직선적으로 노래하거나 사실을 분식하고 공허하게 웅쳐서는 안된다.》

## 수기

## 나의 당원증

### 비전향장기수 손성모

당비를 바칠 때는 더 말할것이 없고 명절을 맞을 때는 물론 때없이 나는 겹겹으로 정히 쓴 당원증을 펼쳐보며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안이 모셔져있는 조선로동당 당원증! 이 당원증을 품에 안은 그때로부터 반세기도 넘는 세월을 당원으로 살아왔다.

그 나날 내가 걸어온 길우에는 헤아릴수없이 많고 또 남다른 인생사들이 얹혀져있다.

한발자욱만 옆으로 옮겨디디면 죽음이 기다리는 그런 정황도 있었고 단 한두글자면 인간의 조건이 무시당한 처참한 생활에서, 무서운 악형에서 벗어나 일신의 안일어로 몸을 피하는 그런 운명적인 정황도 있었다.

인간으로서 인간이 지녀서는 안될 온갖 불명예의 대명사들인 나약성, 비겁성, 동요성, 리기성... 이모든 추악한것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나의 가슴의 벽을 뚫고 들어오려고 했던가. ...

그러나 추호도 타협없이 온갖 잡것들을 타매하며 내 심장의 문을 철벽으로 지켜준것은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의 당원이라는 값높은 자각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원들은 숨을 쉬어도 같은 숨을 쉬고 말을 하여도 같은 말을 하며 걸음을 걸어도 같은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당원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의 대답을 찾고있다.

많은 책들을 보거나 혁명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들은 다 공감이가는 옳은 말이다.

그 누가 나에게 이런 물음을 던진다면 나는 조선혁명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각오가 된 사람, 당에 제 한몸을 바쳐 숨결도 심장의 고통도 하나가 되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싶다.

이것은 나의 56년간의 당생활과정에 생활속에

서 얻은 총화라고 생각한다.

전라북도 변산반도의 바다가에서 출생한 나는 어린시절에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풀머슴의 쓰라린 생활고를 겪었고 나라는 해방되었지만 리승만 괴뢰통치하에서도 갖은 고역에 시달리면서 서울에서 고학으로 야간중학교를 다니였다.

중학교 5학년때 미제에 의해 전쟁이 발발하자 제일 선참으로 의용군에 입대하면서 그때 내가 다진 결심은 오매에도 그리던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안긴 전사로서 이 땅에서 미제를 내쫓고 이저주로운 세상을 뒤집어엎는 혁명을 위하여 한몸을 다 바쳐 싸움으로써 마음껏 공부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가렬한 전투의 포화속에서 성장한 나를 어머니당은 자기의 대오에 받아주었다.

그날은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1(1952)년 3월 29일이였다.

나의 입당을 지지하여 세포당원들이 손을 들어줄때 나의 볼에서는 불현듯 솟구쳐오르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나의 심정은 온 세상을 한몸에 안은것 같았다.

나도 이젠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당의 전위투사가 되였다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이 막 터질것만 같았다.

훈장이란 나의 전투공로에 대한 평가이며 그것이 앞가슴에 빛날 때 사람들은 존경하고 부러워한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원—그것은 훈장이 아니다.

그런데 그 어떤 큰 표창을 받았을 때보다 어찌하여 나를 이처럼 격동시키고 흥분시키는것인가.

그것은 당과 수령의 믿음이 나에게 그토록 귀중했기때문이다.

어려운 전투임무수행과정에 당은 나의 사상과 정신상태를 검열하였으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그것을 과감하게 뚫고나갈 나의 의지를 보았기때문이 아니겠는가.

조선로동당의 당원! 이 믿음은 혁명전사로서의 나의 성장에서 하나의 비약이었다.

이 공지가 안겨주는 삶의 자각은 종전과는 비할바도 없는 류다른 것이었다.

이 자각은 나를 혁명가로 끝없이 성장시켜주는 원동력이었다.

조국해방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나고 내가 제대되었을 때 당에서는 고향이 남쪽이어서 의지가 없었던 나를 한품에 안아 우리 나라 교육의 최고 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마음껏 공부하도록 해주었다.

남조선에 있을 때 배움에 굶주렸던 내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된 김일성종합대학시절이 나에게 얼마나 크나큰 영광을 안겨줄 줄 그때에는 미처 몰랐다.

우리 력사학부 학생들이 평양동물원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고있던 주체47(1958)년 어느날 오매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작업장을 찾아주시어 수고한다고 우리 손을 하나 하나 잡아주시고 일을 많이 했다고 우리를 고무해주시며 재더미를 털고 일떠서는 평양에 인민을 위한 훌륭한 유원지를 건설하는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고 하시며 그 전망에 대하여 말씀해주시었다.

어린시절 변산반도의 달 뜨는 바다가에서 백두산에서 축지법을 쓰시며 신출귀몰하며 왜놈들을 죽치고계시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설처럼 동무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것처럼 희망의 태양으로 우리르던 수령님!

늦가을의 찬비내리는 태백산줄기를 뚫아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을 걸으면서도 수령님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오직 하나의 신념을 안고 내가 나서자란 정든 고향을 뒤에 두고서도 최고사령부가 있는 북으로만 걸음을 다그치며 그리워 눈물짓던 우리 수령님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그이께서 나의 손목을 잡아주실 때 이 모든 생각들이 한꺼번에 북받쳐 가슴뜨거워움을 금할수 없었고 모든것이 꿈만 같이 생각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시절 내가 받아안은 또 하나의 영광은 대학에서 혁명활동을 하고계시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뵈은것이다.

태양처럼 환한 그이의 존안, 유난히 빛을 뿌리시는 그이의 눈빛, 우렁우렁하신 그이의 음성, 활달하신 그이의 몸동작... 나는 홀린듯이 그이를 우러러 뵈으며 조선의 미래가 창창하다는 그 환희로움으로 가슴뿌듯했다.

참으로 우리 장군님은 어버이수령님과 꼭 같이 시다는것을 느끼면서 장군님께 인간적으로 완전히 매혹되었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은 우리 인민의 유일한 령도자이시며 조선혁명을 책임지신 주인이라는 생각,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은 곧 당이고 조국이라는 생각으로 걱정애 넘친 나는 당과 조국을 위하여 당원으로서의 성스러운 임무를 묵숨바쳐 수행해나갈 생각으로 가슴 불태우고 결심을

가다듬던 그날의 영광을 영원히 잊을수가 없다.

나의 한생에서 내 심장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새겨진 시계의 초침소리가 박동으로 높뛰었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당원증을 지닌 전사의 의리가 맑은 피로 고동쳤기에 그 어떤 역경과 시련도 이길수 있었으며 기나긴 옥중투쟁에서도 승리할수 있었다.

나의 옥중투쟁과정에서 나의 마음을 받들어준 강철같은 신념의 기둥은 바로 당원증이였다.

적들은 갖은 고문과 회유, 기만으로 나의 신념을 꺾어보려고 하였지만 이 신념의 기둥은 꺾지 못하였다.

언제나 마음속으로 그 당원증을 품고있었기에 나의 결에는 항상 수령님께서 계시었고 감옥안에서 투쟁정형을 저녁이면 잠들기 전에 매일 어버이수령님께 마음속으로 보고드렸다.

《수령님! 오늘도 조선로동당원 손성모는 원썬들의 악착한 고문을 혁명적신념으로 이겨냈습니다.》

혹독한 독감방의 추위도, 배고픔도, 지긋지긋한 고독도 나를 굴복시킬수 없었다.

원썬들은 내가 이런 위대한 당원증을 마음속에 품고있는줄을 알수 없었다. 때문에 적들은 모진 발악을 하며 나를 전향의 길로 돌려세우려고 했지만 끝내 뜻을 이룰수 없었다.

나는 감옥에서 그리운 나의 당원증에 대한 꿈을 수없이 꾸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적들속에서 당원증을 간수하겠는가를 고민고민하다가 깨곤 하였다.

어버이수령님 탄생 79돛이 되는 민족최대의 명절을 앞두고 나는 감옥안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를 썼다.

적들의 감시를 피하며 글을 쓰기란 수월치 않았다. 며칠밤을 밝히며 감방의 희미한 불빛아래서 한자한자, 한단어, 한문장을 쓰고 또 쓰노라니 나의 눈은 피발이 서고 부어올랐으나 피곤함도 지칠줄도 몰랐다.

이렇게 하여 편지는 끝내 완성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멀리 평양에 계시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올릴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두고 신동지와 나는 고심고심하다가 옥문밖으로 내보냈고 드디어 평양으로 와닿게 되었다.

이 편지를 받아보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시였다는것을 전해들었다.

얼마전에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어느 한 혁명 박물관을 찾아가를 때 유리함안에 그 편지가 소중한 진렬되어있었다. 걸음을 멈추고 그 편지를 들여다보노라니 감옥에서의 이리저리한 생활이 주마등처럼 흘러가고 무딘 펜끝으로 그리 좋지 않은 종이에 또박또박 신념과 맹세의 글발들을 적어가던 지옥과 같은 감방이 떠올랐다.

# 꽃길을 걸으며

오정로

노래의 붓을 비껴잡고  
나는 지금  
향기넋친 과원속을 걷네

울긋불긋  
복숭아꽃발을 지나  
하얗게 핀  
추리꽃발 둔덕을 넘어

향기 향기  
꽃향기에 목이 메는가  
장군님 찾아주신 고산과수농장  
사랑의 그 자욱자욱을 따라  
배꽃향기속을 걷는 내 마음

하도 희한해  
머리 드니  
마주 솟아오는 철령  
우리 장군님  
야전복자락으로  
몰아치는 찬바람 다 막아주시어

만발한 이 백화  
천만로고로 열어주신 이 꽃길

승엄함에 젖어  
고마움에 젖어 걸음걸음  
장군님 서계셨던  
정각에 오르니

아 기쁘시여  
만족하시여  
장군님 바라보신  
일망무제 하얀 사과꽃바다  
전설의 무릉도원 예서 보며  
내 노래도 한껏 부풀어 터졌는데

사랑의 그 약속  
눈앞에 그리니  
아 내 노래도 못미치는 그곳에  
인민위해 바치시는 장군님 헌신의 길이  
앞으로만 뻗어가있구나

가사

## 장군님 걸으신 길 잊지를 말자

김상운

오늘의 행복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눈시울 뜨겁습니다  
시련의 날 장군님 헤쳐넘으신  
오성산 벼랑길 눈에 어려와  
아 장군님 맞으신 그날의 찬눈  
오늘도 우리 마음 적셔줍니다

고난의 천리길 웃으며 헤쳐  
락원의 만리길 우리 걷는데  
오늘도 장군님 가시는 길은

삼복철강행군의 멀고먼 천리  
아 인민위해 장군님 걸으시는 길  
행복한 날에도 로고의 만리

장군님 걸으신 헌신의 길에  
인민의 행복이 꽃폈습니다  
가시는 자욱자욱 천만리길에  
찬란한 패일이 마중옵니다  
아 장군님 걸으신 길 잊지를 말자  
보답의 천만리로 따라섭니다

.....

사람들은 우리를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로  
높이 불러주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에 돌아  
온 우리들에게 안겨주신 공화국영웅메달과 조  
국통일상메달을 따뜻한 동지애의 눈길로 바라보  
고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안은 이 영광은 나라는 인  
간이 장하고 훌륭하여 받은것이 아니다.

아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일성동**

지의 당의 당원으로 우리를 내세워주시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셨기때문이다.

오늘도 나는 때없이 나의 당원증을 꺼내보며  
나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당과 수령앞에 변심없  
이 전사의 의리를 다하며 조국통일성업을 이룩하  
기 위해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 바쳐갈 굳은 결  
의를 다지군 한다.

## 여기로 오시라 (외 2 편)

한원희

우리 장군님 다녀가신 대계도간석지  
그이의 거룩한 자취 어려있는  
귀암산기슭에 나는 서있다  
시원한 해풍은 내 옷깃을 날리며  
걱정으로 달아오른 이 몸을 식혀주고  
갈매기는 기쁨에 겨워 날아옴다

성벽마냥 바다를 막아 일떠선 제방이  
10리 20리에 아득히 뻗어간 곳  
멀리 저 멀리 수평선 너머너머  
점점이 널린 섬과 섬을 이어이어  
일망무제 간석지 새땅이 솟아오른 곳

우리 장군님 환히 웃으시며  
간석지건설자들의 위훈을 치하하실 때  
그이를 우러러 달려와 안기던  
바다여, 제방이여, 새 청춘대지여  
너 무엇을 아뢰었더냐  
무엇을 아뢰이며 감격을 터뜨렸더냐

뵈고싶은 장군님이 그리워  
돌을 안고 돌을 지고 내달던  
돌격대원들의 그 이야기인가  
그이께 기쁨의 보고 삼가 올릴  
그날을 앞당기자고 한겨울에도  
광란하는 바다에 뛰어들던 그 사연인가

시련이면 것처럼 간고한 시련이 또 있었던가  
삶은 통강냉이 한줌으로 끼니를 대신하던  
고난의 그 나날  
기름이 떨어져 굴착기들이 멎어서고  
자동차, 불도젤, 배들이 숨죽었던 그때

우리 장군님 안겨주신  
불굴의 신념이 없었더라면  
그 어이 날바다를 막아낼수 있었으랴  
폭풍을 맞받아 나아간  
바다의 정복자로 자랄수 있었으랴

나는 본다  
마치 강성대국으로 가는 대통로처럼  
거침없이 줄기차게 뻗어간 제방  
가없는 수평선이 가없는 지평선이 된 땅  
우리 장군님의 시선이 머물러있고  
찬란한 예지의 빛발이 가닿은 곳

아, 이 가슴에 끓어오르는 노래  
갈매기처럼 환희에 겨워 날아옴다  
여기로 오라 사람들이여  
그러면그대가 누구든  
찬탄을 금치 못하리라  
김정일시대는 우리 조국땅이  
끝없이 넓어지는 시대라고!

## 못잇을 바다 못잇을 파도야

아름아름 옥구슬 진주구슬을 안고와  
제방쪽에 쉬임없이 뿌려주는 파도야  
끝도 없이 출렁이며 속삭이며  
오색령롱한 억만구슬 안겨주는 바다야

네 품 그 어디에  
소중한 구슬들을 간직해두었더냐  
부드러운 너인의 손길과도 같이  
제방장식을 어루만지며 쓸어내리며  
고개를 숙이고 수줍은듯 물러나고  
어리광치듯 다시 달려오는 파도야

간석지건설의 나날에  
나는 너의 횡포한 성미를 보았다  
산악같은 물머리 반공중에 추겨들고  
돌격대원들의 머리위에 달려들던 너

때로는 태풍과 해일을 이끌고  
제방쪽을 사정없이 무너뜨렸었지

하지만 너는 알았으리  
너와 마주선 돌격대원들이 누구인가를  
감히 당할자 없었던 너를  
끝끝내 길들이던 용맹한 사나이들을

그들의 얼굴에 흐르던 땀,  
땀바다위에 터치던 호방한 웃음소리  
전설속의 거인과도 같은 그들과 더불어  
너는 마침내 정깊은 인연을 맺었더라  
그리고 수수천년 품고있던 간석지 새땅을  
아낌없이, 아낌없이 내놓았더라

아, 못 잇을 바다 못 잇을 파도야

나에게는 생각되는구나  
끝없이 안고오는 너의 은구슬 옥구슬은  
새땅을 안아온 청춘들의 구슬땀이라고

그래, 나는 믿는다

그것은 조국에 바친 성스런 구슬땀이라고  
그래, 나는 진심으로 바란다  
그 구슬땀 파도에 실어실어  
이 제방 이 기슭에 높이높이 받들어 올리기를!  
청춘들의 위훈을 끝없이 빛내주기!

## 《다시 오겠소》

사랑하는 부모님결을  
잠시라도 떨어지기 싫어하는 자식처럼  
한동안만이라도 더 모시고싶은  
간석지건설자들의 그 마음 달래시듯  
장군님 떠나실적에 하신 말씀

### 《다시 오겠소》

끝간데 없는 간석지 새땅  
그 크나큰 기쁨을 안으시고  
여기에 남기신 그 말씀 그 음성  
잊지 못할 노래처럼  
사라지지 않는 메아리처럼  
내 가슴의 바다에 울려간다

### 《다시 오겠소》

바다를 더 막아  
새땅을 더 안아올 그날  
그날을 향해  
불도젤들이 흙산을 밀어나간다  
자동차들이 돌산을 떠시고 달린다

다시 오시면  
그이께 보여드리고싶어  
저쪽은 푸른 파도 설레는 바다  
이쪽은 낯알파도 흥치는 바다

두 바다 멋진 풍치 펼쳐드리고싶어  
굴착기들이 강철팔을 휘두르고  
배기중기들이 부채를 물어올린다  
세차게 나뭇기는 돌격대의 기발  
얼굴에 흐르는 땀, 열띤 눈빛들  
영차, 영차 돌을 안고지고 달리는  
돌격대원들의 가슴에 심장이 뛰는 소리  
경제선동대원들의 북소리, 나팔소리

불같은 나날을 이끌고  
땀에 젖는 낮과 밤을 이끌고  
그날을 마중해 나아간다  
장군님을 마중해 나아간다

당의 부름에 언제나  
물불을 몰랐던 우리들에게  
사랑과 믿음담아 정깊이 하신 말씀  
그대로는 못 떠나 가시던 걸음 되돌아  
손저어주시며 하신 그 말씀

### 《다시 오겠소》

아, 그말씀 그 음성  
억년제방이 되어  
서해 날바다를 헤가르며 뻗어간다  
억년옥토가 되어  
천리로 만리로 조국땅이 넓어진다!

## 물길덕이야기

고남철

지평선 가득 일어 솟는 벼물결 벼파도  
푸른 들 푸른 벌에 푼하게 차넘는 물이여  
물노래 물풍경 희한한 신암별 바라보시며  
우리 장군님  
관리위원장녀인에게 다정히 물으신다  
—관리위원장동무  
백마—철산 물이 잘 읊니까?

무슨 말씀 드릴가 너인은

모내는 봄철에도 아지버는 여름에도  
물을 제대로 못 먹이는 논을 보며  
가슴마다 재가 무지던 그 사연  
환하게 정리한 새 전야에 생명수 주시고  
새 종자 심어 두벌농사 작황거둔 그 이야기일가

하많은 사연중에 무슨 말씀 드릴가  
누구나 은근히 마음쓰이는 순간  
너인의 랑랑한 목소리

—아버이장군님 새 물길에 열리니  
아이들 목욕시키기 좋고  
너인들 빨래하기 참 좋습니다

관리위원장이 농사말씀 드리나 했건만  
아니 저런! 풍수없는 아낙네처럼 그런 말씀을...  
너무도 뜻밖의 이야기여서 누구나 말이 없는데  
줄지어선 새집들이며 탁아소, 유치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시는 아버지장군님

한가닥 시내도 없던 신암땅에 새 물길 열리고  
궁궐같은 새집에 온종일 맑은 물이 팔팔  
그 물에 때없이 애들의 엉덩판 두드리며 머리  
감기는  
너인들의 그윽한 눈빛을 보시는가  
아침저녁 짹짹 방치질소리  
물과 인연깊은 너인들의 세계를 그려보시는가

물은 넓은 대지를 적시며

집집마다 기쁨으로 차넘치고  
벌의 마지막배미를 넘어넘어  
너인들 마음속 갈피에 정차게 흐르누나  
땅의 일만경우에 생활의 일만경 아름다워라

이 나라 너인들의 물젖은 손 다 잡아주시며  
생활의 밝은 웃음이 떠받든  
대지의 가을을 다 안아보신  
아버이장군님!  
—고맙소, 관리위원장동무  
진짜 물길덕이야기를 해주었구만

저기 가없는 하늘도 못 주는  
물길덕 물길복을 주시고도  
이 나라 농촌녀성의 소박한 그 말을  
제일 큰 기쁨으로 새기시는  
친아버이모습이여  
물길덕은 우리장군님 사랑덕이여라

## 대계도의 밤

김명철

해풍은 옷자락을 날리고  
물결은 씩씩이 쳐절씩거리는데  
아버이장군님을 일터에 모셨던  
그 환희 그 감격 식을줄 몰라선가  
이밤 잠들래야 잠들수 없어  
제방길에 나선 청춘들  
달아오른 가슴으로 견고 또 견네

얼마나 기다리던 오늘이더나  
대발파를 해제킨 그 순간에도  
장식을 입혀가던 그 저녁에도  
서로 손을 맞잡고  
평양하늘 우러르며 그리던 이날

오늘을 앞당기자고  
눈보라 지동치는 채석장에서  
통강냉이를 씹으면서도  
갈아대고 갈아댄 정대는 얼마  
정녕 이날을 위해  
밤마다 화불을 추켜들고 떨쳐나  
실어내고 실어낸 바위는 또 얼마

그처럼 사무치게  
사무치게 뵈고싶던 아버지장군님  
이 대계도간석지건설장에 오시여

완강한 의지의 힘으로 나가는  
이것이 우리 로동계급의 희생정신  
우리 청년들의 투쟁기질이라고  
뜨겁게 치하해주시었나니

불어라 바람아 더 세차게  
파도야 더 길길이 솟구치라  
조국의 강성부흥을 위해  
멀고 험한 전진길 달려오신 장군님께  
또 하나 기쁨을 드렸다는 행복으로  
한껏 가슴부풀 이 젊은이들에게야  
조용한 바다가 무슨 멋이라

이제 이 젊은 심장들  
폭풍이 몰아치면  
휘날리는 붉은기로 그 폭풍 헤쳐가며  
사랑하는 조국앞에  
만년옥담을 받들어 올리려니

아, 이밤  
희열에 넘쳐 끝없이 견고있는  
피끓는 청춘들 그 넓은 가슴에선  
십리 또 백리  
억세인 새 제방이 뻗어나가고있네  
풍요한 새 대지가 솟아오르고있네

## 대동문영화관앞에서

김준구

나는 요즈음 출퇴근길에 2백—문수행 전차를 타고 대동문앞거리를 지나며 새로 개건된 대동문 영화관을 깊은 감회에 젖어 바라보곤 한다.

시창밖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화려하게 변모된 영화관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며 흘러갈때면 나의 눈앞에 저 건물과 더불어 흘러간 어린시절이 어제런듯 삼삼히 떠오른다.

대동문영화관, 나는 저 건물에 류다른 인연을 맺고 살았다고 생각한다.

그 시절 아직은 나의 께진 운동화앞교승이로 엄지발가락이 나와 꿈지락거렸고 어머니는 아침 출근길에 오르는 아버지에게 밥팩을 들려줄 때마다 죄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숙이곤 할 때였다.

그때 우리가 살던 집은 서문거리의 단칸짜리 단층살림집이었다. 지금처럼 전실과 아래옷방은 고사하고 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대로 정방형의 건축공간을 3:7쯤으로 갈라 나무각자 두개로 가로막고 그것으로 부엌과 방안을 구분한것이 우리 집이었다. 그때 이 주변에는 변변한 건물이 없었다. 단지 영화관뒤로 당시 사람들이 《백과부네집》이라고 부르던 석조건물이 그중 눈에 띄우는 큰 건물이었고 그 주변에는 새로 건설되는 조립식다층주택들이 기초나 1층벽체들로 자기의 어렴풋한 자태를 드러내고있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나의 아버지는 그때 제대배낭을 풀어놓고 손에 망치와 미장칼을 들고 복구건설장에 나가 밤낮으로 일했다. 어머니도 시집을 때 가져왔다는 범랑소랭이를 들고 매일아침 복구건설장으로 나가곤 하였다.

락수물이 처마밑으로 줄줄 떨어지는 지붕밑에 쪼그리고 앉아 아버지, 어머니가 언제 들어올까 하고 기다리던 저녁이면 나는 부모들에게 왜 매일 늦게 들어오는가고 묻곤 하였다.

아버지는 말했다.

《조금만 참아라. 우린 이제 곧 지금처럼 이런 집이 아니라 멋진 다층살림집에서 살게 된다. 그리고 멋진 영화관에서 매일 저녁 영화를 보게 될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는 그 영화관을 짓느라고 그런다.》

이 땅 어디서나 혼합기의 힘찬 동음과 함께 전후복구건설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누구나 땀젖은 작업복우에 삽이나 곡괭이를 메고 뛰며 살던 시기였다.

하루하루 키를 솟구며 웅장하게 일떠서는 그 영화관은 나의 눈으로 보건대 그야말로 끝없는 호기심과 동경의 눈으로 우러르게 되는 신비한

꿈의 세계였다.

주체44(1955)년 12월 31일.

새해를 앞두고 완공된 이 영화관에서 이날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평양시 학생소년들의 새해 설맞이모임이 성대히 열리었다.

그날 저녁 나는 양복차림에 넥타이를 매거나 치마저고리를 입은 어른들이 환희에 찬 모습으로 대동문영화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가?)

겉에서 보기에만도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설맞이모임까지 한다는 그 사람들이 한없이 부러웠다. 저 건물안에서 내가 지금껏 보지도 못했고 알수도 없었던 전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있다고 생각하니 나도 그 세계에 못 견디게 들어가보고싶었다.

인차 그 《신비한 세계》에 나도 들어가볼수 있게 되었다.

발가락이 삐죽이 나온 신발을 누가 볼세라 감추며 영화관에 조심스러운 첫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10대의 그 시절부터 나는 대동문영화관을 문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언제나 손에서 미장칼을 놓을줄 모르던 나의 아버지도 어느날인가는 어머니와 동생까지 데리고 이곳을 찾았다. 그날 어머니를 내가 이끌어 자리표대로 안내해주었고 영화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열성스레 해설까지 해주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영화표판매구... 영화를 보고 나와서는 삼삼오오 떼를 지어 2층에 있는 청량음료점에 올라가 에스키모며 계란빵을 들던 사람들의 모습...

그 나날에 영화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눈에 띄게 화려해지는것을 나는 직접 목격하였다. 신발을 아껴신으라고 늘 잔소리를 하던 우리 어머니도 영화관에 갈 때만은 사람들이 흥분하며 새 운동화를 아낌없이 꺼내주곤 하였다.

저 대동문영화관과 더불어 채더미를 털고 일어서는 내 조국의 화려한 모습을 그려본 사람이 어찌 나뿐이었고 저 영화관을 나서며 희망과 신심과 환희를 가슴뿌듯이 체험한 사람이 어찌 나와 나의 어머니뿐이었으랴. 이 영화관을 찾으며 사람들이 웃었다. 이 영화관을 나서며 사람들이 새 희망에 넘쳐있었다.

대동문영화관, 그것은 전쟁의 폐허를 헤치고 일떠서는 평양의 모습이였다.

그 영화관과 더불어 사람들이 웃었고 매일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며 자신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어갔다. 또 내가 성장했고 조국이 키를 쫓아갔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흘렀다. 평양에는 세인을 경탄케 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없이 일떠섰다.

평양학생소년궁전, 평양대극장, 인민문화궁전, 인민대학습당, 5월1일경기장...

그 모든 건축물들과 함께 나에게서 암전속에서 돌아가던 영사기소리며 은막우에 펼쳐지던 화면들이 가장 친근하게 그리고 가장 따뜻하게 간직되어있다.

사실 오늘날 새 세기의 미감을 자랑하며 화려하게 일떠서는 현대적인 건축물들을 볼 때마다 나는 아버지세대가 피땀을 바쳐 남겨놓은 전후의 건축물들이 어딘가 낡고 왜소해진다는 허전한 마음도 가슴 한구석에 없지 않았다.

흘러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과 같이 저 대동문영화관이 지녔던 그 시대의 아름다움이 과거의 추억과 함께 점점 사라져간다는 서글픈 생각이었을것이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 시대에 간직했던 아름다운 꿈을 웅장화려한 대동문영화관과 함께 다시 이어주시었다.

건설된 때로부터 50여년이 지난 오늘날 영화관

의 돌계단을 오르시며 로인들이 불편해하지 않게 가 걱정하시고 공공장소에는위생실이 깨끗해야 한다고 일러도 주시는 장군님의 다심한 사랑속에 대동문영화관은 새 세기의 모습으로 새로이 태어났다.

너무도 달라졌지만 그 모습 그대로인 대동문영화관!

여기서 사람들은 추억과 희망을 함께 가지며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한다.

그것은 우리 조국이 어버이수령님을 따라 걸어온 승리의 력사에 대한 영광의 추억이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우리 인민이 걸어갈 새 세기의 찬란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며 확신이며 신념이다.

세월의 갈피속에 묻혀지던 과거의 추억은 이제 21세기 선군조선의 미래를 알리는 오늘의 영광으로 전환되었다.

훌륭하고 황홀하고 아름답다는 말 이외에 다른 표현을 고를수 없는 영화예술의 보급기지 대동문영화관에서 나는 강성대국으로 세계우에 솟구치는 내 조국의 모습을 본다.

《고난의 행군》을 이기고 일어난 우리 인민에게 개건된 대동문영화관을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께 다함없는 감사를 드린다.

## 그는 전쟁로병

김덕선

우리 마을엔  
전쟁로병이 살고있네  
명절이면 앞가슴이 모자라도록  
주련이 훈장을 달고 나선다네

그러면 어느샌가 달려온  
동네의 조무래기들  
로병의 두팔 잡고  
훈장처럼 주렁주렁 매달려가네

아무렴 이 애들이야 훈장이구 말구  
조국이 달아준 그 훈장속엔  
포화속에 자래우던 조국의 미래가  
그날에 벌써  
그들의 가슴에 안겨있지 않았던가

로병은 지금도  
일을 하고있다네

장마철 넘쳐나는 물길도 바로 잡으며  
때로는 모판에서 밤도 새우며

아무렴 그 마음이야 어디 같가  
불비속에서도 조국을 철벽으로 지켜낸 그 마음  
달려드는 원수미제 죽치고  
사랑하는 고향마을 지켜낸 그 마음인데야

지금 마을의 아이들은 보고있다네  
로병의 그 마음  
지금 마을의 아이들은 자라고있다네  
로병의 그 마음 닮아가며

이 땅에 결전의 그날이 온다면  
아이들은 로병처럼 전선에 달려나가  
그들처럼 훈장을 가슴에 달고오리라네  
그들처럼 고향을 지키고 가꿔가리라네





신승구

1

한대의 승용차가 밤길을 달리고있다. 번개가 병긋거리고 되알진 퇴성이 하늘땅을 진감했다. 창살같은 비발이 줄곧 앞창유리를 때려 운전사의 시야를 시시각각 가리웠지만 승용차는 굴곡 심한 농촌길을 살같이 내달렸다.

승용차 뒤좌석에는 건설국장 리무용이 타고있었다. 황해남도의 어느 한 군부대와 농촌마을에 풍력발전소를 놓아줄데 대한 과업을 받고 년초부터 현지에 내려가있던 그는 지금 당중앙위원회의 부름을 받고 평양으로 가는 길이다. 아침 8시까지 김책공업종합대학에 도착하라는 지시였다.

《운전사동무, 속도를 높이라구. 벌써 먼동이 트고있소.》

《알겠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따라 비가...》 큰도로에 나오기 전에 불어난 강을 건너지 못해 몇시간을 줄이 씨름질하느라고 아예 지쳐버린 운전사인지라 말소리는 울곧지 못했다.

리무용은 폭신한 승용차좌석이 바늘방석처럼 느껴졌다. 당중앙위원회의 책임일군이 대학에 나오기 전에 도착해야 했다. 그런데 시간은 벌써 새벽을 가까이 하고있지 않는가.

책임일군이 어찌하여 다른데도 아닌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자기를 만나자고 하는지 아직은 알수 없는 일이었다. 건설된 풍력발전소에서 아직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여 장군님의 믿음에 보답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먹장구름처럼 자우룩이 서려들어 죄스러운 마음을 달랠길 없는 리무용이었다.

생각해보면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각별한 관심속에서 시작된 풍력발전소건설이었다.

한해전, 리무용은 황해남도의 협동농장들을 현지지도하시는 장군님을 보좌해드린적이 있었다. 그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 고장 인민들이 전기문제로 애로를 느끼고있다는것을 아시고 못내 가슴아파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리무용에게 이

렇게 말씀하시였다.

《건설국장동무, 이곳에 풍력발전소를 하나 놓아주는게 어떻겠습니까.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능력이 늘어난다고 해도 전기는 여전히 긴장할것입니다. ...내 아까 회의할 때 보니 바람이 얼마나 센지 창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리더라 말입니다.》

리무용은 바람에 창문이 열리는 사소한 현상에서 경제발전의 새로운 구상을 도출해내시는 장군님의 선견지명에 언제나와 같이 감탄을 느끼며 끓어오르는 걱정을 담아 말씀올렸다.

《장군님,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기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바람이 더 세게 불니다.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는데는 거기 이상 없을것 같습니다.》

《그러니 명당자리란 말이지요? 하지만 정말 명당자리인가는 확인해보아야 알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올라가봅시다.》

장군님께서서는 마당가로 나오시였다. 꽃피는 봄계절의 눈부신 태양이 서해기슭에 높이 솟은 산고지를 따듯이 어루쓸고있었다. 봄철이라 산발은 온통 연록색으로 물들었고 바다쪽으로 돌출해나온 기기묘묘한 바위들이 신묘한 경치를 이루고있다. 가슴이 벌어지게 확 트인 바다와 수려한 산발이 보기만 해도 시원한감을 주고있었지만 리무용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봤다. 해는 벌써 서쪽으로 기울어져 산에 오르는새 분명 날이 어두워질것 같은 위구심이 샅시에 몰려들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의 만류에도 마다하지고 앞장서 산정을 오르시였다.

얼마후 장군님을 모신 일행은 산마루에 올라서게 되었다.

앞에는 검푸른 서해가 펼쳐지고 그 바다를 둘러싸고 수려한 산발들이 자유분방하게 널려져있는데 산골짜기를 짙 메우고있는 일만초목이 빗살처럼 드리운 해빛속에 명롱한 빛을 발산하고있었다.

아닌게 아니라 산정에 올라서니 바람이 보통 세차지 않았다. 사람들은 불어치는 바람에 헉헉 흐느끼며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였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사방에서 무시로 덮쳐드는 바람에 야전복옷자락을 날리시며 멀리 바다쪽에 사색깊은 시선을 던지고 계시었다. 지평선과 맞닿은 바다끝에서는 락조의 붉은 노을이 화염처럼 이글거리고있었다. 이제 조금 지나면 노을빛마저 사그러지고 사위는 어두워질것이었다. 아니 벌써 저녁어스름이 살금살금 산정의 변두리를 에워싸고있었다. 리무용은 장군님의 건강이 못내 걱정되어 이제는 내려갈 때가 되었다고 말씀올렸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시었다.

《우리가 명당자리를 잡았는데 그 기쁨도 미처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내려가서야 되겠습니까? 산에 올라오기는 좀 힘들었지만 명당자리를 잡고보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풍력발전기를 여기에 놓기로 합시다. 군부대와 인민들의 부락이 가까우니 관리하기도 좋을것입니다. 제일좋은 풍력발전기를 마련하여 여기에 시범적으로 잘 건설하여줍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 산정에서는 군민이 힘을 합친 건설의 동음이 메아리치기 시작했다. 한달도 못되어 발전기 기초틀이 쌓아지고 두달이 넘어서는 풍력발전기의 프로펠라를 설치할 벽체가 세워졌다. 기세 좋게 전진하던 발전소건설이 뜻하지 않은 장벽에 부딪혔다.

길이 수십메터가 넘는 프로펠라를 가진 육중한 발전기동체를 무슨 수로 해발 250메터의 고지 위에 끌어올린단 말인가. 각을 뜬 등짐으로 올려갈수도 없고 자동차로도 운반할수 없었다. 육중한 바위들이 덧쌓인 깊은 계곡과 날카롭게 예각을 이룬 산등으로서는 최대마력의 그 어떤 견인차도 맥을 추지 못할것이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안타까운 시간만 보내던 어느날, 건설실태를 료해하신 장군님께서서는 직승기를 동원해주도록 하시었다.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직승기가 6월의 봄하늘에 은빛프로펠라를 번쩍이며 풍력발전기의 거대한 중량물을 통채로 들어 산정에 날라갈 때 사람들은 그 사랑에 목이메여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

이렇게 건설된 풍력발전소였다! 그런데 발전기가 설치되어 퍼그나 날자가 지났으나 아직 발동의 동음을 터치지 못하고있다. 은정어린 사랑의 전류가 사람들에게 가닿지 못하고있는것이다!

리무용은 공사를 책임진 당사자로서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수행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밤에도 잠들수 없었고 끼마다 먹는 밥이 모래알처럼 깔깔해서 목구멍으로 넘길수 없었다. 이 일을 어

쩌면 종단 말인가. 발전기가 왜 돌아가지 않는가. ...

《국장동지, 평양에서 왜 부른답니까?》

건설현장에서 차가 떠날 때 공사장책임자인 건설과장 김태민이 걱정스레 묻던 말이 다시금 귀가에 미쳐온다. 공사 첫날부터 풍력발전소의 기술문제를 책임지고 밤낮없이 뛰어다니던, 매사에 세밀하고 알뜰한 기술부원처녀인 영실이기도 차에 오르는 그를 보고 까닭없이 울먹울먹했었다.

처녀가 리무용에게 남다른 관심을 돌리는것은 그들사이에 친혈육에 못지 않은 남다른 관계가 있기때문이었다.

리무용에게 있어서 영실은 잊지 못할 전우의 딸이었다. 리무용이 최전연초소에서 중대장을 할 때 영실의 아버지는 화력부관이였다. 어느날 적들이 무모한 불집을 일으켰을 때 리무용은 포화력을 지휘하다가 심한 중상을 입고 쓰러졌다. 그리하여 화력부관이 중대장의 임무까지 맡아 전투를 지휘하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화력부관은 운명하면서 태어나서 한돌도 못되는 자기 딸애를 부탁했다.

리무용은 전우의 부탁을 잊지 않고 영실을 데려다가 친부모 못지 않게 애지중지 키웠다. 이런 사연속에 성장한 그는 김책공업종합대학까지 졸업한 후 고향인 황해남도에 있는 도설계연구소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러던걸 공사가 시작되자 도에 있는 유능한 기술자들을 동원시키면서 영실이기도 데려오게 했다. 영실은 풍력발전소에 어지간히 조예가 있는 류체기계가사였던것이다. 매사에 신중하고 열정적인 제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영실은 공사장기술부원으로서의 자기 임무를 착실히 수행했다. 서해안의 세찬 바람에 빨간 머리수건을 나풀거리며 뛰어다니는 그를 볼 때면 대견한 생각이 들면서도 파란한 처녀인 그에게 알맞는 신랑감을 골라 짝을 무어주지 못한 자책감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었다.

《영실아, 왜 그러니?》

《풍력발전소를 돌리지 못하는 책임때문에 혹시 다른데라도...》

《걱정 말아라. 난 풍력발전기를 돌리기 전에는 여길 뜰수 없는 몸이란다. 죽는 한이 있어도 장군님의 명령을 관철해야 하거던.》

이렇게 떠난 걸음이였다.

영실이뿐아니라 공사장의 많은 사람들이 그가 평양에 가는데 대하여 의혹을 금치 못했다. 그도 그럴것이 공사를 완공해놓고도 시운전에서 성공하지 못하여 벌써 몇달째 제자리걸음을 하고있지 않는가. 그 책임을 장군님으로부터 직접 과업을 받은 리무용이 아니고 또 누가 질수 있단 말인가. ...

차가 수도의 거리에 들어서자 역수로 쏟아지던 비가 멎고 동녘하늘 한끝이 건뚝 들리더니 손바

다만 하게 열린 곤청색하늘가에 아침해가 불끈  
얼굴을 내밀며 부채살해빛을 내뿜었다. 승용차는  
방금 잠을 깬 수도의 거리들을 지나 김책공업중  
합대학정문으로 천천히 들어섰다.

2

출근시간전이어서 대학구내는 아직 깊은 정적  
속에 묻혀있었다. 대동강반에 기념탑처럼 우뚝 선  
본교사 옆에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이채로운 건물  
들이 하늘로 곧추 머리를 쳐들고있었다. 리무용은  
그 건물들이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태어나는  
전자도서관과 다기능체육관이라는걸 어렵지 않게  
짐작했다. 육중한 부채를 물고 아득한 높이에서  
빙그르르 돌아가는 기증기팔에 아침해빛이 없어  
져있다.

대학일군이 정문에서 기다렸다가 그들을 맞아  
어느 한 방으로 안내했다.

대동강너머 어디선가 불꽃 같은 해빛을 뿌려주어 방  
안은 유난히 밝은 느낌을 주었다. 흰칠한 키에 풍  
채 좋은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이 기다리기에 지  
친 피곤한 기색이었으나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마주 걸어나왔다.

《먼길에 오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  
님의 말씀을 전달하자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서  
앉으십시오.》

책임일군은 살뜰하게 의자까지 내놓았지만 리  
무용은 차마 앉을념을 못했다. 자신의 불찰로 임  
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죄의식이 가슴을 조여  
머리조차 들 수 없었다.

《제가 일을 잘못해서 아직 풍력발전소를...》

그 일군은 리무용의 말이 전혀 뜻밖인듯 일순  
의아한 표정이더니 이어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귀중한 자금을 들여 마련한 풍력발전기  
를 아직 돌리지 못하고있으니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장군님께서도 얼마전에 자강도를 현지  
지도하시면서도 언제 한번 황해남도의 풍력발전소  
건설을 잊으신적이 없었다고 하시였습니다. 원래  
는 자신께서 직접 건설국장동무를 만나실 생각  
이시였습니다.》

《예?!... 장군님께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밤 최전원초소로 떠나시면서  
도 풍력발전소가 돌아가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설비를  
들여온 나라 기술자들이 자기 나라 설비도 돌리  
지 못하고있다는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한다하는 〈씨린드〉  
회사의 기술자들이 벌써 여러차례 들락날락하  
면서도 아직...》

그 일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들이 제기한 체계는 디젤전동발전기로 시동  
하는 체계라지요?》

《그렇습니다. 그 방법은 중유소비량이 많아 우

리 나라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일군은 사색적인 얼굴에 환희로운 빛을 띄워올  
리며 리무용의 얼굴을 면바로 쳐다봤다.

《이미부터 풍력발전소의 실태를 세심히 료해하  
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  
는 체계는 무정전전원에 의한 풍력발전기의 시동  
체계라고 하시였습니다.》

리무용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도 그럴것  
이 전문가들도 가능하기 어려워하는 풍력발전기  
의 과학세계를 장군님께서서는 벌써 날날이 헤아리  
고계시지 않는가! 무정전전원에 의한 시동체계야  
말로 풍력발전기의 가장 발전된 시동체계라는것  
을 이즈음에 와서야 깨달은 리무용이었다. 그러나  
한다하는 다른 나라의 기술자들도 디젤전동발전  
시동체계조차 실현하지 못하고있는 상태에서 보  
다 높은 과학기술인 무정전전원체계를 과연 누가  
해결할수 있단 말인가.

그의 심중을 꿰뚫어본듯 당중앙위원회 책임일  
군은 입가에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저희들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만은 확신하시였습니다. 우리 나라에  
그 문제를 해결할수있는 과학기술력량이 이미 마  
련되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여서 리무용은 한동안 어  
리둥절해있었다. 디젤전동발전시동체계조차 실현  
하지 못하고있는 상태에서 무정전전원체계와 같  
은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문제를 풀수 있는 과학  
진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책임일군의 절절한 웃음소리가 고막을 쳤다.

《하하하... 건설국장동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있습니까?》

리무용은 뻔해서 대답했다.

《그야 물론 김책공업종합대학이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김책공  
업종합대학은 우리 나라 과학기술교육의 전당이며  
정보산업의 개척자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  
래서 장군님께서서는 이 대학 과학자들의 기술방조  
를 받도록 하기 위해 건설국장동무를 여기로 부  
르게 한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리무용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속에서도  
그 일군의 환희에 찬 목소리가 마디마디 미쳐와  
사막에 물이 잦아들듯이 그의 뇌리에 스며들었  
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풍력발전소는 자재와 로  
력을 적게 들이면서 전기를 생산할수 있기때문에  
대단히 경제적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우리 나라  
의 과학자들을 믿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풍력  
발전소건설에서 제기되고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  
을 풀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풍력  
발전소건설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면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대학 과학자들은 단 시일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당중앙위원회일군은 옆에 서있는 대학일군에게로 돌아섰다.

《어떻습니까, 해낼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이미 조직사업을 하고 필요한 인원을 선발하고있습니다.》

그로부터 한시간후, 리무용은 자동화공학부 책임일군의 방 창가에 서있었다.

본교사의 8층에 자리잡은 그 방은 대동강쪽으로 커다란 창문이 나있는 정갈하게 꾸려진 넓은 방이었다.

지식인들과 오래동안 사업해서인지 세련미가 풍기는 일군이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풍력발전소건설장에 내려갈 사람들을 선발해놓고 기다리고있다고 했다.

《벌써 선발했던 말입니까? 수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보측정강좌 교원과 박사원생입니다.》

《정보측정강좌?》

다소 의아한 생각이 없지 않았다. 풍력발전소는 류체공학에 학술적바탕을 두고있지 않는가. ...

일군이 상대방의 속생각을 짐작했는지 벌써 현장에 전화를 걸어걸린 과학적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알맞게 사람들을 정했다고 했다.

《실력자들이겠지요?》

《물론이지요. 그 교원으로 말하면 학계에서 명망이 높은 박사이지요. 학생시절부터 여러차례 프로그램경연에 참가하여 이름을 떨친 수재이니까요.》

《물론 그럴테지요.》

공학박사가 내려간다! 리무용의 마음은 무뎡흥그러웠다. 학계에서 명망이 높은 공학박사라면 나이도 지숙하고 경험도 많을것이다. 리무용에게는 반백의 머리카락에 흰칠한 이마에 테코은 안경을 걸친 풍채좋은 과학자가 벌써부터 눈앞에 방불히 안겨왔다.

잠시후 일군의 방으로 려행용가방을 메고 달긴 옷차림을 한 애젊은 청년이 들어섰다. 박사원생인지? 박사선생이 달고내려간다는... 그런데 왜 박사선생은 나타나지 않는가. 빨리 차가 떠나야 할텐데... 일군의 소개가 리무용의 예상을 뒤집어엎었다.

《바로 이 선생이 함께 내려가게 될 박사선생입니다. 최기운선생, 인사하십시오.》

그러자 그가 다가서며 잔잔한 목소리로 자기 소개를 했다.

《최기운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리무용은 어안이 빙빙해서 쳐다보기만 했다.

(최기운?!... 저렇게 젊은 사람이 공학박사? 놀

라운걸!)

리무용은 그 젊은 교원에게 다시한번 시선이 가는걸 어쩔수 없었다. 홍안의 청소년시절이 방금 지나간듯 한 30대 전반기의 청년이었다. 사색에 잠긴듯 한 영채도는 두눈, 호리호리한 몸매의 중키, 겸손한 몸가짐... 호감이 가기는 하지만 뜻내기가 아닐가? 경험은 나이의 함수라고 하지 않는가. 그러나 일군은 그를 유능한 과학자라고 소개하지 않았던가. ... 차가 떠날 때 따라나온 일군에게 리무용은 아무래도 마음이 허전해서 한마디 덧붙였다.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도 내려오겠지요?》

《머칠후에 강좌장선생을 따라 내려보내겠습니다. 지금은 긴급한 교수사업이 제기돼서... 그러나 우리의 총각박사를 믿어도 될것입니다.》

《총각이라니요?》

《아직 미혼이니가 총각이지요.》

《그—래—요?!...》

리무용은 왜 갑자기 제 목소리가 크게 울리고 마음이 즐거워지는지 자신도 알수 없었다.

잠시후 그들을 태운 승용차는 벌써 포장도로를 질주했다. 앞좌석에 앉은 리무용은 자동차후사경에 얼비치는 최기운에게 자꾸 시선이 가는걸 어쩔수 없었다.

최기운은 잔조롭게 실눈을짓고 어딘가 앞을 내다보고있었다. 명상에 잠긴 표정이다. 앞으로 부닥치게 될 일감을 두고 사색에 잠겼는가? 다른 나라의 기술자들이 손들고 나았을적엔 간단한 문제 가 아닌지라 초조감에 사로잡힌거나 아닌지?... 아니, 그런것같지 않다. 그의 호조어린 동그스름한 얼굴에는 안온함과 평온, 자신심이 깃들어있다. 차가 도착하면 뭐니뭐니해도 기뻐할 사람은 풍력발전소의 기술문제를 맡아안고 애를 태우던 영실이일것이다.

승용차는 비온 뒤의 맑게 씻기운 포장도로를 따라 질풍같이 내달렸다.

### 3

풍력발전소건설장지휘부는 서해물이 발밑에 깔린 둔덕우에 자리잡고있었다. 풍력발전소가 설치된 고지정점이 지척인듯 바라보였다. 지휘부옆에 군인건설자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의 숙소가 나란히 자리잡고있었다.

어찌나 고속으로 달리었던지 승용차는 정오가 좀 지나서 작업장에 도착했다. 공사장직일관더러 리무용은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자들에게 식사를 시키고 오후에는 피로를 풀게 하라고 이르고나서 지휘부에 들어섰다. 자기가 작업장을 비운것은 불과 하루 그러나 별로 쉴령한 기운이 느껴진다. 사람들의 걸음새도 어딘가 탄력이 빠진것 같다. 어제까지만도 고지정점까지 계단식도로를 내느라 삽질과 곡괭이질로 법석 끓던 건설장이 한산하기 그지없다. 무슨 일인가? 리무용은 당장 전화로 전

설과장 김태민을 찾은 후 문밖으로 나섰다. 고지정점 발전기실에 올라갔던 김태민이 달려내려왔다.

《국장동지, 언제 오셨습니까?》

《이제 방금 도착하는 길ियो.》

《하루를 한달맞잡이로 기다렸습니다. 별일없었습니까?》

《별일이라니...》

리무용은 솟구치는 걱정을 참을길 없어 김태민의 억센 두어깨를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난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오는 길ियो.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았단말ियो. 그 뿐인줄 아오? 장군님께서는 유능한 과학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었소.》

김태민의 두팔을 부여잡고 빙글빙글 돌아가다가 리무용이 문득 멈춰섰다.

《그건 그렇고... 낮빛이 왜 그리 심각하오, 무슨 일이 있었소?》 그가 전하는 말이 어제 《씨린드》 회사에서 팩스가 날아왔는데 우리가 자체의 힘으로 풍력발전소를 돌리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꼭 보고싶다면서 인차조선에 도착하겠다고는 것이었다.

리무용의 마디진 주먹이 획 허공을 가로질러 책상위에 쿵! 소리를 내며 날아떨어졌다.

《뭐라구? 자기네 기술수준이 낮아 돌리지 못하구선 이제와서 그따위 소리를 해? 이제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자들이 본때를 보일거요, 본때를!》

과학자들을 찾아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눈길을 주던 리무용은 의아해서 물었다.

《가만, 이 사람들이 어디 갔는가?》

몸집이 풍만한 취사원아주머니가 옆에서 귀띔해주었다.

《아까 영실기사가 웬 사람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던데요.》

《영실이가 벌써?... 취사원아주머니도 한심하오. 귀한 손님들을 데려다가 식사도 시키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게 한단 말ियो?》

《제가 미처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어오. 대학에서 박사선생이 내려왔다길래 나이가 지숙한 사람이려니만 생각했지 그렇게 새파랗게 젊은 사람일 줄이야...》

리무용은 손을 획 내저었다.

《됐소, 됐소. 어서 푸짐하게 점심식사를 차리오.》

김태민이 미덥지 않은듯 머리를 기웃거렸다.

《저도 산에서 내려오면서 봤는데 젊은 사람들이더군요. 다른 나라의 한다하는 기술자들도 힘겨워하는 문제를 꽤 풀어낼수 있겠는지. ...》

리무용은 성이 나서 소리쳤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자들이라고 하지 않소? 식사도 하기 전에 발전소부터 찾는 그들의 일본새가 다르다는걸 그래 느끼지 못한단 말ियो? 그

들의 식사를 빨리 산으로 날라가시오.》

취사원을 따라 식당쪽으로 몇발자국 옮겨가던 리무용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방향을 획 꺾어 발전소로 가는 오솔길에 들어섰다. 식당아주머니의 의아해하는 목소리가 등뒤에서 울렸다.

《국장동지, 식사도 안하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내 점심도 산으로 올려오우.》

리무용은 산기슭을 따라 씨엥씨엥 밭걸음을 놓았다.

(역시 김책공업종합대학과학자들이 다르거던. 시작이 다른단 말야. 그래야지. 암, 그래야 하구말구.)

풍력발전기가 거창한 날개를 수평으로 펼치고 서있는 산정에 이른 리무용은 발전기실에 들어섰다. 그런데 올라왔다는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리무용은 사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발전기실에 잇닿은 휴게실문이 반쯤 열려있는것을 보고 거기로 다가갔다.

반쯤 열려져있는 문밖으로 들여다보니 넓다란 상우에 발전기회로도도 조종기판이 펼쳐져있었는데 빨간 머리수건을 쓴 영실이가 무얼 설명하는지 작업복을 입은 한팔을 무시로 들었다놓곤 하는것이 바라보였다.

리무용은 인기척을 내며 방안으로 들어섰다.

《아니, 식사들은 안하고 작업장에서부터 올라오다니... 금강산구경도 식후정이라는데...》

최기운이 손에서 계기를 놓고 상기된 얼굴을 쳐들었다.

《좀 우스운 일이 있어서...》

최기운이 정색해서 전하는 말이 조종회로기판에서 여러개의 결함을 찾았다는 것이었다.

근래에 와서 들던중 제일 귀맛이 나는 소리여서 리무용은 회로도를 자기앞으로 끌어당겼다.

《최기운선생, 과학적으로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풍력발전기를 인차 돌릴수 있다는 소리가 아니요?》

《다른 나라에서처럼 디젤전동발전기체제로 한다면 인차 돌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체계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디마디에 확신이 풍기는 그의 대답을 흘린듯이 들으며 리무용은 다시 한번 과학자의 얼굴을 쳐다봤다. 바투 깎은 머리를 단정히 빗어올린 밧그레한 얼굴, 호수물을 담은듯 한 맑고 그윽한 눈동자, 예지를 비껴담은 사색적인 눈길, 크지도 작지도 않은 탄탄한 체구...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의 사색은 얼마나 정확하게 장군님의 의도를 따르고있는가.

저녁에 일을 끝내고 산에서 내려올 때 리무용은 영실을 불러세웠다.

《영실아, 게 좀 썼거라.》

《왜 그러세요? 삼촌.》

영실은 어린시절부터 리무용을 삼촌이라고 불렀다.

《너 말버릇 고쳐야겠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내려온 박사선생님을 보고 동무가 뭐냐, 동무가…》

《호호… 동무니까 동무라고 부르는거지요 뭐.》

《동무라니?》

《우린 대학동창이에요.》

《그—으—래?》

대학을 다닐 때 그들은 서로 학부는 달랐지만 한번 딱 만나본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

… 대학 4학년때 그들은 전국대학생프로그램경연에 참가했다. 최기운은 자동화공학부에서, 영실은 기계공학부(당시)에서 각각 1등으로 당선되어 경연장에서 서로 1,2등의 승부를 겨루게 되었다. 그런데 경연을 하루 앞두고 영실이가 그만 감기에 걸려 몸져눕게 되었다. 고열이 나고 입술이 타 들고 헛소리를 쳤다. 영실은 석달동안이나 밤을 새우며 경연을 준비하였던지라 이렇게 맥없이 끝나고 마는가 하는 좌절감에 안절부절을 못했다. 이제 반나절만 더 시간을 들이면 프로그램은 완성될것이었다. 이제는 어쩔수없이 경연을 포기하고마는가보다 하는 분한 마음으로 병석에 누워 앓고만 있는데 불쑥구원자가 나타났다. 그가 바로 경쟁대상자인 최기운이었던것이다. 영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경연이란 남을 누르고 자기가 이기는것인데 어떻게 남을 도와줄수 있단 말인가.

《그만두라요. 난 동무의 도움을 원치 않아요.》

영실은 병원에 찾아온 최기운에게 항변하듯 소리쳤다. 그러나 기운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번 경연에서는 동무가 앞섰지. 동무의 프로그램이 더 현실성있고 가치있는것이란 말이요. 그러니 마땅히 동무가 1등을 해야 하오. 어서 미완성프로그램을 내놓소. 내가 완성해줄테요.》

그리하여 프로그램경연에서는 영실이가 1등을 하고 최기운은 2등으로 떨어지게 되었던것이다.

영실은 자기의 땀땀치 못한 1등을 두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

이렇게 서로 알게 된 두사람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또다시 보람찬 일터에서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들은 풍력발전기를 돌리는데서도 서로 힘을 합쳐 일할것이다. 리무용은 가슴속에 그들먹이 차오르는 까닭모를 기쁨으로 산길을 훨훨 날아내리다싶이 했다.

#### 4

비구름 가실새 없는 장마철이라 날씨는 한시간이 멀다하게 번덕을 부렸다. 아침나절 구름이 걷히고 한줄금의 해빛이 비치는가 했는데 중낮부터는 다시 무더기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서해물결이 격랑을 안고 몸부림쳤다.

바다우를 배회하던 드세찬 폭풍이 풍력발전소

가 설치된 산정의 칼벼랑에 부딪쳐 야수의 호곡같은 스산한 파멸음을 터뜨렸다. 그때마다 높이 사다리형으로 뻗어올라간 풍력발전소의 동체가 태질하듯 흔들리며 웅웅 아츠러운 비명을 내질렀다. 그러나 풍력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자들과 건설자들 그리고 도에서 온 기술자들의 투쟁은 밤낮없이 계속되고있었다.

리무용은 그 전투를 지휘하느라 벌써 며칠동안 밤을 새웠는지 모른다. 기술의 우세를 자랑하며 거들먹거리는 《씨린드》회사대표들이 도착하기 전에 우리의 힘으로 발전기를 돌려야 한다.

주체과학의 위력으로 그들의 안하무인격이고 거만하기 이룰데 없는 코대를 꺾어놓아야 했다.

리무용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최기운을 찾아 수화기를 들었다.

《발전기실이요? 나 리무용이요. 거기 일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있소?》

잠시후 전화기에서 최기운대신 영실의 열기띤 목소리가 쟁쟁 울려왔다.

《삼촌이에요? 제 영실이에요. 최기운동무가 조종회로에서 일곱개의 오류를 찾았어요. 이걸 순전히 〈씨린드〉 회사가 결선을 잘못된 탓이에요.》

《그—래? 수고했구나. 뭐 그러고도 기술이 우월하다구? 그런데 박사선생은 어디 갔느냐?》

《풍력발전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리무용의 입에서 깜짝 놀란 웨침소리가 터져나왔다.

《뭐라구? 그 사람이 제정신이야? 바람질에 돌덩이도 날아갈 판인데 그 높은데 올라가다니? 당장 내려오라고 해라. 당장!》

《회로를 최종검토하려면 누구든지 올라가보아야 하거든요.》

《우리 사람이 있지 않니? 우리 사람이… 그 사람은 손톱끝 하나 다쳐서는 안될 과학자야. 우리가 목숨처럼 보호해야 할 나라의 박사란 말이다. 박사!》

《어쩌겠어요.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자기가 올라가보아야 알수 있다고 하는 바람에…》

《알겠다. 내 인차 올라가마.》

리무용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놓았다. 옷걸이에서 비옷을 벗겨입은 그는 산고지를 향해 장달음을 치기 시작했다. 무시로 태질하는 비바람에 어깨에 걸친 비옷이 기폭처럼 펄럭이었다.

발전기실에 들어서던 리무용은 안에서 울려나오는 다급한 목소리에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최기운동무, 정신차리라요.》

간절한 애원이 담긴 목소리는 분명 영실의것이였다.

(응?…)

리무용은 칼끝처럼 예리한 전율을 느끼며 정신없이 방안에 뛰어들었다.

백지장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린 최기운이 비에 화락하니 젖은 옷을 입은채로 침대에 누워있지 않는다. 주위에 몰려선 사람들이 서로 겨끝대기로 최기운의 손발을 주물러주느라 부산을 피우고 있었다.

영실은 너무도 안타까워 눈물이 글썽해서 누워 있는 사람의 이름을 거듭거듭 부르며 동동 발을 구른다. 리무용은 사람들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된거요?》

영실이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전하는 말이 최기운이 풍력발전기 폭대기로부터 내려오면서 전기 회로를 검토하했는데 지상에 거의 내려와서 그만 폭풍우에 휘말려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뭐—야?... 그럼 빨리 의사를 불러야지. 의사를!》 마침 그때 박사원생이 의사를 데리고 방안에 뛰어들었다. 나이 지긋한 의사가 익숙한 솜씨로 환자의 맥을 짚어보고나서 여러가지 약들을 주사하였다. 창백하던 환자의 얼굴에 화기가 어리고 잠시후 정신이 드는지 눈을 번쩍 떴다.

리무용은 최기운의 손을 부여잡고 뜨거운 입김을 쏘았다.

《어떻소? 정신이 좀 드오?》

최기운은 파들파들 떨리는 입술에 깨끗한 미소를 담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국장동지, 소란을 피워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조종회로는 다 검토되었습니다. 결함을 모두 찾았습니다.》

《그렇소?!...》

리무용은 상대방이 이제 금방 정신을 차린 환자라는것도 잊어버리고 그의 손을 잡고 열렬히 부르짖었다.

《수고했소. 수고했던 말이요.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자들이 정말 다르구만. 그럼 〈씨린드〉 회사 기술자들이 보란듯이 발전기를 빨리 돌리잔 말이요.》

최기운은 번쩍 뜬 두눈에 사색을 담으며 좌중을 둘러보았다.

《물론 다른 나라 기술자들 보란듯이 발전기를 돌려야지요. 우리는 그들에게 주체조선의 과학의 힘을 시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새겨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디젤전동발전기체계는 우리 식이 아니라고 하시였습니다. 무정전전원에 의한 단독운영체계를 세워 운영하는 독창적인 방법을 창조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국장동지, 우리는 이 방법을 꼭 완성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의 보고를 드립시다.》

《알겠소. 알겠단 말이요!》

리무용의 가슴속에 걱정의 파도가 소용돌이쳤다. ...

리무용은 이제는 일없다고 한사코 뿌리치는 최

기운을 조용한 방에 날라다눕혀 안정하게 하고 곧 지휘간부들의 협의회를 조직했다.

협의회에서 리무용은 열렬히 호소했다.

장군님의 말씀을 받들어 무정전전원에 의한 단독운영체계를 실현하자!

협의회에서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과업들이 제기되었다. ...

며칠이 지난 어느날 저녁이었다.

리무용은 최기운이 안정치료를 받으며 누워 있는 방으로 찾아갔다. 생각같아서는 시간이 멀다하게 찾아가 따뜻하게 돌봐주고 위로도 해주고싶었지만 무시로 겹쳐드는 일감에 발목이 잡혀 저녁녘에야 들러보곤 한다. 수도의 큰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오라고 권고했지만 그는 작업장을 뜰수 없다고 현장에 그대로 남아 연구사업도 하고 치료도 받았다. 이런 생각을 더듬으며 방에 다달았으나 기운은 없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가? 아직 더 안정해야 할텐데...》 날라온 저녁식사가 상보에 덮여 그대로 상우에 놓여있다. 리무용은 상보를 벗기고 음식상을 들여다봤다. 서해 특유의 여러가지 물고기 식찬이 놓이고 노란 닭알부침까지 있어서 환자음식으로서서는 정말 나무랄데 없다. 식찬을 바라보느라니 낮에 어디서 구해왔는지 닭알부침미 안고 식당에 뛰어들던 영실의 발그레한 얼굴이 눈앞에 방불히 떠올랐다. 리무용의 얼굴에 느슨한 미소가 병실 피어났다. 《허, 영실이가 괜찮아. 괜찮단 말이야!》 국그릇에 손을 대보니 짜늘하게 식어있었다. 그러니방에서 나간지 퍼그나 되었다는게 아닌가. 절대안정해야 할 환자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리무용은 밖으로 나왔다. 며칠째 해변을 들었다 놓으며 울부짖던 파도소리도 증증해지고 날씨는 한결 잠풍해졌다. 시커먼 매지구름이 뭉게뭉게 솟아오르는 하늘 한끝에서 희미한 달빛이 흘러내렸다. 그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컴퓨터조종실로 향해졌다. 방침대에 누워서도 무슨 프로그램을 짜느라고 약봉투에마져 글을 쓰면서 연구에 몰두한다는걸 잘 알고있는 리무용이었다.

며칠전이었다. 부랴부랴 축조를 끝내고 문짜도 채 달지 못한 컴퓨터실에 불빛이 환했다. 열려진 문으로 안을 기웃이 들여다보니 아닌게아니라 최기운이 거기에 있는게 아닌가. 영실이도 있었다. 그들은 나란히 컴퓨터앞에 앉아 무시로 변하는 화면을 들여다보는데 정신이 팔려 사람이 곁에 다가온것도 모르고있었다. 도란도란 주고받는 말소리가 리무용의 귀가에 미쳐왔다.

《기운동무, 생각나요?》

《뭬?》

《우리가 전국대학생프로그램경연에 참가했던 때를 말이에요.》

《생각나구말구.》

《그때는 동무가 날 도와줬지요. 이렇게 제가 신세값을 할 때가 있을줄 어떻게 알았었어요?》

《신세값이라니?》

영실의 까만 두눈에 별빛이 옮겨와 부서졌다.

처녀는 총각앞에 프로그램원판을 내밀었다.

《제가 짠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리용하면 풍력발전기의 출구와 무정전전원의 입구를 순조롭게 연결할수 있을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단락을 피할수 없다고 하지만 그걸 막을 방도를 찾은것 같아요. 어서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입력해보세요.》

화면에 나타나는 프로그램을 가리키며 영실은 일일이 설명했다. 폭포수처럼 쉽없이 흘러내리는 프로그램행렬들에 눈길을 주며 사색을 이어가던 최기운은 한순간 시선을 멈추고 벌떡 일어서더니 환희에 넘친 목청을 터쳤다.

《고맙소, 정말 고맙단 말이요. 동무의 프로그램이 무정전전원에 의한 단독운영체계를 수립하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놀것인가를 안다면...》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도 김책공업종합대학 졸업생이 아니나요?》

《그렇소. 그래서 이처럼 가치있는 프로그램을 짤수 있었겠지. 내가 이미 작성한 프로그램에 이걸 더 첨부하면 우리의 연구사업은 거의 완성된 셈이요. 하하하...》

최기운은 영실의 두팔을 잡고 빙글빙글 돌아갔다.

(뭐? 거의 완성이라구?!... 저 젊은이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가, 허허... 저들이야말로 탐구의 길에서 피어난 한쌍의 아름다운 꽃이 아닌가!...)

한달음에 달려가 두 젊은이를 으스스리게 껴안고 싶었다.

밀물처럼 밀려드는 희열에 떠밀려 저도 모르게 한걸음 앞으로 내질기는 했으나 리무용은 얼어붙은듯 그 자리에 멈춰섰다.

기쁨이 아무리 커도 혼자서만 묵새겨야 할 그러한 순간도 있다는것을 그는 일생에 처음으로 문득 깨달은것 같았다.

## 5

리무용은 요즘 무척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컴퓨터모의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실험에 도입하기 위해 요즘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자들은 밤낮없이 전투를 벌리고있다. 강좌장을 비롯한 다른 교원들도 필요한 설비들을 가지고 내려와 최기운의 연구사업을 힘껏 도와주고있었다. 그들의 연구사업에 망라되어 일하는 영실의 보고에 의하면 조종기관회로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말끔히 제거하고 깨끗이 정비했다고 한다. 무정전전원에 의한 단독운영체계가 마지막단계에서 다그쳐지고있다는것이다.

놀라운 속도였다!

리무용은 오히려 건설자들이 그 속도에 발맞추어 일하지 못하는것만 같아 안달아났다. 그는 서둘러 송수화기를 들었다.

《건설과장동무요, 무정전전원장치 시운전준비가 어떻게 되어가고있소? 거의 되어가고있다고요?... 알겠소. 빨리 해야겠소. 그리고 오르는 계단식도로는 최상의 수준을 보장해야 하겠소. 위대한 장군님을 모실수 있게 빈틈이 없어야 하오. 빨리 다 그쳐 하루이틀내로 완성하고 보고하시오. 알겠소?》

리무용은 확답을 받고나서 송수화기를 놓았다. 그는 마당가로 나갔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자들이 지금 컴퓨터조종실에서 마지막작업을 다그칠것이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엉켜돌긴 했지만 비가 올것 같지는 않았다. 소금기에 절고 해빛에 뜨거워진 끈적끈적한 해풍이 불어와 가만히 서있어도 땀발이 솟게 했다. 리무용은 건설자들이 일하고있는 컴퓨터조종실로 발걸음을 돌렸다. 미장작업을 끝낸 벽체에 마지막도색작업을 하고있던 한 건설자가 궁금중에 사로잡혀 물었다.

《저... 국장동지, 풍력발전기가 언제 돌아갑니까? 빨리 전기덕을 보고싶습니다.》

《인차 돌아갈거요.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자들이 내려와 전투를 벌리고있지 않소?》

《그들이 해낼가요? 유명하다는 〈씨린드〉 회사도 손을 들었는데...》

그러자 삽질을 하던 다른 청년이 끼어들었다.

《여 성철동무, 말을 삼가하라구. 남들이 못한다고 우리도 못한다는 법이 있는가?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유능한 박사선생도 내려왔다는데...》

이때 건설자들속에서 웃통을 걷어붙이고 삽질을 하던 사람이 허리를 뿔었다.

《내려왔다는 대학박사가 유능한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풍력발전기는 돌아갈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의 수준을 뛰어넘어 무정전전원에 의한 단독운영체제로 돌리게 될것입니다. 모든 장치는 바로 산밑에 있는 여기 중앙조종실에서 컴퓨터로 조종하게 됩니다. 그러자면 지금 하고있는 컴퓨터조종실의 마감작업을 빨리 끝내야 합니다.》 리무용은 그가 하도 신통한 말을 한다고 생각되어 눈여겨보았다. 삽을 든 사람은 발전기실에 있어야 할 최기운이 아닌가! 그옆에는 영실이기도 있었다. 리무용의 입에서는 놀라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니, 박사선생, 여기서뭘합니까?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과학자야 이런 일이 아니라도 자기 일감이 있는게 아닙니까?》

《조종기관도 조립되고 전류제한기도 설치되었습니다. 컴퓨터종합자동장치의 배선공사도 다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만 끝나면...》

《그렇소?!》



리무용은 최기운을 비롯한 과학자들을 감동여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현지에 내려와 밤을 밝히며 일하느라고 모두들 눈이 축 들어가고 볼들이 훌쩍해졌다. 리무용은 최기운의 손에 들려있는 공구를 빼앗으며 젖어든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호실에 들어가 꼭 쉬시오. 아마 며칠을 내치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을게요.》

《저희들은 현장에 내려오면 노동자들과 함께 일할 때가 제일 기쁩니다.》

이때였다. 김태민이 다급한 걸음걸이로 리무용의 앞으로 뛰어왔다.

《무슨 일어요?》

《〈씨린드〉 회사의 기술자들이 다시 우리 나라에 왔습니다.》

《어째서 또 온대? 풍력발전소는 돌리지도 못하면서… 돌아가라고 하오. 어서!》

리무용은 성이 나서 손을 뻗 내저었다.

《어찌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기로 떠났다는데…》

《허, 시끄럽게는 구는군.》

리무용이 들었던 삽을 내던지고 팔소매를 걷어 올리고 시계를 들여다보는참인데 《씨린드》회사의 기술자들을 태운 승용차들이 벌써 마당가에 들어서고있었다. 꺾두룩한 키에 검은테안경을 얼굴에 걸친 낯익은 외국인이 먼저 차에서 내렸다. 그가 바로 풍력발전기를 돌리지 못해 몇번씩이나 우리 나라에 들락날락하던 헬프라는 기술자였다.

리무용이 시들한 어조로 물었다.

《헬프선생, 이번에는 어떻게 왔습니까?》

통역이 그 나라 말로 전달해주자 그는 황급히 대답을 했다.

《우리는 당신들이 제힘으로 풍력발전소를 돌리려고 한다가에 그걸 우리 눈으로 직접 보려고 왔습니다.》

리무용의 시선은 저도 모르게 최기운에게 향해졌다. 리무용뿐만이 아니었다. 모인 사람들모두가 기대어린 얼굴을 최기운에게 돌렸다.

최기운의 영채도는 눈길이 랭소와 불안에 떨고있는 헬프의 얼굴에 화살처럼 날아갔다. 그는 조용한 걸음걸이로 외국인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 걸음걸이처럼 조용한 목소리이긴 하나 마디마디 확신에 찬 어조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류창하게 번지는 외국어발음이었다.

《그래… 우리가 제힘으로 돌린다는것이 아마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지요?》

헬프는 제 나라 말로 맞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것이 희한하다고 생각했던지 멍한 눈길로 쳐다봤다.

《우리가 돌리지 못했는데 당신들이? 어렵없습니다. 당신들이 돌린다면 내 손바닥에 물고기를 지지겠습니까.》

헬프는 어이없다는듯 머리를 들까불며 손을 뻗

혀 내저었다.

최기운은 침착한 눈길로 거만스런 외국인의 거동을 하나하나 일별하고나서 입가에 랭소를 지으며 한결을 더 내짚었다. 《좋습니다. 그럼 손바닥에 물고기를 지질 차비를 하시오. 우리는 당신들이 주장하는 디젤전동발동체계가 아니라 무정전전원에 의한 단독운영체제로 풍력발전기를 시동하겠습니다.》

《무정전전원에 의한 단독운영? 아, 그러지 마십시오. 단락사고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하하하… 위험하다? 그 방법이 당신들의것보다 더 우월하다는건 인정합니까?》

《그야 물론!》

《그렇다면 당신들은 여기서 구경이나 하시오.》

헬프의 실금같은 두눈이 단번에 화등잔만큼 커졌다.

《아니, 절대로 돌릴수 없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최기운은 숨을 한번 길게 들이긋고나서 한마디 한마디 총알처럼 날려보냈다.

《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키워주신 조선의 과학자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조종기판에서 7개소의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령점점출구회로에도 제작상오류가 있고 조종소자들도 당신들은 바꾸어 배치했습니다. 어디 한번 말해보시오. 당신들은 혹시 술에 만취해서 기계를 설치한게 아닙니까?》

통역이 재빠르게 우리 나라 말로 번지자 사람들속에서는 폭소가 터졌다.

헬프는 정말로 술에 취한 사람처럼 두손을 마구 휘저으며 단말마의 웨침처럼 고아댔다.

《아니아니, 절대로 그럴수 없습니다.》

《헬프선생, 우리는 이 풍력발전소를 당신들의것보다 훨씬 우월한 체제로 운영할것입니다.》

헬프는 믿지 못하겠다는듯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리고는 산꼭대기에 있는 풍력발전기를 가리키며 랭소하듯 말했다.

《그럼, 발전기를 돌려보시오. 지금 당장이라도 말이요.》

리무용은 한순간 가슴이 서늘해왔다. 최기운을 믿지 않는건 아니었지만 총창처럼 바투 들이대는 상대방의 공격에 어떻게 맞서겠는지 마음이 조마조마하기도 했다.

컴퓨터조종실은 아직 완성되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최기운은 자신만만한 태도로 맞서나갔다.

《좋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구경이나 하시오. 돌아가는 발전기날개를 부감하기에는 여기가 좋은 위치이니까.》

최기운은 영실에게 눈짓했다. 두사람은 약속이나 한듯이 나란히 산마루로 오르기 시작했다.

발전소와 연결된 전화기에서 명쾌한 종소리가 울렸다. 리무용은 송수화기앞으로 뚜걱뚜걱 걸어갔다. 마침내 송수화기를 들었다. 최기운의 열기에 젖은 목소리가 귀가에 미쳐왔다.

《국장동지, 시동준비되었습니다. 어서 명령을 주십시오!》

리무용은 돌격전에 나선 공격대렬의 지휘관처럼 숨을 길게 들이쉬고나서 걱정의 파열음을 터치었다.

《시동하십시오!》

그 순간 수신편의 거대한 길이를 가진 풍력발전기의 팔이 웅—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산정에 소소리높이 솟아있던 무성한 나무들이 발전기날개에 쳐내는 바람에 맞아 춤추듯 설레었다.

골짜기를 길게 가로지른 고압선에서 웅—하는 전류의 흐름소리가 그 무슨 현악기의 울림처럼 정답게 미쳐왔다.

기세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의 림름한 날개와 거기로부터 사방으로 뻗어내린 전기선들을 황황히 더듬어보던 헬쯔와 외국인들은 그제서야 눈앞에 펼쳐진 기적같은 현실이 꿈이 아니라 실지라는 것을 온몸으로 감수하며 감개에 젖어 고개를 끄덕였다.

리무용이 헬쯔앞으로 한걸음 다가갔다.

《헬쯔선생, 어떻습니까?》

《그런데 한가지 확인할게 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무정전전원체제로 가동시켰습니까?》

《보면서도 모릅니까? 당신들의 디젤전동발전기는 저기 마당가에 있지 않습니까?》

아닌게 아니라 마당 한구석에 디젤전동발전기가 그 무슨 파철처럼 처박혀있었다.

헬쯔는 산에서 내려온 최기운에게 다가가 뼈박하게 머리에 올려놓았던 모자를 벗고 깊숙이 머리를 숙이였다.

《오, 당신은 대단합니다. 도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의 과학자들이 이처럼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있다는걸 미처 몰랐습니다. 성함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최기운은 류창한 외국어발음으로 말했다.

《내 이름은 알아서 뵈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평범한 교원입니다.》

헬쯔는 그제서야 리해가 되는듯 머리를 끄덕였다.

《아, 김책공업종합대학. 대단합니다, 제일입니다.》

《헬쯔선생, 약속은 지켜야지요?》

《약속? 아, 손바닥에 물고기를 지지는것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빈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헬쯔는 한숨을 내쉬고나서 처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켜야지요. 저는 그보다 더한걸로 보상하겠습니다.》

《우린 그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헬쯔는 최기운의 엄엄한 표정앞에 기가 질려 어쩔줄 몰라했다. 리무용이 눈짓해서야 최기운은 마지못해 그렇게 하라고 승인했다. 헬쯔는 감지덕지해서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을 축하할 때만 하는 우리 나라 춤을 보여드리는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 춤을 다른 사람앞에서 추어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앞에서는 기꺼이 춰드리겠습니다.》

헬쯔는 안경을 벗었다. 웃웃마져 벗어 승용차좌석에 던지더니 정말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발동작과 손동작이 유별한 그 춤이 정말로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앞에서만 추는 춤인지는 바이 알길이 없다. 땀을 줄줄 흘리며 노란 머리칼을 날리며 정성껏 추는 그 춤에 자기로서의 그 어떤 진정을 기울이고있다는것만은 알수 있었다. ...

X

그로부터 몇달이 지난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자들에 의하여 준 공된 풍력발전소를 보아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새로 꾸린 컴퓨터조종실을 돌아보시다가 컴퓨터 건반을 능숙하게 다루고있는 영실을 보시고 리무용에게로 돌아서시였다.

《가만, 이 동무가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내려왔던 총각박사를 도와준 그 처녀동무입니까?》

《그렇습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한 기사입니다.》

리무용은 두 청춘남녀가 이 발전소건설장에서 사랑을 맺은 사실까지도 말씀드렸다.

장군님께서는 얼굴이 온통 감빛물이 들어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있는 영실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다가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보람찬 일터에서 사랑을 맺었다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는 이 동무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장군님께서는 축하한다는 말씀을 거듭 외우시며 영실의 두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발전소건설을 도와주려고 내려왔던 대학선생님들이 올라갔다니 참 아쉽게 되었습니다. 후에 시간이 생기면 대학에 찾아갈 생각이지만 훌륭한 일을 한 그들을 만나주지 못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섭섭해했겠습니까.》

정녕 그들을 만나지 못하신것이 아쉬우시여 밖으로 나오시여서도 그이께서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산정에 설치된 풍력발전소의 웅자를 이윽도록 바라보시였다. 석양의 불그래운 해빛이 기세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의 날개에 부딪쳐 수천갈래의 신비의 빛을 발산했다.

《국장동무, 우리 저 산정에 올라가봅시다.》

《장군님, 날이 저물었습니다.》

리무용은 어둑어둑해오는 사위를 둘러보며 근심스레 말씀드렸다.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그러지 말고 어서 산정으로 올라가봅시다.》 하시며 돌계단을 짚으시며 먼저 산으로 오르기 시작하시였다. 산정에 오르니 해는 이미 서산

에 잠겨들고 저녁노을이 드넓은 서해에 불길같은 화염을 피워올리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짙은 노을을 휘저으며 씩씩 돌아가는 발전기날개에 시선을 주시며 기쁨의 걱정을 터치시였다.

《풍력발전기가 멋쟁이입니다. 날개를 번쩍거리며 돌아가는것이 불만합니다. 그리고 저길 보시오.》

그이께서는 전기덕을 보기 시작한 공공건물들과 살림집들을 둘러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군인들과 인민들이 풍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보며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니 내 마음도 기쁩니다. 이번에 풍력발전기 단독운영체계를 연구완성하는데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들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들이 기재, 설비를 가지고들어온 해당나라 기술자들도 풀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고 하는데 실력이 있습니다. 역시 김책공업종합대학이 김책공업종합대학입니다.》

장군님께서는 상쾌한 가을바람을 맞으시며 더욱더 산정에 서계시였다. 벌써 낮동안 푸른빛 돌던 산골짜기와 해빛에 아지랑이를 피워올리던 드넓은 서해가 아예 어둠속에 묻히고말았다. 검은 장막이 삼라만상을 뒤덮었다. 그러나 은혜론 사랑에 떠받들린 군부대와 거리와 농촌마을들은 대낮처럼 불빛이 환했다.

가로세로 일매지게 뻗어간 길바닥을 따라 촘촘히 박힌 가로등에도 불빛이 흘러나와 하늘의 별무리가 통채로 내려앉은듯싶다. 산천도 사람들의 마음도 밝게만 해주는 저 불빛, 그것은 군인들과 인민들을 한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시는 사랑의 불빛이었다!...

## 교정의 길

리성만

교정의 길이어

끝없이 속삭이며 걷고싶구나  
이 땅에 기념비적창조물로 솟아난  
전자도서관과 체육관의 모습이  
걸음걸음 안겨들어...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서도  
험한 전선길에서도  
그이의 마음속에 언제나 네가 있어  
장군님 걸으시는 선군길과  
하나로 이어진 정든 길이어

대학의 사명이 중요하기에  
쌓이고쌓인 피로 푸실 사이없이  
단풍든 9월에도 오시고  
눈내리는 날에도 오시는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새겨진  
교정의 길이어

배움의 종소리 지켜주시려  
총대로 헤쳐가신 자욱자욱  
꿈결에도 새벽에도 창문을 열면  
그리움속에 걸음보다 먼저  
마음이 걷는 대학의 교정길

아 뜨거운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정다운 길이어  
너를 딛고 교문을 나선  
수많은 제자들  
조국의 기둥으로 자라났거니

우리 장군님 내세워주신  
정보산업의 역군으로  
강성대국의 아침을 앞당기며  
끝없이 걷고걷는  
아, 교정의 새벽길이어

## 약속

김정철

언제면 오실가  
손꼽아 기다리며  
한해를 맞고보니  
더욱 그리워지는  
우리 장군님 생각

단풍든 9월에 오시여  
도서관과 체육관을  
자신께서 지어주시겠다고

완공되는 그날 다시 오겠다고  
장군님 남기신 못 잊을 그 약속

사랑의 그 약속 안고  
장군님 오셨네  
1월의 맵짠 추위  
몰아치는 눈바람에  
야전복을 날리시며...  
아, 장군님은 약속을

꼭꼭 지키시는분  
우리와 하신 약속 지키시기 위해  
또다시 대학을 찾아주신 장군님

정녕 약속을 위해  
이 세상 고생중에 가장 큰 고생  
한몸에 다 안으시고  
비바람 눈보라를  
웃음으로 헤쳐가시는분

약속을 지켜

명절의 하루도  
과학자들을 위해 바치시는  
아버이장군님 우리르며  
마음속에 뜨겁게 자리잡는 우리의 맹세

장군님 바라시는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  
과학의 요새를 점령할  
불타는 그 약속  
우리의 심장마다 새기였어라

## 사랑의 문

리은순

해빛넘친 이 아침  
현관문 열고 들어설 때면  
가슴 뜨거워라 그날의 사연  
우리 장군님 오셨던 그날의 추억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있을 때에도  
바람세찬 최전연에 있을 때에도  
꼭 와보고싶었다시며  
교사로 들어서시던 장군님  
현관문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여라

시원스레 열려진  
문을 바라보시며  
이 문으로 누가 다니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어라

교원, 연구사들이 다닌다고  
송구스레 울리는 일군의 아뢰임  
오래도록 현관문 바라보시던 그이  
나직하나 엄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장군님

그러면 안된다고  
이 문으로는 교육자들은 물론  
과학의 주인공들인

대학생들도 다니도록 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는 장군님

대학생들을 위해  
대학일군도 교수도 있다고  
대학의 주인은 바로 과학의 주인공들인  
대학생들이라고  
준절히 깨우쳐주시여라

아 후대사랑에 받들려  
구름을 허리에 두르고  
대동강기슭에 높이 솟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이여

문열고 들어서면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며  
어서 들어오라 손저어주시는 수령님과  
장군님품에 금시 안길듯  
뜨거운 그 사연을 안고  
오늘도 세계를 향해  
활짝 열려진 사랑의 문

조국의 미래들인  
대학생들이 들어선다  
과학의 푸른 꿈을 안고  
사랑의 요람으로 들어선다

## 여기도 《최전연》이다

채철호

아침이면 아침마다  
강의안 펼쳐들고  
교단에 나설 때면  
한가슴 가득히 떠오르는  
아 우리 장군님 영상

금방 최전연에서 돌아오신듯  
그이의 옷자락엔  
전호가의 술숯향기가 넘쳤고  
거대한 작전을 지휘하시는듯

우리의 교정을 거니시는 그이의 발걸음엔  
령장의 용맹이 실렸는데

송구스러웠더라  
그이앞에 서니  
우리 해놓은 일이  
너무도 적은것 같아  
우리 떠올린 과학의 창조물들이  
너무도 보잘것 없는것 같아

조국의 운명 지키시는  
령장의 크나큰 발자욱  
고요한 교정에 찍으시며  
정녕 그날에  
우리 장군님 바라신것 무엇이던가

다시 한번 가슴에 대고 묻고물으니  
학생들이 앉은 풀책상조차  
푸른 전호처럼 안겨와라  
다가선 이 교단조차

마음엔 철령으로 높아라

장군님 오셨다 가신그 순간부터  
우린 그대로 총잡은 병사의 마음  
컴퓨터와 실험일지조차  
첫 전투에 참가한 병사의 흥분으로 마주하나니

신념처럼 끈은 과학의 붓대를  
총대처럼 비껴들고  
탐구의 탄알 만장탄하며  
최첨단 과학의 세계로  
높이높이 겨누는 마음

오시여 오시여 우리 장군님  
심어주신 조국수호의 정신  
탐구로 불타는 눈빛마다 나래쳐라  
오, 장군님 오셨다 가신 그날부터  
우리의 교정도 최전연이 되었다  
우리도 조국의 번영을 지켜  
장군님과 한전호에 사는 그이의 병사다

## 단상

# 졸업휘장

## 황옥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한없는 은정에 의  
하여 전국각지의 김책공업종합대학 졸업생들에게  
졸업휘장이 수여되었을 때 이 땅 어디서나 우리  
대학 이야기가 자랑스럽게 펼쳐지였다.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로학자들에게도, 이제 금  
방 대학교문을 나선 애젊은 졸업생들에게도 똑같  
이 차례진 졸업휘장.

그들속에는 지배인과 기사장도 있고 당일군과  
설계가, 문필가도 있으며 총대병사와 장령도 있  
다.

돌이켜보면 제나름의 력사와 전통, 과학기술적  
진보를 자랑하는 대학은 많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지 수십년이 지난 졸업생  
들에게 똑같이 졸업휘장을 제정하여 그들의 지위  
를 한껏 높여주고 중대한 사명감을 다시금 깨우  
쳐준 크나큰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 어느 력사  
에도 없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자랑과 긍지로 가슴부풀  
게 하는 과학기술교육의 최고전당, 기술인재양성  
의 종합적기지로 위용펼치는 우리 대학.

졸업휘장속에 어리어온다.

잊을수 없는 현지도의 그 나날 경애하는 장  
군님께서서는 새해 정초에 자신께서 김책공업종합  
대학에 먼저 나온것도 바로 강성대국을 건설해나  
가는데서 대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 중요하  
기때문이며 대학에서 쓸모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데 대하여 강조하고싶어서였다고,  
이 대학에서는 공장, 기업소 지배인과 기사장은  
물론 연구사와 설계가를 비롯하여 나라의 정보산  
업혁명에 필요한 과학기술인재들이 다 나오고있  
다고 하시면서 김책공업종합대학 졸업생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높은 평가를 주시였다.

졸업휘장도안을 친히 보아주시고 더 훌륭하게  
완성시켜주시였으며 이미 졸업하고 나간 전국의  
모든 졸업생들에게 다 수여해줄데 대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우리 장군님의 크나큰뜻이 비껴서인가.

푸른 바탕의 졸업휘장은 참으로 크나큰 무게를  
더해주며 푸른 꿈 키워가던 대학시절처럼 머나먼  
탐구의 길을 끝까지, 변함없이 가라고 졸업생 우  
리모두에게 깨우쳐주는것만 같았다.

강성대국을 향해가는 선군혁명의 길에서 김책  
공업종합대학 졸업생의 임무는 끝날수 없다고...



# 이 땅은 넓다

박경철

1

따스한 봄태양이 중천에 떠오른 때였다.

제4작업반실 정문에서 자전거 한대가 빠져나 오더니 곧장 이마골로 뻗은 큰길을 따라서 달리기 시작했다. 보통키에 다부져보이는 몸매로 자전거우에 앉아있는 사람은 반장 리훈섭이었다.

그런데 허리를 바싹 구부린채 부지런히 움직이는 발에 비해 자전거는 썩 굼뜨게만 간다. 그러고보면 그는 투박하고 색이 날아보이는 오래된 자전거를 타고있었다. 그는 지금 류순애가 분조장으로 일하고있는 이마골(5분조)로 가는 길이었다.

인차 진행하기로 되어있는 봄보리파종방식상 학준비가 제대로 돼가고있는지 못내 걱정스러웠던 것이다. 어제 저녁 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반장들의 협의회에서 이런 파업을 줄 때 그는 딱 잘라 매려고 했었다. 분조장사업을 시작한지 웅근 석달도 못된 류순애가 탐탁치 않게 생각되었던 것이다.

하면서도 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선정한 분조이고 또 자기가 도와주면 얼마든지 방식상학을 치를수 있겠다고 믿고 웅했던 것이다. 그의 눈앞에는 느닷없이 류순애의 모습이 비껴왔다.

날씬한 키에 호릿한 몸매, 얇은 홍조가 비낀 닭알형의 얼굴, 그속의 류달리 검은 눈과 선이 고운 코, 꼭 깨문듯 한 작은 입...

그는 이마골태생으로서 자기 인생의 초여름을 빚내준 은인이며 마을사람들이 늘 잊지 못해하는 류만식의 외동딸이었다. 리훈섭이 이마골에서 한창 분조장사업을 할 때 분조원으로 일하던 순애가 군관학교를 졸업한 한마을 동창생인 김성호와 결혼을 하고 부대로 떠나간것은 십여년전의 일이었다.

그런데 작년봄 군사임무수행중 왼쪽다리를 잃고 영예군인이 되어 제대된 남편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줄이야. 그때는 이미 흩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시부모도 만시형을 따라 도소재지로 옮겨간 뒤라 그들이 거처할만 한 집이 없었다.

새집을 지어줄 자리가 문제였는데 마침 리훈섭의 집 착 옆에 굵은 돌배나무 한그루를 등진 공지가 있었다. 이마골분조 창고가 몇년전에 작업반으로 옮겨가면서 생긴 빈 자리였다. 아껴오던 그 자리에 온작업반이 달라붙어 터를 닦고 열흘 사이에 새집을 번듯하게 지어주었다.

《자, 이 집에서 편히 지내며 남호 아버지나 잘 돌보라구.》

《아이참, 저두 농사를 지어야지요 뭐.》

리훈섭이 거듭 만류했으나 류순애는 인차 이마골분조에서 일을 시작했고 한해농사를 짓고나서는 분조장으로까지 임명된 것이었다.

파아랑게 들린 하늘가득 눈부신 봄별이 쏟아져 내리며 거무스레 뒤편저진 포전들마다에 실날같은 아지랑이를 피워올리고있었다. 머리위로 즐겁게 날아에는 새들과 길가에 파릇파릇 돌아난 새싹들, 얼굴에 와닿는 가벼운 바람결마저 바쁜 농사철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듯싶었다. 리훈섭은 저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약동하는것을 느끼며 발디디개에 힘을 주었다. 자그마칙한 논밭들이 랑옆으로 흘러가더니 언덕길어구가 나타났다. 자전거는 언덕길로 오르면서 속도를 늦추다가 서서히 멎어버렸다. 여기서부터는 경사가 급하기때문에 자전거를 끌고 언덕우에까지 올라가야 한다.

비슷하게 생긴그 반대편길로 내려가면 이마골마을이 자리잡고있고 리훈섭의 집과 5분조 논밭들이 있었다. 방금 지나친 논밭들도 류순애네 분조 경지면적이였다. 언덕우에서 왈차지떨 떠드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모습이 얼른거렸다. 그곳까지 이른 리훈섭의 길너부족한 얼굴근육이 팽팽해지고 굵다란 눈섭이 꿈틀거렸다. 뜻밖에도 류순애와 분조원들이 곡괭이와 삽을 휘두르면서 언덕을

파고있는것이 아닌가. 소달구지들이 흙을 싣고 연방 너머 먼 길아래로 내려가고있었다. 대체 무슨 똥판지같은 일이란 말인가? 지금쯤이면 봄보리와 종면적으로 찍어준 마을앞 샘들밭에서 봄비고있어야 할 이들이 아닌가. 율기가 뻗친 모습으로 우뚝 서있는 그의 곁으로 류순애가 재빨리 다가왔다.

《반장동지 오셨어요? 미처 토론을 못해서 안됐습니다. 언덕을 몇미터정도 낮추고 급한 경사를 완만하게 만들자고 그래요. 이젠 봄철이여서 여기로 트랙토르와 소달구지들, 사람들이 더 많이 넘나들고있는데 이 급한 경사때문에 손heel 보구있잖나요. 트랙토르는 쓸데없이 기름을 더 태우구 소달구지는 더 실을수 있는 짐도 못 싣고있어요. 사람들도 여러모로 불편을 받구있구요. ...》

이때 분조원들속에서 《쌍둥이엄마》라고 불리는 안광숙이가 그 오동통한 몸집을 쏙 내밀고 참네를 했다.

《반장아바이두 이자 자전거에서 내렸지요. 래일부턴 아마 끝까지 타고 올라와 집에까지 쭉 타고 내려갈거예요.》

리훈섭은 그제야 무뚝뚝하게 말문을 열었다.

《그렇다면 량옆으로 흙을 파제길노릇이지 실어가는건 또 뭐가?》

류순애가 샘들밭을 가리켰다.

《저기로 퍼자구 그래요. 저곳은 땅이 습하기때문에 해마다 두둑들을 짓고 봄보리를 심어왔더군요. 그런데 가만 살펴보니 두둑들을 짓느라 생긴 도랑이 여러개나 되는데 합치면 신나문평은 될거예요. 그 도랑들을 좀더 깊이 파고 돌들을 깎다 음 발전체에 두툼히 흙을 퍼면 도랑들을 없애면서도 얼마든지 봄보리를 심어가꿀수 있을것 같어요. ...》

《...》

리훈섭은 할말이 없어졌으나 불몽치같은것이속에서 치밀어오르는것을 느꼈다. 저 샘들밭과 이 언덕길로 말하면 리훈섭이가 류순애이상으로 관심을 돌려온 대상의 하나였던것이다.

샘들밭은 단작으로 수수나 심던 땅인데 리훈섭이 이마골분조장을 할 때 두둑들을 짓고 여러개의 물빠기도랑을 파놓아 앞그루론 봄보리, 뒤그루론 들깨를 심어가꿀수 있게 만들어놓았었다.

언덕길도 마찬가지였다. 밑에 있는 밭 한가운데로 빙 에돌아 좁은 소로길이 나있던것을 역시 그가 그 시절에 끈주 퍼서 큰길처럼 닦아놓았고 언덕우엔 쉽터까지 멋들어지게 만들어놓았던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또 제 식대로 변화시키려는 류순애의 처사가 솔직히 리훈섭이로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고 언짢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것이였다. 하지만 분조원들이 보는 앞인지라 그는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여보이면서도 또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정 하고싶었으면 좀 한가한 겨울에나 할게지 이틀후가 어떤 날인지를 잊었나?》

《저두 그런 생각을 해보았었어요.아마 그때 했더라면 열흘은 더 걸렸을거예요. 반장동지, 방

식상학준비는 조금도 걱정말고 어서 가보십시오.》

류순애는 안심하라는듯 그 작은 입술을 열어방긋이 웃어보였으나 리훈섭은 체했을 때처럼속이 무죽해났다. 사업을 시작한지 웅근 석달도 못된 햇내기분조장이 벌써부터 제맘대로 일을 벌려놓다니? 그에게는 왜서인지 작년 초여름에 있었던 일이 생각키웠다.

... 어느날 저녁 느즈막하여 마을에 들어선 리훈섭은 옆집을 지나치다가 자전거와함께 주춤 서버렸다. 전등을 내다걸었는지 대낮처럼 환한 마당가에서 벽적거리리는 소리가 울려왔던것이다.

리훈섭은 웬일인가싶어 기웃이 담장을 넘겨다보았다.

(아니, 저런?...)

류순애를 선두로 하여 남호, 남혁, 남진 세 아들이 왼쪽 부속건물에 달라붙어 한창 허물고있는것이 아닌가. 남편인 김성호도 지팽이를 끌고앉아 못뽑이로 공공 못을 뽑고있었다. 리훈섭의 길너부죽한 얼굴에서 붉은 눈섭이 연방 꿈틀거리고 그림의 휘둥그런 눈동자는 당장 튀어나올듯 커졌다. 저렇게 잘 지어준 부속건물을 허물다니?

저 왼쪽건물은 자기가 직접 자까지 대가면서 정성껏 미장질을 하여 완성한것이였다. 리훈섭은 팽개치듯이 자전거를 담장벽에 세워놓고 벌컥덕대문을 열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영!》

김성호가 지팽이를 짚고 얼른 일어섰다.

《어서 오십시오. 이거 정말 미안하게 됐어요.》

옆에 다가온 류순애가 말을 이었다.

《반장동지, 사실... 우리 집엔 부속건물이 돌씩이나 있을 필요가 없어와서 그래요.》

《필요없다니?》

《이 건물엔 작업도구와 땀감을 넣어두는데 그건 저 오른쪽 부속건물 한칸이면 충분해요.》

《저기에야 집짐승들을 넣지 않았나?》

《집짐승우리들을 한칸 줄이고 대신 다락식으로 짓자고 해요. 말하자면 웃츠엔 닭, 가운데츠엔 토끼, 맨밑엔 돼지를 기르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는 뭘에 쓰자는건가?》

《우리 마을에 부족한 땀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탄가스탱크를 설치하자고 그러니다.》

김성호가 빠르고도 박력있게 대답했다.

《그러면 땅리용틀도 거름리용틀도 다같이 높이는것으로 된답니다.》

《음, 메탄가스라...》

리훈섭의 목소리가 쏙 잦아들었다. 불현듯 자기가 메탄가스화를 실현하기 위해 뛰여다니던 때의 일이뇌리를 스쳤다. 끝내 성공하지 못한 그 일을 이들이 벌려놓다니?...

허나 류순애는 그후 기계화작업반에 자주 오가면서 남편과 함께 기어이 메탄가스곤로에 불을 지피고야말았다.

그때 리훈섭은 주어진 조건에서 시키는 일이나 수직수직 하던 처녀시절의 그 아련하고 조용하던 류순애가 아니라 뭔가 엉뚱하게 결심하고

이악하게 실천할줄 아는 그런 창조적이고 활동적인 인간으로 새롭게 변모된 류순애를 보듯 하여 크나큰 놀라움을 금할수가 없었었다. ...

하지만 집일과 분조는 엄연히 다르다. 제 집이니 제맘대로 뜯어고칠수 있지만 분조일이야 어떻게 그런식으로 할수 있는가. 분조장은 분조의 한해농사의 운명을 걸머진 매우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것만큼 매사에 심중해야 한다. 더우기 이마골 분조는 이 리훈섭이 오랜 세월 맡아가지고 해마다 농사를 잘 지어온 분조로서 오늘도 그 성과를 이어가야 나로서도 떳떳하고 긍지로울것이 아닌가. 하지만 일단 벌려놓은 일이니 이제 중지하라고 말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는 농장적인 방식상학을 그르치면 큰일난다고 두번째번 오금을 박고나서 그 자리를 떴다. 그런데 다시 일을 시작하려던 류순애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다급히 다가와 리훈섭의 자전거를 붙어잡는것이였다. 《참 반장동지, 전번에 말한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뭘 말인가?》

《버들논을 콩밭으로 만드는 문제 말예요.》

리훈섭은 그제야 생각난듯 눈을 껌벅거렸다.

며칠전 저녁이였다. 퇴근시간이 좀 지나 집에 돌아오니 웬 천주머니같은것을 손에 든 류순애가 대문가에 서서 기다리고있었다.

《저... 반장동지, 오후 설참에 쌍둥이엄마랑 분조원들이 하는 말이 예나 지금이나 버들논의 수확고가 낮은것이 안타깝다면서 콩을 심어보자고 하는것이 아니겠어요. 저두 이상한 느낌이 들어 새로 배치된 기술원과 함께 그곳에 나가 토양분석을 해보고 방금 들어오는 길이에요. 헌데 정말 그 땅은 엄격한 의미에서 벼재지가 아니라 콩적지였어요. 이것을 반장동지두 잘 아실텐데 어째서 계속 벼를 심어왔는지 모르겠군요. 더우기 이 한정보의 논을 적시려고 수로를 길게 파놓은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밭으로 만들고 콩을 심는것이 실리적이라고 봐요.》

천주머니안의 흙까지 내보이며 류순애가 담담한 어조로 하는 말이였다. 순간 리훈섭은 속으로 와뜰 놀랐다.

(류만식의 외동딸인 임자가 감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나두 몇년전부터 그걸 알고있네. 하지만 우선 먼저 한 애국자에 대한 의리를 더 귀중히 여겨야 하지 않을까. 꼭 짚어 말한다면 임자 아버지에 대한 의리 말일세.》

이렇게 말하자고 했으나 그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가 새어나왔다.

《면적두 얼마 되지 않는데 거 뭐 콩이나 팔이나 파질게 있나. 그냥 벼를 심자구. 또 이제부턴 봄철영농공정에 계획된 일만 하해도 숨이 찰텐데 언제 그런걸 불안고 씨름할새가 있나.》

그런데도 류순애는 끈질기게 매여달렸다.

《야, 전 따져야 한다구 생각해요. 물론 면적은 크지 않지만 그렇게 제구실을 못하는 땅이 매 작업반, 매 농장에 천평씩만 있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낱알을 잃어버리는것으로 되겠나

요. 그러니 꼭... 참, 콩을 심어도 재래종이 아니라 다수확품종의 새 콩종자를 심자요. 그건 제가 꼭 구하겠으니 반장동진그저 그 문제를 관리위원회에 제기하여 승낙만 받아주세요.》

(허 이걸 어쩐다?)

희망과 열정, 절절한 빛을 가득 담고 자기를 바라보는 류순애의 그 눈길을 느끼자 리훈섭은 그렇게 해보자고 슬쩍 지나가는 투로 대답했던것이다.

《음, 일이 바빠서 그만 잠깐 잊었됐네. 하지만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방식상학일세. 그것부터 착실히 끝내고 보자구.》

리훈섭은 그의 입에서 더 다른 말이 나오기를 저어하는듯 자전거에 훌쩍 뛰어올랐다. ...

이들후 방식상학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리훈섭은 강가에 세워놓은 아이처럼 이마골분조가 한시도 마음놓이지 않았다.

## 2

원래 이마골은 예로부터 땅이 척박하기 이를데 없고 뭐나 다 바른 고장이여서 여기 평산리적으로도 제일 사람못살 곳으로 일러왔다. 하도 짜지게 못살고 가난하여 자주 다른 고장 사람들한테 빚을 지곤 했는데 빚꾼들이 빚받으러 왔다가 허탕치고 돌아가는 경우가 드문했다.

《왜 빚을 못 받아가지고 돌아왔소?》하고 물을 라치면 《허, 서밭막대기 휘둘러도 거칠것이 없는 살림에 무얼 받아가지고 온단 말이요. 이마나 받을런지...》하며 쓴웃음을 지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이 마을 사람들한테 빚을 지우는 일뜨기들을 가리켜 《잘 논다. 이마나 받으라.》고 했다는것이였다. 지주들이 독차지한 땅밖에는 아무것도 없이 빈번하고 발딱한 이마처럼 지형 또한 그렇게 생겨먹었다. 산도 강도 바다도 없고 그리크지 않은 언덕이 하나 있을뿐 산지사방이 논 절반, 밭 절반으로 되어있었다. 그 언덕밑에 오늘은 서른세대가량의 집들이 나란히 들어앉아있었다.

아직까지 유일하게 빈땅으로 남아있다면 한정보가량 되는 그 버들논이였을것이다. 타고장사람들한테는 구미가 동하지 않을 고장이지만 리훈섭이로서는 크나큰 애착심을 가지고 정을 부어왔다.

이마골의 구석구석과 작은 창조물 하나에도 그의 더운 땀이 깃들여있고 부지런한발걸음과 애뜻한 손길이 닿아있었다. 그런 긍지와 자랑으로 하여 그는 반장이 된 오늘에도 작업반가까이로 집을 옮기지 않고 그냥 여기서 살고있는것이였다. 안타까운것이 있다면 아직도 이마골이 다른 고장보다 못한 그것이였다.

그래서 더욱 이마골농사가 걱정되어 그는 이날 오후에도 자전거를 타고 작업반실을 나섰다.

간밤에 알맞추 비가 내려서인지 대지는 축축히 젖어있었고 여기저기에 새파랗게 널려있는 밀밭들은 한결 더 생신해보였다.

밝은해빛에 시그러워나는 눈을 슬며시며 휘둘러보니 작업반주변의 여러 분조 포전들에서는 감자심기로 불이 붙었다.



날씨도 쾌청하고 기분도 좋다. 아무 포전이라도 건듯 들어서서 한바탕 땀을 쏟고싶다.

아침에 분조장들을 모여놓고 오늘 저녁까지 무조건 감자심기를 끝내야 한다고 그루를 박았었다.

모두가 기세충천한걸 보면 저녁에 땀뻘한 보고를 안고 관리위원회에 갈것 같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마골분조가 속에 걸려 떠난 길이었다.

얼마후 이마골언덕밑에 이르렀을 때 덜컹덜컹 하는 소리가 나더니 밭디디개가 짹 굴어진듯 돌지 않았다. 자전거에서 내린 그는 길가녁에 쭈그리고 앉아 가름대에 늘 매달고다니는 수리공구로 사슬통을 뜯기 시작했다. 손에 기름칠을 해가며 반시간 가까이 수리작업을 하고있을 때였다.

자전거짐틀에 뭔가 잔뜩 실은 애송이청년이 옆으로 쏜살같이 지나가며 소리쳤다.

《반장아바이, 이젠 그 낡은걸 버리고 새걸 타시라요, 썩썩 나가는거.》

고개를 돌리며 힐끗 쳐다보니 기계화작업반에서 일하는 녀석이었다. 요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둘 아니다. 특히 젊은이들속에서 리훈섭의 이 자전거를 두고 말들이 많다. 이제는 짐도 적게 싣고 시간만 낭비하는 자전거라니, 원래 성질이 급한축인 반장한테 늘어빠졌다는 소리를 듣게 하는 자전거라니... 그때마다 불끈불끈 일어나는 속을 겨우 눌러앉히곤 하는 리훈섭이었다.

이 자전거로 말하면 류순애의 아버지 류만식이 오래전에 상으로 탄것을 새것채로 그에게 넘겨준것이었다.

《이건 나보다도 분조장한테 더 필요한 물건일세. 이걸 타면서 우리 이마골을 위해 많은 일을 하길 바라네.》

류만식의 간절한 부탁이었다. 그때부터 이 자전거와 함께 정말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던가.

때없이 포전길도 달리고 회의도 가고 읍으로 나가고 짐틀에는 종자와 비료, 작업도구, 지어는 풀단과 거름 못 실리는것이 없었다. 그 나날에 그는 농사를 잘 지어 훈장과 메달도 타고 신문에도 여러번 났는데 리훈섭은 이 모든것을 류만식의 덕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이제 이 자전거를 버리면 류만식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는것만 같아 계속 이 자전거에 곁같은 미련이 가는지도 몰랐다. 얼마후 자전거수리를 끝내고 이마골언덕우에까지 애써 밟아오른 그는 두대의달구지가 어물거리는 것을 보고 얼른 자전거를 세웠다.

류순애네 분조 소달구지들이었다. 남정 둘과 《쌍둥이엄마》가 전번에 흙밭에 쓰다남은 진흙을 연방 삽으로 떠서 달구지에 싣고있었다.

《아니 감자심기는 안하구 여기서 뭇들 하구있소? 엉!》

안광숙이가 살짝 눈웃음을 치며 삽자루를 세워잡는다.

《이제 진흙을 싣고 읍에 나갈 달구지들이예요. 앞으로 비가 오면 짓쳐내릴 흙도 처리할걸...》

《?...》

《감자를 심다가 1톤가량 거름이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분조장이 점심참에 읍길을 했대니까요. 가두녀성들에게 호소하여 도시거름을 모아 놓도록 조직사업을 하고 왔대니까요.》

《흠, 내 이럴줄 알았대니까.》

새해에 잡혀 한해농사계획을 세울 때 류순애는 분조의 두벌농사면적을 늘여 감자를 더 심겠다고 제기했다.

《5분조장, 생각은 좋은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세. 이전해들만큼 심어가꾸재도 숨이 찰거네.》

《두벌농사야 많이 할수록 좋은거지요 뭐. 로력은 우리가 좀더 애쓰면 될게구 종자와 거름은 어떻게 하나 해결해보겠어요.》

류순애가 거듭 제기하는 바람에 리훈섭은 그닥 내키지는 않았지만 관리위원회와 토론하여 그의 제기를 승인하고말았다. 후에 알고보니 류순애는 자기가 있던 부대에까지 편계를 가지고 새 품종의 감자종자를 적지 않게 구해들었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거름만은 충분히 장만해놓지 못한 모양이었다.

《오늘 저녁까지 감자심기를 전부 끝내고 래일 부런 벼령상모판씨뿌리기에 들어가야 할텐데 이리구들 있으면 어떠한단 말인가?... 내 참, 그런데 거름실러 나가겠으면 빨리들 나갈게지 진흙은 왜 실소?》

《공연히 빈달구지은행할게 있나요. 그 가두녀성들이 무슨 꾸리기작업을 하는데 진흙이 필요하대요. 야, 우리분조장은 항상 뽕먹구 알먹구 등지털어 불때는 식으로 머리를 요렇게 뱅글뱅글 돌린다니까요.》

성수가 뻗친 안광숙은 두손을 오무려 살살 굴리는 흉내까지 냈다.

《그리구 말예요. 땅은 못 속인대구 아무리 바빠도 널건 체대루 내고 심어야...》

《됐수다. 아주머닌 남이 아이 하나 낳을 때 들썩이나 낳더니 말도 끝이나 많아진게 아니요?》

리훈섭은 안광숙의 말을 중도에서 잘라버렸다.

잇달아 자전거를 끌고 달구지들결을 썩 지나쳤다. 팔자늘어지게 진흙까지 싣고 거름실러 가겠으면 가고 자기는 어서 분조장을 만나 긴급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펄쩍 들었던것이다.

《반장아바이두 참, 내가 아들쌍둥이를 낳은건 일거량득이 아니고 뭐예요. 산전산후휴가 한번에 아들 둘을 낳았으니, 호호.》

안광숙의 익살스러운 소리가 또다시 주의를 분산시킨다.

(헛참, 점점 류순애를 싫어간다니까...)

이미 내리막길에 들어섰으니 리훈섭은 자전거를 끌고 걷기 시작했다. 저도 모르게 두서없는 회상에 빠져들었던것이다.

작년 마가을 어느날이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던 리훈섭은 담장모퉁이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류순애네 집 뒤뜨락에서 유정한 말소리가 울려왔던것이다.

《... 이게 수확이 높다는 새 품종의 키낮은 사과나무들이라지요?》

안광숙의 목소리였다.

《그래, 부대에 있을 때 심어보니 3~4년만에 사과가 달리는데 수확이 괜찮았어.》

《야, 남호 엄만 어쩔 그렇게도 실천력이 강할가!》

리훈섭은 안광숙이가 왜 저런 감탄을 하는지 짐작이 갔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저기에는 사과나무들대신 굵은 돌배나무 한그루가 서있었다.

거무튀튀하고 고작아보이는 가지들을 얻기설기 뻗치고있던 그 나무는 리훈섭의 할아버지대에 심은것이였다. 지금은 집집마다 살구,포도, 복숭아와 같은 과일나무들이 몇그루씩 있지만 류순애가 갓 태어났을 때만 하여도 마을에는 이 나무가 둘도 없는 과일나무였다. 리훈섭은 마을에 과일맛을 풍겨주는 이 돌배나무를 그 누구보다도 귀중히 여기고 정성껏 관리해왔다. 하지만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수확량이 쪼끔 줄어들었다.

헛헛그런 나무밑은 마을아이들의 놀이터로, 무더운 여름날 농장원들이 땀을 들이는 장소로 되고있었다. 언젠가 안광숙이 이제는 늙고 병약하고 열매도 적게 달리는 이 나무를 찍어버리고 곡식이나 몇포기 더 심는편이 낫다고 말한적이 있었다.

《무슨 소리 해! 아직두 열매를 따는 나무를 망탕 찍다니, 안돼!》

리훈섭이 켜 소리치는통에 안광숙은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르려리고말았다. 그런데 엇그제 휴식날 저녁 류순애가 리훈섭을 찾아왔다.

그의 한손에는 비닐로 뿌리를 꾹꾹 감싼 과일나무모가 들려있었다.

그는 리훈섭을 가웃이 쳐다보면서 머뭇거리기만 했다.

《어서 말하게. 내앞에서야 뭘 어려울게 있나.》

그제야 류순애는 자기 집뒤의 돌배나무를 찍고 그 자리에 새 품종의 키낮은 사과나무를 심으려 한다고 터놓는것이였다.

《두루 알아보다가 야산이 많은 화삼리 과수작업반에서 그런 사과나무모들을 키운다기에 거길 갔다오는길이에요.》

리훈섭은 목덜미가 불그래져 선뜻 대답을 못했다. 웬일인지 안광숙이한테처럼 켜 소리칠 용기가 생기지 않았던것이다. 속으로 끽끔거리던 그는 《허, 누구 눈치볼게 있나. 그 나무의 주인이야 이제 입잔데 찍으면 찍는게지.》 하고 대범한 투로 말해버렸다. 설마 찍기야 하겠는가고 생각했는데 웬걸 얼마후 우지끈 푹푹하고 나무넘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뒤창가로 내다보니 류순애는 벌써 구덩이를 파고 아이들은 도끼와톱으로 나무가지들을 다듬고있었다. 김성호까지 지팽이를 짚고나와 미끈하고 뽀뽀한 가운데기둥을 가리키며 제재톱으로 잘 켜서 분조소농기구를 만드는데 쓰자고 말하고있었다. 리훈섭은 자기 몸을 도록내는듯 한 아픔을 느끼며 방안을 왔다갔다하기만 했다. ...

《쌍둥이엄마, 내 생각엔 제집 살림에서 큰 실리를 얻는것도 중요하지만 분조농사에서 더 큰 실리를 얻는것이 첫째라고 봐. 앞으로 날 많이 도와줘. 분조실태랑 농사경험이랑 속속들이 이야기 해주구...》

《아이참, 무슨 소리. 내가 오히려 남호 엄마한테서 많이 배워야 하겠는걸요.》

작년 한해농사를 총화하고 분조편성을 다시 할때 류순애가 이마골분조장으로 임명되자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이 바로 안광숙이였다. 분조장이 되기전에도 류순애와 붙어다니기를 좋아하던 안광숙은 그가 분조장이 되자 더욱 성수가 나서 분조일에 앞장서고있었다. ...

어느덧 이마골에 이르렀다. 심다만 감자밭은 웬하니 비어있고 분조원들은 바람막이바자를 알뜰히 둘러친 저쪽모퉁에서 일하고있었다.

(혹시?...)

며칠전 모판 만드는 작업을 할 때 류순애는 버들논에 한한 모판은 전혀 생각지 않고있었다.

《글쎄 버들논을 콩밭으로 만드는 문제를 관리위원회에 제기했다 해도 결과는 두고봐야 알 일이니 그러지 말고 모판들을 만들게. 우선 많이 붓고봐야 하네. 남으면 다른데 주면 되는게구.》

《그래두 귀한 벼종자를 망탕 랑비하면 되겠어요? 관리위원회에서도 제기를 받았으면 꼭 승낙할거예요. 제 벌써 부대에 콩종자를 해결해달라고 편지까지 띄웠는걸요.》

《뭐라구? 허허. 농사군이 군데한테 콩종자를 주면 족지 군대가 농사군한테 콩종자를 주다니? 안될 말이지. 그건 그거구 만일을 생각하여 모판들을 만들고 보자는데.》

리훈섭이 너무 우기는 바람에 할수없이 그 모판까지 만들어놓았던것이다.

그걸 없애지 않았나 해서 모판안에 들어가보니 다행히도 그대로 있었다. 분조장을 부르려는데 그가 먼저 알아보고 냉큼 뛰어왔다.

《우리 분조 감자심기때문에 오셨습니까? 심다가 거름이 떨어져 중지했어요. 두대의 달구지를 읍에 내보내고 시간이 있더라니 모판정리를 다시 하고있는중이에요.》

《음, 오늘 아침 내 뭐라고 말했드라?》

《저녁까지 무조건 감자심기를 끝내야 한다구...》

《그런데 이게 뭔가? 도대체 어찌자는건가?》

리훈섭은 저녁에 관리위원회에서 있게 될 반장들의 모임에서 필경 중지 못한 소리를 듣게 될 자신의 딱한 입장을 두고 섭섭한 말이 막 입밖으로 튀어나가는것을 겨우 삼켜버렸다.

잠시 남당이같은 무거운 침묵이 주위에 퍼돌았다. 흙먼지가 보양게 오른 로동화 앞코숭이만 내려다보고 섰던 류순애가 연한 분홍꽃머리수건을 쓴 머리를 들었다.

《저두 처음엔 있는 거름을 조절하여 남은 면적을 채울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지만 다음순간 분조원들의 눈길이 그리고 제 량심이 그걸 허락치 않더군요. 앞그루작물도 뒤그루작물도 다 잘되

게 하여 총적인 수확을 올리자구 두벌농사를 짓는것인데 그렇게 손쉽게 일할바에야 두벌농사를 지어선 뭘하겠어요.》

《그만하게. 난 5분조장이 이제라도 이 반장의 심정을 이해할줄 알았는데 너무하단 말일세. 거름 보충이야 감자가 클 때라도 물거름을 주는 방법으루 할수 있을텐데 뭘 그다지...》

《그래두 감자야 생육기일이 짧은 작물이 아니예요. 밑거름을 잘 내여 초기생육부터 좋아야...》

(아이쿠 그놈의 고집!) 이어 《됐네. 할수없다면 할수 없는게지. 내 눈 꼭 감고 한번 욱먹으면 그만이지.》하고 노엽게 내뱉고난 리훈섭은 껍 돌아섰다. 몇걸음 따라서며 류순애가 찾았건만 그는 돌아보지 않고 씨익씨익 걸어가기만 했다. 두손을 펼친채 달려갈듯이 서버린 류순애의 검은 눈가에 야속한 눈물이 핑그르 고여오르는것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날 밤, 펍 늦어 집에 돌아와 밥상을 물리고 갔을 때였다. 로친이 밖에서 누가 찾는다고 하기에 나가보니 류순애가 머리수건을 만지작거리며 서있었다.

《저... 방금까지 감자심기를 전부 끝냈어요.》

결국 보고하러 온것이였다. 좀전에 집으로 올때 리훈섭이도 5분조 감자밭에서 해불망치들이 황황 타오르는것을 보았었다. 아직도 차거운 밤대기속에서 늦도록 고생하는 그들이 속에 걸려가 보려고 했으나 관리위원회에서 욱을 먹고 오는지라 패심한 생각이 다시 갈마들어 그냥 지나치고 말았던것이다.

《수풀 됐네. 앞으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길 바라네.》

리훈섭은 크지도 작지도 않게 대꾸했다.

허나 갈수록 험산이라고 그로 하여 더 큰 일이 생길줄이야. ...

### 3

봄은 한창 무르녹고있었다. 이마골마을은 어느새 구름처럼 피어난 연분홍살구꽃속에 묻히여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검푸른 밀밭, 연푸른 보리밭, 한창 싹터자라는 감자밭들이 어울려있는 앞벌 또한 볼수록 상쾌한 감을 자아내고 새힘을 북돋아준다. 그 앞벌 한쪽에 자리잡은 5분조 모판에서는 요즘 벼랑상모판씨뿌리기로 해종일 들끓고있었다. 농장원들의 떠들썩한 웃음과 흥겨운 노래속에 하얀 비닐막막들이 눈부신 해빛을 받아 큰 거울처럼 번쩍거린다.

리훈섭은 한해농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영농공정인 이 작업에 사소한 빈틈이라도 생길세라 이분조, 저 분조로 분주히 뛰어다녔다. 특히 이마골분조에 남다른 관심을 돌리고 자주 나가 일도 하고 걸린 문제도 풀어주곤 했다. 하여 작업반적으로 5분조가 벼랑상모판씨뿌리기를 제일 먼저 끝내가던 어느날 오후였다. 갑자기 군에서 진행하는 회의에 참가했던 그는 땀시쫄 되여 작업반에 들렀다가 나른한 몸으로 이마골언덕을 넘었다. 그리고는 길가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5분조모판으로 갔다.

벌써 일이 끝났는지 분조원들은 보이지 않고 모판관리공으로 임명된 안광숙이가 지금껏 부은 모판들에 나뉘를 썬우고있었다. 그에게 물어보니 좀전에 일을 끝내고 모두들 집으로 들어갔다는것이였다. 리훈섭은 어렵짐작으로 나머지 빈 모판들을 여겨보았다. 서천하늘을 바라다보니 아직 해가 남아있었다. 그런데 벌써 헤쳐가다니... 다음순간 래일 하루 부지런히 다그치면 저 모판을 제낄수 있고 그러면 이 5분조가 작업반적으로 맨 첫자리를 차지한다는 생각이 들어 모판에서 나오고말았다. 반장으로서 이쯤한거야 이해할수 있지 않은가, 나도 오늘은 별로 피곤하고 힘든데 어서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일찍 쉬어야겠다.

이러며 집마당에 들어선 그는 코를 벌름거렸다.

열려진 부엌문으로 구수하면서도 향긋한 쑥냄새가 풍겨왔던것이다. 부쩍 시장기를 느낀 그는 어쩔 하며 부엌문가로 다가갔다.

《헛쑥을 뜯어다가 쑥떡을 빚었수다. 자시고싶어도좀 참고 옆집에부터 먼저 가져다주시우.》

로친이 그릇에 무드기 담겨진 연꽃색의 자를 자름하면서도 쫄깃쫄깃해보이는 쑥떡들에 기름을 찰찰 발라 작은 그릇에 옮겨담으면서 이르는 말이였다. 얼마후 그는 로친이 넉넉 안겨주는 쑥떡그릇을 들고 옆집으로 갔다. 그가 마당에 들어서는데 줄도 모르고 김성호가 토방에 앉아 따룩 따룩 손새끼꼬는기계를 돌려 새끼를 연방 뽑아내고 있었다. 안해가 분조장이 된 후부터 잠시도 가만 있지 않고 더욱더 부지런히 분조일을 돕고있는그였다.

《그러지 말고 쉬라는데 늘 이러누만.》

《반장동지 오셨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몸을 놀려야 건강에도 좋은걸요.》

김성호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환히 웃었다.

리훈섭은 감심하며 쑥떡그릇을 부엌안에까지 들여와주었다.

《그래 요즘 생활하는데서 불편한게 뭐 없나? 있다면 감추지 말고 어서 이야기하게.》

《온 마을, 온 농장이 관심을 돌려주어서 정말 아무 불편없이 살고있습니다. 반장동지두 또 이렇게 맛있는 쑥떡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허허, 별게 아니네. 아이들과 함께 맞이나 보라구. 현대 남호 에미가 보이지 않누만.》

《예, 아까 들어오기 바쁘게 염산군에 갔다오겠다고 하면서 지름길로 떠났습니다.》

《영?...》

의아해하는 리훈섭에게 김성호는 점심때 우편통신원이 가져다준것이라고 하면서 전보 한장을 꺼내놓았다.

《류순애야. 오늘중으로 염산읍 10반 최석환의 집으로 급히 올것. <바위굴>로부터.》

《허, 이건 무슨 암호문같은. 최석환이란 누구며 <바위굴>이란 또 무슨 뜻인가?》

《글세 저두 무슨 감투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가보겠다고 하기에 승낙은 했지만...》

리훈섭은 풀지 못할 의혹을 안은채 돌아서고 말았다. 염산군은 이웃군으로서 읍까지 거리는 아무리 지름길을 탄다 해도 삼사십리가 잘된다.

그 먼길을 알지 못할 정보 한장때문에 싯뜻 떠나다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늠이 가지 않았다. 다음날 이른새벽 옆집에서 개가 경경거리고 아이들이 벽작 떠드는 소리에 리훈섭은 잠에서 깨어났다. 류순애가 돌아온 모양이었다. 리훈섭은 건너가보려다가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을 그가 벌써 잠자리에 누웠을것 같아 단념하고 일찌기 출근길에 올랐다. 그는 작업반실에서 뒤시간 일을 보고나서 다시 이마골로 향했다. 오늘 마지막 벼씨뿌리기전투를 하게 될 그 분조에 가서 흠뻑 땀을 흘리고싶었던것이다. 더우기 류순애가 한껏쫄 못 나올수도 있으니 자기라도 잘 봐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그런데 이때 자전거가 또 심하게 고장나는 바람에 그는 그것을 작업반실 마당에 그냥 세워놓고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왜서인지 마음이 불안해났다. 그는 정강이가 뻗뻗해지도록 급히 걸었다. 어느덧 이마골언덕우에 올라선 그는 5분조모판부터 살펴보았다. 단박 휘둥그런 그의 눈이 더욱 커다래졌다.

분조원들의 그림자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안광숙이만이 모판들사이를 암광지게 오가며 제 할 일을 하고있었던것이다. 리훈섭은 한달음에 그곳으로 달려가 버럭 소리질렀다.

《벼씨뿌리기는 마저 안하구 모두들 어딜 갔어?》

《아니, 그 일이야 어제까지 말짱 끝내지 않았나요?》

안광숙은 무슨 소릴 하느냐듯 눈을 울롱 치켜떴다.

《끝내다니? 그럼 저 모판은 붓지 않겠다는건가?》

《반장아바이두 참, 벼들논을 콩밭으로 만든다는걸 잘 알면서도 그러시네. 어제 밤 우리 분조장이 염산읍에 가서 새 콩종자까지 가져온걸 아직 모르시나요?》

펄쩍 놀라다못해 아연해진 리훈섭의 그 얼굴 표정에는 아랑곳없이 안광숙은 자랑스럽게 덧붙였다.

분조장이 콩종자때문에 자기가 있던 부대에 편지를 띄웠는데 부대자동차가 임무수행중 염산읍을 지나가면서 길가에 있는 최석환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것을 부리워놓고 전보를 쳤다는것, 분조장이 한밤을 꼬박기 새우며 그것을 두개의 배낭에 지고 간산신고를 하여 예까지 날라왔다는것 그리고도 또 제시간에 출근하여 오늘 계획한 울강냉이파종을 지휘한다는것, 이제부터 찹찹이 벼들논을 콩밭으로 만드는 일을 진행한다는것...

(이 녀자가 끝내...)

리훈섭은 그만 입을 껍뻍 다셨다. 사실 그는 지금껏 벼들논을 콩밭으로 만드는 문제를 관리위원회에 제기조차 하지 않고있었던것이다.

감감 잊어먹었거나 일이 바빠 그런것은 아니었다. 그럴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하지만 그때

마다 30여년전의 일이 그의 입에 빗장을 내리지 르곤 했다. 리훈섭에게는 이 순간 또다시 그때의 일이 어제런듯 생생히 떠오르는것이였다.

... 초봄날의 어느 휴식일이였다. 리훈섭은 집일을 제쳐놓고 수리분조에 가서 품놓아 호미를 버렸다.

저녁녘에야 무거운 호미두름을 어깨에 메고 마을로 돌아온 그는 래일 나눠줄수도 있었지만 그길로 집집을 다니기 시작했다. 류만식의 집에 이르니 안해만 있었다. 남편이 아침에 삽과 곡괭이, 밭파를 가지고 벼들판에 나가 해종일 들어오지 않기에 아까 순애를 내보냈는데 그마저 쏜 총알이라는것이였다. 리훈섭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얼마후 벼들판으로 재우쳐갔다. 쑥대밭처럼 어수선해보이는 그곳이 점점 가까와지자 두 그림자가 움직이는것이 보이고 도란도란 말소리가 울려왔다.

《... 헌데 우리 이마골엔 새땅예비가 이것밖에 더 없는게 안타깝구나.》

《야 아버지, 우리 이마골땅은 왜 이렇게 좁을가요? 난 우리 이마골땅을 더 크게 넓히고싶어요. 그럼 더 많은 낱알이 나오구 우린 더 잘살게 아니나요.》

《허허, 그런 꿈을 다 꾸구. 정말 용쿠나. 이 아버지도 뭐나 다 할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그것만은 안될것 같구나. 지구가 생겨날 때 우리 이마골을 요만큼 만들어준걸 어떻게 넓힌단 말이냐? 간석지라도 끼고있다면 또 몰라두...》

리훈섭은 지금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있는지 어렵지 않게 알아차렸다. 공감은 되었으나 머리를 저었다.

《순애 아버지!》

뜻밖에 나타난 분조장을 보자 그는 일손을 멈추고 몹시 반가와했다.

《마침 잘 왔네. 이걸 좀 보라구.》

류만식은 캐낸 벼들뿌리며 잔돌들이 그냥 무저있는, 자기가 딛고선 방바닥만 한 땅을 걸탐스러운 눈길로 내려다보았다.

《어떤가? 논으로 개간해보지 않았나?》

그는 연신 빙글거리며 물었다.

《제 생각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분조는 현재 로력두 딸리구 또 지금 있는 경지면적만 잘 다루게도 힘에 부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루 어느 세월에...》

《허허, 왜 못한다고 그러나. 사람이란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해낼수 있다고 여기고 접어드는게 중요하네.》

류만식은 배포유하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물병을 기울였다. 원래부터 그는 보기도문 락관주의자였다.

안해가 임신하지못하여 안타까와할 때도 그는 웃으면서 말하곤 했다.

《이제 두고보우. 자식을 낳아도 삼태자를 낳지 않나. 신심을 가지고 몸조리나 잘하우.》

정말 나이 사십줄에 들어서서 그들부부는 비록 몸은 좀 약하지만 옥에도 비길수 없는 딸을

받아안왔던것이다.

《글쎄 안된다니까요. 공연히 헛맥 뿔지 말구 어서 들어갑시다. 우리 집에서 별식을 했을테니 같이 가서 함께 합시다.》

《고맙네. 먼저 가라구.》

할수없이 그 자리를 뜨고말았다. 그가 집에 당도하여 돌아보니 류만식은 여전히 버들판을 뜨지 않고 더 힘차게 곡괭이를 휘두르고있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는 째만 있으면 그곳에 찾아가 역사질을 하곤 했다. 아버지를 돕는 류순애의 호릿한 몸매도 자주 보이곤 했다. (헛참, 보기엔 느슨한것 같애도 고집이 하늘소뿔발통같은 사람이었군. ...)

일부 마을사람들속에서는 류만식이 제집 《부대기논》을 일군다는 소문이 수군수군 돌아갔다.

헌데 류만식은 그런 소리쯤엔 끄떡도 하지 않는듯싶었다. 더 열성을 내던 어느날 점심참에 그는 왁살스럽게 뒤엎긴 버들뿌리를 잡아뽑다가 웅덩이에 넘어져 허리를 심하게 다치는 불상사를 빚어냈다. 이것을 먼저 발견한 리훈섭이 그를 업고 집으로 내달았다.

《머칠간 꼼짝말고 안정하십시오. 그러다간 켜히 산토끼도 짐토끼도 다 놓치고말겠단니까요.》

리훈섭의 불만스러운 말에 류만식은 고개를 저었다. 가만 누워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또 다시 두 《토끼》를 다 잡겠다고 뛰쳐나섰다.

퍼그나 날이흘러 분조모내기가 끝날무렵에야 류만식은 버들판을 한 400평정도 일궈낼수 있었다. 그리고는 인차 두령들을 짓고 비물에 땅을 삶았다. 잇달아 빈 모관구석들에 남아있는 한심한 버모들을 애지중지 뽑아다가 거기에 꽂았다.

바쁜 날은 흘러 어느덧 가을이 왔다.

분조탈곡이 끝난 때로부터 머칠이 지나서였다.

류만식이 정성껏 포장한 버가마니를 한달구지 실고 작업반실마당에 나타났다. 리훈섭은 깜짝 놀라 멀뚱멀뚱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어서 받으라구. 농사는 내가 지었다 하지만 땅두 종자두 모두 나라의것이니 나라에 바쳐야 옳지.》

리훈섭은 그만 가슴이 몽클 울려나 더 다른 말을 찾지 못했다. 그 수확고가 더 첨부되어 그는 계획을 넘쳐수행한 분조장으로 평가되고 한해농사를 총화하는 모임 주석단에도 앉게 되었다.

《순애 아버지, 전... 주석단에 앉을 자격이 없는 놈이에요.》

그날 저녁, 류만식의 집에 찾아온 리훈섭이 머리를 수그린채 하는 말이였다.

《왜 이러나? 머리를 들라구. 주석단에 앉구말구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 나라를 위해 한알의 낱알이라도 더 내겠다고 나서는 그 마음이 더중한결세. 우리 그런 한마음을 안고 저 버들판을 몽땅 논으로 개간하자구.》

《합시다. 제 꼭 해내겠어요.》

그때부터 리훈섭은 분조원들의 앞장에서 버들판개간전투를 줄기차게 벌려 그 이듬해까지 천평

짜리 논으로 전변시켰다. 물길까지 째여 왕가물에도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만들어놓았다.

그해 가을 리훈섭은 또다시 계획을 초과완수하여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고 류만식은 새자전거를 상으로 받게 되었다. 류만식이 그의 입당보증인으로 나섰다. 당원증을 가슴에 품던 그날 리훈섭은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 고향땅을 세상에서 제일 살기좋은 락원으로 꾸리리라 굳게 마음다졌다. 그후 이 논은 국가경지로 등록되었다. 이때부터 마을사람들은 이 버들논을 많은 경우 류만식의 이름과 결부하여 부르기를 더 좋아했다.

더우기 그가 년로보장을 받은 후에 불치의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것을 애석하게 여기며 더욱 잊지 못해 추억하곤 했다. ...

가슴속에 항상 큼직한 덩어리처럼 간직되어있는 이런 사연으로 하여 리훈섭은 겉으로는 할수없이 수긍하는듯 한 태도를 취했으나 속으로는 완강히 반대했던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류순애가 처음생각을 스스로 철회하고 넓게 이해할 줄로 믿어왔던것이다. 허나 지금 와서 보면 그는 결코 그런 눈치와 리해력을 가진 녀자가 아니였다.

속에서 뭔가 불끈 솟구치는것을 느끼며 리훈섭은 덤벼치듯이 모란을 나섰다.

#### 4

그가 헐씨금거리면서 올강냉이밭에 이르렀을 때에는 종자주머니를 옆구리에 찬 분조원들이 한창 씨앗심기를 하고있었다. 질 좋은 거름을 배부르게 넣고 알뜰하게 지어놓은 이랑들에 호미로 콧꼭 씨앗을 심어나가는 솜씨가 마치 재봉기바늘이 오르내리듯 했고 춤을 추듯 물동적이었다.

출발선을 떠난 한무리의 스케트선수들이 결승선을 향해 승벽내기로 질주하는듯싶은 그 맨 앞장에서는 류순애가 나가있었다. 그뒤를 바짝 따르고있는 나이지숙한 녀인이 벌써 한번이 아닌듯 또 콘소리로 말하고있었다.

《...오전만이라도 들어가 쉬라는데 왜 자꾸 그러나. 그러다간 몸이 못 견디.》

《송희 어머니, 제 걱정은 마세요. 할 일이 참 얼마나 많나요.》

《하여간 그 몸으로 용해... 헌데 분조장, 그 부대에서 정말루 콩농사도 짓긴 짓나?》

《왜 그렇게 믿지 못하세요. 해마다 콩농사를 지어서 군인들에게 매일 콩음식을 떨구지 않고있답니다.》

그러자 뒤따르던 분조원들이 일시에 허리를 펴며 《야!》하고 환성을 올렸다. 함께 허리를 펴고 활짝 웃던 류순애가 리훈섭을 띄여보고 반갑게 마주왔다.

《반장동지, 이제 됐어요. 콩종자까지 해결했으니... 부대지휘관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이웃군에까지 실어다줄줄이야...》

밤을 밝힌 사람이라고는 전혀 믿기 어려운 정도로 명랑하고도 열정적인 기분에 넘쳐있는 그

에서 리훈섭은 차마 올강냉이과종을 중지하고 벼 모를 마저 부으라는 말을 해낼것 같질 못했다.

그렇다고 이제 더는 숨박꼭질할수도 없게 되었다. 자기의 립장을 명백히 밝혀야만 했다.

《이보게 5분조장, 사실 난... 벼들은을 콩밭으로 만드는 문제를 관리위원회에 제기하지 않았네. 아니, 할수가 없었네.》

순간 청천벽력같은 일을 당하는듯 류순애는 흠칫 몸을 떨더니 화석처럼 굳어졌다. 그다음 매시시 풀려나는 두다리를 겨우 가누는듯 비칠거렸다.

《어쩔... 그럴수가 있어요? 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그렇게 무시할수 있나 말이에요? 전 그때두 철석같이 믿고있었는데... 정말 섭섭해요. ...》

류순애의 목소리는 격하게 울리던 나머지 떨리기까지 했다. 그러더니 별안간 두손바닥으로 얼굴을 싸쥐고 흑 흑느꼈다. 그 모습이 한순간 리훈섭의 속을 아릿하게 긁어내렸다. 영예군인의 안해로서 편히 지낼수도 있지만 분조장이라는 무거운 짐까지 걸머지고 농사일에 헌신하는 그, 그래도 수확을 더 내보겠다고 아글타글 애쓰는 그한테 너무나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뒤따랐던것이다.

그러나 다음순간 류만식의 모습이 또다시 크게 확대되어 눈앞에 다가들자 그는 머리를 흔들며 랭정한 어조로 물었다.

《섭섭한건 임자가 아니라 바로 날세. 그래 그논이 어떤 논인지를 임자가 진짜 모르고있단 말인가?》

류순애가 얼른 머리수건을 벗어 눈굽을 찍더니 번쩍 고개를 들었다.

《제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알아도 너무나 잘 알고있기때문에 뒤집어엿자는거예요.》

《영?!...》

리훈섭은 그만 보이지 않는 쇠집게에 심장을 비틀리운듯 한 아픔을 느끼며 얼굴을 이그러뜨렸다.

다치면 터질듯한 팽팽한 공기속에서 피로운 몇초가 흘렀다. 불쑥 리훈섭에게는 이 녀자한테 무엇인가 흥벽을 들이찌르는듯 한 말을 해주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일어났다.

《만약 그 논을 뒤집어엿는다면 임잔 빛이 날테지만 아버지가 해놓은 일은 없어지고마네. 영영 없어지고말아!》

류순애의 얼굴은 홍조가 사라지고 해쓱하게 질렸다. 고통을 참는듯 그 작은 입술을 꼭 깨물더니 설레설레 머리를 젖는다.

《안예요. 전 그렇게 하는 길이 아버지가 해놓은 일을 더빛이 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새 품종의 콩을 심으면 소출을 두배이상으로 높일수 있구 수로면적에서만도 적지 않은 난알이 나올수 있다는것을 알면서두 계속 벼를 심는다면 손해날건 농장이구 나라밖에 없을거예요.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애국자로 불리웠지만 오늘은 그 반대루...》

《점점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를 모욕해도 훈수가 있지. 그런 소린 싹 걷어치우구 어서 벼모나

마저 붓게.》

리훈섭의 어성이 저도 모르게 높아졌다.

《전... 절대루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절대루...》

류순애의 목소리로 안정을 잃었다. 그의 앞가슴이 세차게 오르내렸다. 하더니 다시 자기 이랑으로 뛰어가 더 세판게 호미질을 해나가는것이였다.

멈춰섰던 분조원들도 하나둘 허리를 굽히고 그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리훈섭은 다시금 속이 울컥해났으나 좀 더 두고보자는 심산으로 돌아서고 말았다. 그때부터 그는 해종일 일이 손에 걸리지 않았다. 류순애에 대한 노여움이 속에서 부각 부각 피어오르며 그의 처녀시절이 자꾸만 눈앞에 밝혀왔던것이다. 그가 분조에 배치되어왔을 때 체질적으로 좀 약한것을 고려하여 각별히 위해주고 보살펴주던 일들, 특히 류만식이 년로보장을 받은 후 일찍 세상을 떠난 다음부터는 그의 아버지구 실까지하는 심정으로 더 큰 정을 기울이던 일들...

이런 그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행동할수 있단 말인가? 늙으면 응당 이런 대접을 받기마련이란 말인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의 서글픈 심정은 조금도 가셔질줄 몰랐다. 식사할생각도 잊은채 방구석에 멍하니 앉아있던 그는 로친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나섰다. 어쩐지 벼들은에 나가보고싶었던것이다. 혹시 그곳에 가면 아직도 몇지 않는 마음속 아픔을 달랠수 있고 류만식이 꿈속에서처럼 찾아와 그 어떤 따뜻한 말이라도 해줄것만 같은 망연한 기대때문인지도 몰랐다.

날이 흐려서인지 하늘엔 별 하나 보이지 않고 캄캄한 어둠의 장막만이 끝간데없이 펼쳐져있었다.

천고의 밀림속에 홀로 든것처럼 불시에 외로운 감정이 전신을 휩쌌다. 리훈섭은 짐작으로 방향을 잡고나서 벼들은으로 한걸음두걸음 다가갔다.

이젠 거의 왔는가부다 했는데 갑자기 코앞에서 인기척이 나며 전지불 하나가 확 켜졌다.

《하, 여기에 있는줄 모르고 찾아다녔구만.》

《아이, 당신이세요? 그 몸으로 어떻게...》

리훈섭은 그들이 다름아닌 지평이를 짙은 김성호와 삼파루를 틀어친 류순애임을 대뜸 알아보았다. 허물기 시작한 눈두렁이 류순애의 발치에서 어렴풋이 드러났다. 리훈섭은 또다시 신경이 곤두서는것을 느꼈다.

《당신두 참, 이렇게 어두웠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 찾아나올수밖에.》

《안됐어요. 사실은 이 벼들은을 콩밭으로 만드는 일을 오늘 밤부터 제 먼저 시작하고싶어서...》

《헌데 좋은 일을 하는 당신 얼굴색이 왜 그렇소? 피로운 표정인데 무슨 일이 있는게로구만.》

잠간 주저하던 류순애가 아까 낮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터놓는다.

《음, 반장동지가 반델 한단 말이지? 알만 하오. 하지만 당신 아버지같은 사람앞에서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해서야 안되지. 그럴수록 끝까지 설복하

고 리해시켜드렸어야 했을걸 그랬소.》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다만 전... 여보, 이 땅에 대고 한번 귀기울여 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

《전 지금 떠나가신 아버님의 목소리를 듣고있어요. 〈이 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누구나 알것이다. 항일선열들이 피로 찾고 전화의 영웅들이 목숨바쳐 지킨 땅임을. 하지만 우리들 대에 와서는 충대를 계속 튼튼히 버리는것과 함께 이 땅이 최대로 체구실을 하도록 만드는것이 곧 땅을 지키는 길이다. 남에게 빼앗겨서만 잃는 땅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 땅우에서 이 땅의것으로 자력갱생하여 세상이 부러워할 우리의 행복을 창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잃어버린 땅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이 아버지의 체면 같은것은 생각지도 말고 어서 이 눈을 밀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것 같어요.》

김성호는 심중한 기색으로 듣고있었으나 리훈섭의 귀에는 이미 그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그는 어느새 헝 바람을 일구며 류순애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에 들려있는 삽자루를 나꿔챌듯이 움켜잡았다.

《그래 임잔 기어코 이 눈에 콩을 심을 작정인가? 내가 임자의 친아버지라고 해두 말을 안들들텐가?》

놀랍게 그를 마주보던 류순애가 조용히 그의 팔을 떠밀면서 삽자루를 도로 빼낸다. 그리고는 어딘가 먼곳을 향해 안타까움과 간절한 빛이 뒤엉킨 눈길을 보내더니 이윽하여 나직이 입을 열었다.

《반장동지, 어쩔 그렇게도 제 심정을 몰라주세요. ... 전 지금 우리 부대가 있던 바위굴을 생각해보고있어요. 오늘따라 그때의 일들이 못 견디게 그리워지는군요. 열다섯해전 남편을 따라 그곳에 갔을 때 전 처음 눈앞이 아찔하기만 했어요. 온통 바위투성이뿐인 외진 산골짜기에 자리잡은 신설 부대인데다가 한창 〈고난의 행군〉을 하는 때라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지요. 남편앞에서 나약한 눈물도 흘리고 어린애처럼 어리광을 부러보기도 했어요. 그때 저를 깨우쳐준것은 부대장병들이 지닌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 생활방식이었어요. ...》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애정이 흐르는 류순애의 이야기가 망두석처럼 굳어져있는 리훈섭의 귀전에 계속 들려왔다. 두해남짓한 사이에 병영과 교양실, 회관을 비롯한 각종 건물을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우고 훈련장과 포장도로까지 멋있게 닦아놓던 일, 산너머 골짜기로 흘러내리는 물을 막고 굴을 뚫어 발전소를 세우고 양어장도 꾸려놓던 일, 병영주변의 빈 땅을 전부 개간하여 파수원, 강냉이밭, 콩밭 지어 논과 약초밭까지 만들던 일,

수종이 좋은 술한 나무들을 심어 주변산들을 무성한 숲으로 뒤덮었고 그속으로 염소떼가 흰구름마냥 흐르는 아름다운 풍경을 창조하던 일...

《... 전 그 나날에 난생처음으로 우리가 사는 이땅은 결코 작지 않다는것을 느꼈어요. 누구나 이땅의 한치한치를 귀중히 여기는 인민군인들처럼 살며 투쟁한다면 어디서나 사회주의선경을 꽃피울수 있고 이 땅 어디나를 옥답으로 만들수 있다는 진리를 심장으로 깨달았던 말이에요. 우리 이마골도 마찬가지로 봐요. 여기보다 조건이 훨씬 더 어려웠던 바위굴을 그렇게 무릉도원처럼 만들었는데 왜 우리 이마골이라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고장으로 만들지 못했나요. 그러자면 최대한의 실리를 얻기 위하여 일해야 한다고 전 생각해요. 설사 아버지의 피땀이 습배인 이 버들논이라고 해도 실리에 맞지 않을 때에는 대답하게 뒤집어엎을줄 아는 그런 용기, 그런 담력을 오늘의 현실은 너무도 절박히 요구하고있는것이 아니겠어요. 전 이렇게 하는 길이 진정으로 아버지께 대한 의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고싶어요. 왜냐면 아버지 한알의 난알이라도 더 내자구 처음 이 눈을 만들었기때문이에요.》

저도 모르게 숨죽여 듣고있던 리훈섭의 속이 철렁 무너져내렸다. 둔중한 그 무엇에 세차게 얻어맞았을 때처럼 머리가 핑 도는듯도 했다.

온몸은 화독처럼 달아오르고 입에서는 황소숨이 길게 뿜어져나왔다. 참으로 많고많은것을 생각해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야 그는 비로소 큰 실책을 범했다는것을 깨달았던것이다. 아, 누구보다도 이 땅을 사랑한다면 내가, 누구보다도 의리를 귀중히 여긴다면 내가 이런 청명과니짓을 하다니... 쓰라린 자책의 메아리속에 불현듯 자기의 한생이 돌이켜졌다. 고향땅을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락원으로 꾸릴 크나큰 포부와 결심을 안고 구슬땀 흘려 일하던 그 보람찬 나날들... 자기로서는 많은 일을 해놓았다고 자부하고있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이 이마골이 아직도 다른 고장보다 못한 원인을 이제야 찾은것만 같았다. 그것은 바로 류순애처럼 최대한의 실리를 얻기 위해 더욱 분발하여 일하지 못한데 있다는 가슴아픈 후회가 생기는것이였다.

아울러 시대가 바라는 이런 애국자는 오직 혁명적군인정신을 지닌 사람만이 될수 있다는 심장의 웨침이 터져오르는것이였다.

문득 어디선가 소녀의 청정한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울려왔다. 30여년전 바로 이곳에서 류순애가 아버지에게 하던 말...

《... 난 우리 이마골땅을 더 크게 넓히고싶어요. ...》

(아, 지금 그는 그 꿈을 현실로 이뤄가고있구나! 그렇다, 애국의 뜨거운 마음에 떠받들린 이 땅은 넓다! 끝없이 넓은 법이다!)

## 사진

변영욱

일요일이었다.

한주일에 한번씩 오는 휴식날이어서 우리 식구들의 자체계획은 이채로우면서 모두 제나름이었다.

막내아들은 뽕을 잘 차는 형을 따라 축구경기장으로 가고 낚시애호가인 세대주는 낚시터로, 나는 아이들의 교복에 다림발을 세우며 학교갈 준비를 갖추어놓은 후 어제 새로 나온 책을 읽기에 여념이 없었다.

피복공장 채봉공으로 일하는 딸애는 오늘계획이 마치 사진을 정돈하는 날이라든 하듯 사진첩을 꺼내놓고 사진을 붙이고 장식하느라 드바쁘다. 그런 딸애가 사진첩을 뒤적이다가 얼핏 나에게 물었다.

《어머니, 내 사진 못 봤어요?》

《무슨 사진?》

《미경이하고 레성강에서 찍은 사진 말이에요.》

《모르겠는데...》

딸애가 공장에서 휴가를 받고 레성강발전소 건설장에 지원나간적은 있었지만 사진을 찍고 왔다는 말은 생각되지 않았다.

그 뜻깊은 곳에서 사진까지 찍고 오다니...

그때문이어서 그런지 나도 보던 책을 덮고 사진을 찾는데 도와나섰다.

가정의 사진첩을 들춰보기도 하고 책장안의 있을만 한 곳을 살펴보기도 하며...

드디어 딸애가 자기 사품을 넣어두는 트렁크안에서 사진을 찾아들고 기뻐했다.

《어머니, 여기 있어요.》

소중한 그 무엇이랴도 받아안은듯, 잃었던 귀중한것을 찾아내기라도 한듯 딸애는 사진을 몇번이나 손으로 쓰다듬더니 자기의 사진첩 한가운데 정히 붙이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불현듯 나의 눈앞에는 현실체험지인 레성강발전소 건설장에서 잇을수 없어 품에 안고 온 신문에 실린한장의 사진이 떠올랐다.

그것은 레성강발전소 건설장의 평범한 처녀돌격대원 사진이었다.

중학교를 갓 졸업한 처녀의 가슴은 희망과 포부가 한껏 부른 청춘시절이어서 가고싶은 곳도

많았고 하고싶은 일도 많았다.

한밤중에도 고층건물처럼 층층이 쌓아보던 희망중에서 그가 고르고골라 선택한것은 레성강발전소 청년돌격대원이 되는것이였다.

《아버지, 언니는 대학으로 갔지만 전 〈청춘대학〉인 발전소건설장으로 가겠어요.

이제 이 딸이 고향땅에 더 많은 전기를 가져오면 내 고향 미루벌은 몰라보게 달라지고 우린 보란듯이 잘살게 될거예요.》

키가 자그마하고 연약한 그가 돌격대로 나왔을 때 거목의 숲에서 애 어린 나무가 선풍 눈에 띄우지 않듯 경험많고 단련된 돌격대원들속에서 처녀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생활의 이모저모에서 청년전위결사대원들은 처녀의남다른 모습을 보게 되였다.

《힘 대 힘》의 대결, 《청춘 대 암반》의 대결장으로 불려오는 진수정기초공사장에서 결사대생활을 오래 한 《급》 높은 대원들만 잡는 메를 휘잡고 함마전을 들이대는 처녀의 강인한 모습, 한겨울에도 감탕물이 줄줄 흘러내려 돌격대제복을 갑옷처럼 얼쿠는 버럭 담긴 함석질통을 지고 달리고 또 달리는 바람같은 그의 모습, 남들이 다자는 깊은 밤 구멍이 송송한 마대들을 수없이 빨아말려 째깍이 기워놓았다가 가물막이공사때 요긴하게 쓰도록 한 처녀의 살림군다운 이악한 모습.

그 모습에서 청년전위결사대원들은 언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처녀의 모습을 보았고 그래서 혁신자사진을 찍으러 온 사진사앞에 그를 제일먼저 내세웠다.

그러던 어느날, 억수로 쏟아지는 장마비에 가물막이특이 무너질 위험에 처했을 때 흙마대를 메고 제일먼저 물속에 뛰어드는 처녀가 있었다.

그가 바로 열아홉살밖에 안되는 살림군처녀였다.

시시각각으로 노호하며 범람하는 물결, 폭을 금시 집어삼킬듯 언제우에서 쏟아져내리는 폭포물기둥...

그속에 서슴없이 뛰어든 처녀의 뒤를 이어 결사대원들은 흙마대를 메고 한치한치 패워지는 폭으로 달리고달렸다.

다음날 아침 리훈섭은 보기만 해도 날아갈듯한 새 자전거를 타고 쏜살같이 출근길에 올랐다.

종달새가 지저귀는 넓은 들판은 끝간데없이 펼쳐져있었다. ...

걱정에 못이겨 속으로 부르짖고난 리훈섭은 류순애의 손에서 다시 샅을 앗아들고 푹푹 논두렁을 허물기 시작했다.

×



흙마대와 흙가마니가 모자라면 그들은 어깨성을 쌓으면서 몸을 덮치는 흙탕물과 치열한 싸움을 벌렸다.

그때 그들의 가슴속에서는 체험을 통하여 자기들이 지은 시 《결사대성격》이 읊어지고있었다.

...

결사대는 흑한에서도 땀으로 몸을 적신다  
결사대는 허리띠를 조일지언정 함마를 놓지 않는다

열밤을 새워도 투쟁의 노래 부르는 결사대  
어려워도 힘겨워도 웃으며 달리는 결사대  
불가능이란 말을 버려두미에 묻어넣고  
승리의 보고 위해 달리고달리는  
이것이 우리의 결사대성격이다

...

아직 사전에서도 찾아볼수 없고 사람들의 입말에도 오르지 않은 《결사대성격》, 그 성격이 몸에 배어 그들은 강철의 인간으로 자라났으며 물파의 싸움에서 끝까지 이겨낼수 있었다.

그러나...

뚝을 지켜낸 기쁨으로 환성을 올리는 동무들속에 처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사정없이 흘러가는 강물속에서 막돌을 품에 안고 의식을 잃은 처녀를 안아내왔을 때 처녀는 얼굴에 꽃처럼 아름다운 미소를 피워올렸다.

순결하고 깨끗한 강잉하고 의로운 처녀의 모습, 정녕 잊을수 없고 지울수 없는 모습이어서 사진기자는 신문에 정히 담아 세상에 널리 소개하였다.

돌격대제복을 입고 언제건설장을 배경으로 맑은 하늘가를 바라보며 찍은 처녀의 혁신자사진, 그 모습은 마치 자기가 한 일이 무슨 큰일인가고 하며 숫저어하는 소박한 모습이었다.

소박한 그 사진에서 나는 현실체험의 나날 크나큰것을 받아안았다.

청년들은 사진찍기를 무척 좋아하고 또 많은 사진을 남긴다. 그중에서도 청년돌격대원들이 기

쁨과 환희, 랑만을 담아 남기는 사진은 그대로 발전소건설장에 여러차례의 발자취를 남기시며 심혼을 기울여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드리는 매일매일의 일기였고 자서전이였으며 그것이 그대로 인생을 참담게 장식하는 사진이었다.

삶이란 곧 창조임을 그대로 증명해주는 이 사진들을 유보도와 공원의 풍경을 배경삼아 때없이 찍은 수천장의 사진에 어찌 비길수 있으랴.

가장 어려운 조국의 돌출부에 자기의 심장을 잇고 조국이 전진하고 달려가도록 떠밀고 받들줄 아는 이런 사진을 어찌 세월이 지울수 있고 퇴색하게 할수 있으랴.

무릇 사진은 세월과 함께 퇴색되기도 한다.

허나 애국의 땀과 열정으로 조국의 모습을 빛내고 인민들에게 행복의 열매를 안겨준, 하여 강성대국의 봄을 앞당겨오는 이런 사진들은 세월의 이끼에 덮여지지 않고 오히려 시대의 앞장에서 세대에 세대를 이어가며 영원히 퇴색될줄 모르고 제 모습을 뚜렷이 새겨가는것이다.

이런 소중한 사진들로 인생을 엮어나갈 때 참다운 인생임을 뽐낼수 있기에 딸애는 사회생활의 첫 발자욱을 발전소건설장 지원의 길에 내짚었고 그 나날에 찍은 사진도 사진중에 귀한 사진으로 그처럼 소중히 간직하는것이 아닐가.

나는 딸애가 앞으로의 인생길에 보다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사진을 남기도록 하기 위해, 그런 값있는 사진들이 있는 사진첩을 먼 후날 뽐낼수 추억하며 펼쳐보도록 하기위해 신문에 난 청년전위결사대원처녀의 사진을 그 애앞에 내놓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런 사진이 조국의 기억속에, 인간의 한생수에 영원히 남는 법이란다.》

딸애는 돌격대제복을 입고 찍은 처녀의 사진을 이윽히 지켜보았다.

아니 신문속의 처녀가 딸애를 조용히 바라보며 무엇인가 속삭이는것 같기도 하고...

## 세계유모아

## 류행과 고상한것

로씨야의 유명한 문학평론가 뿔로진이 비속한 류행풍을 풍자한 다음과 같은 유모아가 있다. 한번은 그가 연회에 참가하였는데 연회장에 올리는 경망하고 저속한 음악이 딱 싫어서 손가락으로 두귀구멍을 막고있었다. 그의 어울리지 않는 거북한 거동에 놀란 집주인이 《귀가 아파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지금 연주하고있는 노래들은 모두 류행곡인데요.》라고 귀뜸해주는것이였다.

뿔로진이 《류행되는것이 다 고상하오?》라고 반문하자 주인은 너무 어처구니없어서 《고상하지 않은것이 어떻게 류행되니까?》라고 대뜸 대답하였다. 뿔로진은 웃으면서 《그러면 류행성감기도 역시 고상하겠구만.》라고 야유했다고 한다.

# 군고구마매대

김승제

엄혹한 북방의 한겨울.

밤하늘을 활활 태우는 우등불, 온통 우등불천지다. 떠들썩한 말소리, 웃음소리며 받고 넘기는 함마질소리들이 온 골안에 짹 차넘쳐흐른다.

퐁퐁 얼어붙었던 두메산골이 화들짝 놀라 잠을 깨고 저 하늘의 둥근달마저 붉게 상기된 표정을 짓고있는 밤, 돌격대의 밤이다.

얼마나 좋은 밤인가. ...

《자 동무들, 군고구마요.》

어느 우등불가에서 누군가 떠들썩 웨치는 소리에 와 탄성이 터져올랐다.

물씬... 온 작업장에 퍼져가는 그 독특하고 엇구수한 냄새...

짜개바지시절 모닥불속에 몇알 슬쩍 묻어놓았던 군고구마의 그 따끈한 온기...

우리는 모두 우등불주위에 빙 둘러앉았다.

저저마다 장작개비를 들고 불무지속에서 데굴데굴 굴러내오는 군고구마의 맛을 그 어떤 진수성찬에 비길수 있으랴.

톡톡 터갈라진 껍질사이로 김이 문문 오르는 새노란 속살이 언제 봐도 군침을 꿀꺽 삼키게 한다.

누구는 코날개를 연방 벌름거리다가 더는 참지 못해 온몸을 들썩거리고, 누구는 두눈을 지그시 감고 취할듯이 흠흠 그 냄새를 폐장깊이 들이키고, 또 누구는 선뜻 입에 넣기 아쉬운듯 두손바닥에 슬슬 어루굴리다가는 옆사람에게 넘겨주기도 한다.

한열에 드문드문 큼직한 갓김치소랭이까지 곁들여놓으니 제법풍성한 밤참이 마련된셈이다.

나는 감회깊은 심정으로 미더운 동무들을 둘러보았다.

떠나온 고향과 생김새며 성격들도 판판 다른 저들, 허나 돌격대생활의 나날에 기쁨과 슬픔, 피로움과 시련도 함께 나누며 친형제같이 혈연의 정으로 엮혀진 우리들, 더더욱 《우리》라는 부름속에 《너》와 《나》가 따로 없고 정을 나누어도 불덩어리같은 진정을 나누는 한가정, 한식술!

이런 밤들에 흔히 보곤 하던 광경이었지만 나에게 오늘따라 더욱더 류다른 정취를 자아내는것은 이 진실한 사람들의 참다운 생활속으로 나를 떠밀어준 잊지 못할 한 녀인에 대한 추억때문이다

였다.

내가 때때로 고구마꽃에 비겨보는 녀인, 군고구마매대의 평범하고 소박한 그 녀인.

오늘이 바로 그 녀인의 생일이다.

어느새 나의 눈앞으로는 네해전 그날의 그 군고구마매대가 높이높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

나는 그날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고있었다.

터벅터벅...

온몸에서는 들쭉서놓은 잉겔불처럼 그냥 확확 열기가 내뿜겼다. 작업총화때 반장에게서 들은 욕이 체한것처럼 내려가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되여 백마—철산물길공사장에 보낼 룬전기채부속품가공에서 두건이나 오작사고를 냈던가.

휴게실에 쭉 둘러앉아 말없이 나의 얼굴을 바라보던 작업반사람들, 그속에서 무겁게 담배만 빨던 세포비서아바이와 안타깝게 나의 얼굴을 쳐다보던 진희의 그 눈길은 정말...

나와 동갑내기작업반장, 제대군인대학졸업생인 그는 원칙적이고 성미가 불같기로 공장에서 소문이 났다.

그는 그 특징적인 손동작, 무엇인가를 내리찍는듯 한 손칼을 가슴앞으로 끄당기며 단호하게 말했었다.

《난 대철동무가 이런 엄중한 사고를 내게 된것을 결코 우연한 일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물론 동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뒤...》

나는 외로 틀었던 고개를 쭉 돌리며 뚫어지게 그를 노려보았다.

《그 말은 이 자리에서 왜 꺼내면서 그러오?》

나는 당장에 받을 소처럼 두눈을 지릅뜨며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작업반사람들이 아연해서 나의 얼굴을 바라보았으나 나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갑자기 어머니의 얼굴이 우렷이 떠올랐다.

열두자락치마폭에 온갖 시름을 강잉히 감싸안고 지금껏 어엿이 나를 키워 내세워주느라 애면글면 무던히도 애애우던 어머니.

반년전에 그 어머니가 불치의 병에 걸려 병원으로 실려갔었다.

나는 어머니를 구급차에 실어보내며 몸부림쳐

흐느꼈다.

《대철동무, 이제는, 이제는 그만하세요.》

진희의 나직한 속삭임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 커다란 상실감앞에서 언제까지 일어서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어쩌다 오작사고를 한번 냈다구 네가 감히 그 상처를 헤집어? 기계대학을 졸업하고 한해전에 우리 작업반에 배치된 그는 며칠 안 있어 나와 정말이지 허물없는 사이로 되었었다. 중학교를 마치고 이날껏 공장에서 일해오고있는 나에게 《후배》로서 어깨도 낮추었던 그였다.

그런데 그가반장이 된 다음으로는 우리 둘 사이가 어쩐지 버성겨지는 것 같았고 요즈음에는 웬일인지 별스레 서먹해지는 느낌이 들더니 친구란 사람이 이때란듯이 저렇게도 날을 세우고 가차가 없다니... 나는 여전히 그의 눈길에 붙들리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창밖 먼 하늘가만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한결 낮아졌으나 그래도 여전히 쇠소리가 쩍쩍했다.

《난 이번 일도 대철동무 생활의 연장선우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머리는 언제 깎았는지 덤수룩하지, 옷차림도 되는대로 해가지고 다니지, 그렇게 정신상태가 흐리멍텅하니 오늘같이 이런 오작사고가 날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우리의 생활에는 어려움과 부족되는 것이 많고 뜻하지 않은 가슴아픔과 시련의 흔적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동무처럼 패배주의자로 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지금 무엇이 대철동무의 심장을 좀벌레처럼 파먹고있는지 한번 빼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반장동무, 말이면... 말이라구 다 하는줄 아는 게 아니요? 예익.》

《대철동무!》

작업반사람들이 다급히 불렀으나 나는 내가 어떻게 문을 광 후려닫고 그곳을 뛰쳐나왔는지 기억할수 없었다. 너무도 놀라 파리하게 굳어졌던 진희의 그 얼굴과 후두후두 떠는 손을 건잡지 못하던 세포비서아바이의 눈빛만이 얼핏 스친 나의 눈길속에 남아있을뿐이었다.

(내가 뭐 어떻게 되어간대구?)

나는 그 무엇에 쫓기우듯 허둥지둥 걸음을 옮겨졌었다. 가슴속에서는 커다란 불몽치같은것이 자꾸만 움쉴움쉴 울려밀고있었다.

《아이쿠.》

앞에서 마주오던 한사람이 나의 팔굽에 부딪쳐 휘청거리다가 땀가방을 떨구었다. 그러다 마치 싸움을 걸기라도 하려는듯 한 나의 자세에 《히, 그 참...》하고 쓴입을 다시며 지나쳐갔다.

나는 정말 좀처럼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담배를 붙여물려고 성급히 주머니를 뒤지던 나

의 손에 진희가 준 라이가 들려졌다.

급기야 목안이 꺾꺾해났다.

진희, 나와 한작업반에서 일하는 처녀.

호리호리한 키에 쌍겹진 별눈이며 랑불에 콧패이는 볼우물, 늘쌍 무엇이 기쁜지 입가엔 잔잔한 웃음이 떠날줄 모르고 눈부시게 희고 가지런한 이가 무척도 인상적인 처녀, 길을 갈 때면 못충각들이 한번쯤은 꼭 돌아보고야 지나치던 모습이었다.

다름아닌 내가 진희 같은 처녀의 애인이라는 사실에 나는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웠던가. 공장사람들도 나와 진희의 그런 사이를 응당한것으로, 천상배필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고...

하지만 오늘은 진희와의 결별에 따른 후회만이 내앞에 덩그러니 남았을뿐이다.

어느덧 내가 사는 고층살림집이 뻥히 바라보였다.

그때 어디선가 구수하게 풍겨오는 군고구마냄새가 나를 우뚝 멈춰세웠다.

우리 집밑 남새상점옆에 《군고구마》라고 간판을 써붙인 자그마한 매대가 눈에 띄었다. 언제부터인지 봉사를 시작한 매대, 그러나 언제 한번 그 앞에 멈춰서본적은 없었지.

여느날처럼 그냥 스적스적 그앞을 지나치려는데 그 군고구마냄새가 이상하리만큼 못견디게 나를 자극했다.

텅 빈 위가 그제야 눈을 뜬것 같았다. 소태처럼 쓰겁던 입에 스르르 군침이 돌고 연방 쪼르륵거리는 소리, 오작사고때문에 점심을 그만 건너뛰었었지...

나는 자석에 끌린듯 급히 매대로 다가갔다. 서둘러 군고구마 두봉지를 사들고는 그 자리에서 마구 껌질을 벗겨 입안에 넣기 시작했다.

매대안에서 봉사원녀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린것은 그 찰나였다.

《저 손님, 잔디밭에 그냥 껌질을 버리면... 곁에 버림통이 있는걸 미처못 보신 모양이지요?》

나는 불이 메여지게 다져넣었던 군고구마 한알을 꿀꺽 삼키며 매대쪽으로 돌아섰다. 봉사창을 열고 웃음을 드러낸 그 녀인이 상그라니 미소를 짓고 나를 바라보고있었다.

순간, 나는 가슴이 쿵 쏘는것을 느꼈다.

그 눈빛, 그 웃음, 그 몸가짐새머가 어쩌면 저리도 진희를 련상시킬가.

진희!

나는 너의 속눈썹 짙은 샘눈에서 뿜어져나오는 그옥한 정에 푹 취해있었지.

길 안든 생애같은 나의 성미를 지금껏 다스려준데는 어머니뿐아니라 진희의 애모뿐 보살핌도 하 많이 깃들어있었다. 나는 괜히 우둘쩍거리다기도 그의 말 한마디면 애어린 녀동생앞에서처럼 대번에 고분해지곤 했었다. 련인들끼리의 어리광

과 응석이란 제나름대로 각각이겠지만 진희의 그것마저도 나엔 어머니의 심정까지 합친 진심의 당부로, 어길수 없는 요구로 여겨졌었다.

나는 멧적게 뒤더수기를 매만지며 발밑에 너저분하게 널린 군고구마껍질들을 모아 슬며시 버림통에 던져넣었다.

《아이, 마침 퇴근시간이 다됐는데 제가 치우겠어요.》

어느 사이 내앞으로 걸어온 너인의 손에는 손바자루가 들려져있었다.

진희보다는 키가 조금 작을사 하고 불우물도 페이지 않았건만 너인에게서는 내가 진희에게서 향유 느끼곤 하던 그 무엇이 진하게 풍겨나오고 있었다.

하얀 봉사원옷이 유난히 산뜻해보이는 그 너인, 나는 피땀 너인의 왼쪽가슴에서 《봉사원 리옥향》이라는 표적을 보았다.

덤덤히 서있던 나는 슬그머니 너인의 곁을 떠나고말았다. 그러나 몇걸음 옮기지 못하고 다시 뒤돌아서지 않을수 없었다. 어쩐지 멈췄던 발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던것이였다.

방금전 너인의 살뜰한 목소리, 상냥한 웃음, 무릅없는 태도가 뜻밖에도 쿵 하고 가슴을 치는 충격과 매력을 준때문인지몰랐다.

종종 느끼는바이지만 첫인상에도 무었때문인지 마음속이 훈훈해지며 자꾸만 뒤돌아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것을 나는 알고있었다. 은은한 불빛속에 너인과 군고구마매대의 모습이 또렷하게 가슴에 마쳐왔다.

말끔히 주변정리를 하고난 너인이 다시 매대안으로 들어섰을 때였다. 매대로 뽀르르 달려가는 웬 사내아이의 모습이 눈에 안겨왔다.

뽀발발 쳐들고도 키가 자라지 않는지 한쪽손만이 봉사창으로 쑥 기여들어갔는데 그 꼴이 부지중 웃음을 자아냈다. 대어섯살쯤 되었을가?

《군고구마 좀 사자요. 세봉지.》

그 애의 되알진 목소리가 그때까지 매대 한옆의 아릅드리버드나무뒤에 우두커니 서있던 나의 귀에도 충알처럼 날아왔다.

《좀 늦었구나. 이젠 끝났는데...》

너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애는 막무가내로 고집스럽게 줄라했다.

《야, 아지미, 어떻게 좀 도와줘요. 오늘이 우리 딱친구 호남이 생일인데 그 앤 군고구마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딱 세봉지만. 예?》

(보통질군이아니겠구나.)

나는 자그마한 눈이며 되박이마가 척 보기에오여간 만만찮아보이는 그 애를 기웃이 여겨보았다.

봉사원들이란 대개 퇴근시간에 더우기 그들이 가정부인인 경우 저런 성가시고 시끄러운 《손님》들에 대해서는 귀찮아하기마련인것이다. 하지만

나는 나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매대안에서 나와 그 애의 얼굴을 어루쥐며 다정히 무릎을 꿇은 너인, 한점 짜증기도 불만도 없이 여전히 숙부드러운 그의 목소리.

《그래, 거참 큰일이로구나. 그렇다면 꼭 군고구마가 있어야겠는데...》

너인은 무었인가 잠시 생각하는듯싶더니 곧 말을 이었다.

《좋아. 그럼 넌 먼저 호남이네 집으로 가거라. 아지미가 제격 고구마를 구워가지고 뒤따라갈게. 동무들이 네가 도착하길 목빠지게 기다리다 생일날 흥이 깨지면 어떻게 하겠니? 넌 그 애의 집이 어디쯤인지 내게 가르쳐주거나 하렴. 몇층 몇호인지랑...》

《피, 거짓부리.》

그 애는 그 말이 쉽사리 믿어지지 않는지 두눈을 동그랗게 올려뜨고 너인을 뻔히 올려다보기만 했다.

《호호, 애두 참, 정말이라니까. 아지미에게도 너같은 아들이가 있단다. 아이들과 한 약속을 어기는 어머니를 그래 넌 봤니?》

너인은 그 애의 코등을 탁 튕겨주며 즐겁게 웃더니 귀에 대고 무슨말인가 더 속살거렸다.

《야 좋아, 그럼 손가락을 걸었어요.》

그 애는 신바람이 나서 막 토끼뽀까지 했다. 그러나 그 애보다 더 정충 놀란것은 바로 나였다.

군고구마 세봉지때문에, 첼부지꼬마의 폐질때문에 너인이 다시 일손을 잡는다는것이 선뜻 믿어지지 않았기때문이었다. 불까지 새로 지펴야 할텐데...

너인이 정말 이름모를 그 애네 집에 찾아가거나 할가?

나는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의문을 채바퀴돌리듯 하며 또 담배 한대를 붙여물었다. 그물그물 퍼져오르는 희여스름한 담배연기속에서 한참동안 매대를 지켜보던 나는 저녁어스름이 더더욱 심술궂게 짙어져서야 스적스적 집으로 올라왔다.

나는 자리에 누워서도 오래도록 잠들수 없었다. ...

다음날 퇴근길에 나는 나도 모를 호기심에 사로잡혀 또다시 군고구마매대앞에 멎어섰다.

그리 길지 않은 줄이 줄어들며 내가 너인과 얼굴을 마주했을 때 그는 인츰 나를 알아보았다.

《또 오셨군요.》

나는 너인의 밝은 웃음에서 다시 한번 깨끗한 충동을 느꼈다.

나는 괜히 헛기침을 요란스럽게 짓고난 뒤 체풀에 얼굴을 붉히며 물었다.

《저, 어제 보니 퇴근시간이 좀 늦어지는것 같던데... 저, 그 호남이란 애네 집에 가긴 갔었습니까?》

너인은, 옥향은 한순간 몹시 놀라는 표정을 짓

더니 뒤이어 명랑한 웃음을 터뜨렸다.

《어마나, 다 지켜보셨군요.》

옥향은 레의 그 티없이 맑은 웃음으로 나의 눈을 부시게 하면서 노래라도 부르는듯이 말을 이었다.

《가지 않구요. 꼭 가야 하지 않구요. 야, 그 귀염둥이들이 모두 어떻게들 좋아하던지...》

손님들이 또 줄을 서는 바람에 나는 아쉽게도 매대에서 물러났다. 어제 저녁 멋없이 너인의 일거일동을 지켜본 객적은 사람이 된 처지였지만 무엇보다도 그렇기까지 민망스럽지는 않았다.

나는 옥향에게서 좀처럼 눈길을 떼지 못했다.

사람들 그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정답고 살뜰한 저 모습.

봉사원의 깍듯한 레절이나 가식으로 보기에는 옥향이라는 너인의 모든것이 너무도 청신하고 진실했다. 심산속의 웅달샘처럼 맑고도 그윽했다.

나의 눈앞으로 또다시 진희의 얼굴이 느닷없이 다가왔다.

사려깊던 눈빛, 웃음과 함께 정이 담뿍 고이던 그 불우물...

과연 한달전 그날 밤의 퇴근길에서 나는 무슨 일을 저질렀던가.

《요즘 왜 자꾸지각하느냐구? 왜 매일같이 술을 마시느냐구? 흥, 모두 나와 처지를 바꾸어놓고 생각들 해보란 말이야. 하긴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로 오늘 공장청년동맹회의에서 나를 짓때린 동무의 비판도 옳기야 다 옳지. 하지만 동무도 내 일에 너무 시시콜콜이 참견하진 말란 말이야. 이거야 어디 숨막혀 살겠어. 이 대철이를 뭘로 보구... 진희, 정 그렇게 못살게 굴겠으면 갈라지잔 말이야. 갈데로 가란 말이야.》

진희의 손에서 들가방이 떨어져내려 아스팔트 길위에 덩굴었다.

《그게, 그게 진심이에요?》

잘근잘근 입술을 짓물며 어리둥절 나를 쳐다보던 진희의 그 눈빛, 그 눈빛마저 별로 나를 중이 나게 했다.

《진심 아니면... 내가 한입으로 두말 앓는 성미란걸 잘 알지. 이제 모든게 귀찮아.》

나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거리낌없이 튀어나왔다.

《동문... 동문 정말 무섭게 거칠어졌군요. 변했던 말이에요. 동무가 이대로 계속 나가다가는 앞으로 결코 그 어떤 처녀의 사랑도 두번다시, 영원히 받아보지 못할거예요.》

《천만에, 건방지게.》

나는 비칠거리면서도 소리쳤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뜻밖에도 진희는 결연히 돌아섰다.

점점 멀어져가는 발자욱소리, 하현달빛에 여느때없이 날카롭게 날이 선듯 한 그의 어깨선, 진희는 그밤 이렇게 나와 갈라졌다.

그로부터 나는 며칠낮, 며칠밤을 뼈를 깎는 후회와 수치, 모멸감으로 몸부림쳤다. 한작업반에서 매일, 매 시각 그의 얼굴을 대하는것자체가 도저

히 건딜수 없었다.

내가 작업반모임때 사람들앞에서 그렇듯 무례하게 처신한것도 사실은 진희의 그 묻는듯 한, 여전히 나의 생활의 구석구석과 마음속 갈피까지 날날이 꿰뚫어보고있는듯 한 그 눈빛앞에 더욱 엇드레로 뽐질하고싶은 일종의 객기와 변덕이라고도 할수 있었다. 그러나그 일로 하여 진희는 더욱 나를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

《손님, 거스름돈을 받으셔야지요.》

풍채좋은 한 중년부인에게 건네는 옥향의 차분한 목소리가 번거로운 상념속에서 나를 끄집어냈다.

나는 불쑥 나자신에 대하여 화가 치밀었고 서글프게 느껴졌다.

나는 어째서 마냥 웃음을 잃고 모든것에 혐오감이나 느낀 사람처럼 잔뜩 얼굴을 찡그린채 찌뿌둥해서 다니고있단 말인가. 왜 뺄수줄에서 몇분 기다리는것도, 맥주집에서 잠시 줄을 서는것도 남먼저 부아가 나고 궤도전차에서 어찌다 누구에게 발등을 한번 밟혀도 대뜸 짜증부터 터쳐야 하는 것인가.

피로왔다. 안타까왔다.

나는 옥향이라는 저 너인과 무엇이 다른가, 나의 고독감과 공허감 같은것이 그의 생활속에 발붙일 틈이 있을수 있을까, 그의 생활을 저렇듯 밝게 비쳐주는것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이렇게 옥향의 그 군고구마매대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날이 흐를수록 나는 옥향과 한결음두결음 가까와져갔다.

옥향은 제대군인, 어버이장군님께서 찾아주셨던 녀성중대의 사관장이었다고 했다. 나이는 나보다 네살 우, 두 아이의 어머니였다.

언제 보아도 정겨운 웃음과 레절바르고 수양높은 몸가짐새로 사람들의 마음을 따스히 품어주고 쓰다듬어주는 옥향의 군고구마매대.

나는 퇴근길이면 옥향이 모르게 슬그머니 매대주위를 돌며 누가 흘린 종이봉투나 군고구마껍질을 주어 버림통에 넣어주곤 했다. 그렇게 주변정리를 해주는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가면서 마음마저 거뜬해지는것이였다.

어떤 땐 그의 눈에 띄여 씩스럽고 웅색할 때도 있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그런 날들중의 어느 일요일이였다.

늦잠에서 깨어나 창문을 활 열어제끼던 나는 sap을 들고 군고구마매대앞에 몰려서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

나는 철썩 이마를 쳤다. 그때에야 며칠전 옥향이 하던 말이 떠올랐던것이였다. 이제 거리의 모든 군고구마매대를 새 세기의 맛이 나게 현대적으로 다시 꾸린다는, 이번 기회에 단단히 잡도리를 하고 자체의 힘으로 매대를 한번 멋지게 지어보겠다던 옥향의 그 말.

나도 저들속에 섞이여 줄이 땀을 쏟고싶은 충동이 와락 북받쳐올랐다. 나는 단숨에 매대로 달려내려갔다.

《아니, 대철동무도 나왔군요.》

《흥, 그러면서도 뭐 누이라구?》 나는 부러 불통 그러지게 되받아넘기고는 옥향에게서 날쌔게 샅을 앓아들었다.

《일요일인데 모두들 이렇게… 정말 미안해요.》

《허, 이거 점점 더 판이 커지는게 안되겠다. 옥향동무야 봉사원이니 그렇다쳐두 일요일휴식이야 어길수 없는 공민의 권리인데 동무네같은 사람들 때문에 정말 야단은 야단이라니까. 이렇게 모두 옥향동무를 돕는다는 노릇이 도리어 그를 난처한 처지에 빠뜨려놓으면 이걸 또 어쩐다?…》

옥향의 뒤에 서있던 나이지숙한 아바이가 누구에게라없이 짐짓 랑패한 기색을 지어보였다.

《아바이도 참… 그런 말쯤 마십시오. 저한테 정말이지 오늘날같은 날이 제일 즐거운 일요일휴식인데두요.》

누군가의 걸걸한 목소리가 맞받아 거침없이 대꾸했다.

《하하하.》

유쾌한 웃음판이 터졌다.

나는 놀랐다.

알고보니 뜻밖에 그들도 모두가 나와 같이 자발적인 《지원자》, 이를테면 옥향의 《단골손님》들이었던것이다.

감동어린 눈으로 그들을 둘러보던 나는 누군가 세판게 잔등박을 갈기는 바람에 하마트면 삽자루를 놓칠뻔 했다.

미처 뒤를 돌아보기도 전에 귀에 익은 목소리.

《허, 이거 내가 좀 늦었는가. 아무튼 우리 옥향동무 얼굴이 넓긴 넓다. 소문난 일꾼인 대철이까지 이렇게 불러낸걸 보니…》

세포비서아바이였다.

나는 어안이 병병해졌다. 정국아바이까지 어떻게 다…

나는 그들속에서 옥향이라는 한 녀인에게로 더 깊이 끌려들어가게 되었다.

과학원 식료연구사처녀가 소곤소곤 먼저 말꼭지를 땀다.

《글쎄 전 처음에 옥향언니를 꼭 고구마연구사로 알았다니가요. 고구마에 대해 어찌나 박식한지 저도 깜짝 놀라게 되더군요. 고구마는 몇도에서 어떻게 구워야 제일 맛이 좋은가, 군고구마의 특이한 맛을 더욱 돋구자면 이렇게 해보는것이 어떤가?... 전 그런 언니앞에 정말이지 머리가 숙여졌어요.》

정국아바이도 연신 머리를 끄덕였다.

《아무렴, 내가 기계공장에 다니다니까 한불에 여러층, 여러칸의 고구마를 하나같이 맛 좋게 골고루 구워내자면 아무래도 고구마구이함을 좀 고치는것이 어떤가며 제가 그러본 도면까지 펼쳐놓을때 이 늙은게 코마루가 다 시큰해지더군. 내 그래서 옥향의 매대를 언제건 무심히 지나치지 못하는거지. 동갑이, 안 그런가?》

사람 좋은 얼굴에 싱글히 웃음발을 번지던 정국아바이의 《동갑이》도 생각깊은 어조로 말을 반었다.

《암, 옥향이야말로 남다른데가 있는 너자지. 내 옥향이가 군고구마매대 봉사원이여서 그런지 요새 자주 고구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곤 할 때가 많네. 자네도 알겠지만 고구마야 원래 땅속덩이줄기가 아닌가. 허나 난 굳이 그것을 땅속열매라고 부르고싶구만. 사실 고구마야 사과처럼, 도마도처럼 땅우에 열리는것도 아니고 걸모양도 번쩍거리지 않지. 그러나 땅속에 묵묵히 묻혀있어도 우리 생활에 얼마나 감미로운 맛과 향기를 보태주고있나. 땅우에 열매를 맺든 땅속에 열매를 맺든 햇빛을 향해 잎새를 펼치는거야 정해진 리치지. 난 옥향이라도 그렇게 생각되는구만. ...》

오후 네시가 넘어 우리는 한사코 옥향을 일에서 떼어내어 집으로 등을 떠밀었다.

모두가 유쾌히 헤어져갔다.

별스레 마음이 흥뜬 나도 정국아바이가 으스스릴듯 짹 잡아주었던 두손을 흐뭇이 내려다보며 씨엉씨엉 걸음을 내짚었다.

좋은 일요일, 참으로 흥그러운 휴식의 하루였다.

나는 다음날부터 옥향의 《설계도면》을 더 완성하여 반장이며 정국아바이랑 함께 여가시간마다 짹짹이 새 고구마구이함을 만들기 시작했다.

드디어 새 구이함이 완성되자 정국아바이는 누구보다 흡족해했다.

《역시 우리 대철이가 괜찮아. 소문난 제관공의 솜씨가 다르긴 다르거던. 난 요즘 그저 막 기쁘기만 하다니까. 몇번씩이나 큰 수술을 받고난 대철이 모친은 눈에 띄게 차도가 있지,공장속보판엔 대철이 이름이 다시 나불지, 작업반은 한건의 사고도 없이 매달 계획을 넘쳐수행하지. ... 대철이 자넨 또 얼마나 몰라보게 달라져가나, 허허허.》

《아바이도 참...》

나는 그만 귀뿌리만 슬슬 매만졌다.

아바이는 새 고구마구이함을 굳이 나에게 들려 옥향에게로 떠밀었다. 내가 공장밖을 나섰을 때는 그날따라 이해의 첫눈이 호합지게 쏟아져내리고 있었다.

옥향에게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은 날듯이 가벼웠다. 어둠의 나래가 내려앉기 시작하는 거리로 걸음을 재촉하는 나의 마음속에는 옥향의 군고구마매대가 벌써 보이는듯싶었다.

내가 살고있는 주택지구가 점점 시야속에 안겨들었다.

고층살림집들의 창가마다에서 하나, 둘... 불이 꽃송이처럼 커지기 시작했다.

행복한 생활의 향기런듯... 그 불빛들은 고층살림집들을 가지가지의 커다란 꽃송이처럼 단장시킨다.

그 꽃송이들마다에서 비쳐나오는 불빛들은 금시 꽃향기로 변하여 나의 가슴속으로 은은히 흘러드는듯싶다.

나의 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어느덧 옥향의 군고구마매대가 가까이 바라보였다.

덩지 큰 고층살림집밑에 수집은듯 살며시 불빛

미소를 짓고 서있는 군고구마매대.

멀리서부터 그 구수한 군고구마냄새가 바람결을 타고 은근하게 마음속으로 흘러든다.

옥향의 군고구마매대.

꽃송이!그것은 하나의 자그마한 꽃송이었다.

그러나 꽃이 작다고 결코 향기도 적은것은 아니었다.

그 꽃송이, 옥향의 군고구마매대로 뛰다싶이 다 가진 나는 새삼스럽게 매대를 살펴보았다.

소복단장차림의 아릿다운 너인인듯 눈처럼 하얀 타일로 산뜻하게 네 벽면을 두른 매대,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 환하게 트인 봉사창...

거리의 모든 군고구마매대들도 매벗이를 쭉 하였지만 옥향의 매대는 그의 남다른 정성이 가득히 고여서인지 더욱 아담하고 말쑥해보였다.

매대정면에 걸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고 쓴 족자, 알른알른 윤기도는 봉사탁이며 봉사저울...

언제 봐야 싱그러운 웃음이 피어있는 옥향의 얼굴은 오늘따라 더욱더 환해보였다. ...

내가 가져온 새 구이함에서 처음으로 구워낸 고구마를 받아들었을 때 나의 감흥이란 참으로 류별난것이었다.

겉질을 벗기고 따끈따끈한 새노란 속살에 입김을 훌훌 불며 입에 넣는 그 맛!

입안과 배속에 가득히 차오르던 달고도 향기롭고 독특한 그 맛, 그 냄새를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게다가 하나같이 골고루 구워진 고구마들은 한알한알 금방 숯불속에서 꺼내놓은것처럼 먹음직스러웠다.

《야, 이젠 됐어요. 정말 고마와요.》

코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매대안을 빙글빙글 돌아가는 옥향의 꾸밈없는 그 모습.

나는 그 모습에 심술꾸러기 어린 남동생처럼 일부터 통명스럽게 가시를 둔구였다. 어쨌든 나에게서는 매대가 거창한 나의 일터에 비하면 여전히 단조로와보이기는 마찬가지기때문이었다. 두달전만 해도 길 건너 맞은편 식당안에서 시답지 않게 내다보던 매대, 바빠 지나쳐가며 흥심없이 얼핏 들여다보던 매대...

《누이, 이 일이 정말 그렇게도 재미나우?》

옥향은 겹짚은 눈썹을 살그머니 치켜떴다.

《그래요. 군고구마를 받아들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에겐 정말이지 얼마나 즐거운 일이라구요. 대철동무도 알겠지만 이 군고구마매대가 어떻게 생겨나고 오늘처럼 꾸려졌어요.》

옥향의 얼굴에 숙연한 빛이 떠올랐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장정의 그 바쁘신 길에서도 더 훌륭히 꾸려주시려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덕우에 솟아난 매대가 아니예요.》

옥향은 군고구마 한알을 들어 그 무슨 보물처럼 소중히 줌안에 감싸쥐고는 봉긋한 가슴우에 올려놓았다.

《고구마는 사실 사람들의 건강장수에 정말 좋

은 식료품이에요. 고구마에는 영양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아홉가지 아미노산과 함께 필수아미노산인 리진은 흰쌀이나 밀가루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고구마에 들어있는 카로틴이란 물질은 암을 미리 막는 효과가 아주 좋아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일곱가지 간보호를 위한 식료품가운데서도 고구마는 첫번째 자리에 놓였어요. 그뿐인줄 아세요. 군고구마는 야맹증때, 속에 구멍을 뚫고 생강조각을 넣고 구운 군고구마는 몸이 붓는것을 내리게 하는데 특효가 있어요. ...》

나의 머리속에 불현듯 어느 일요일 식료연구사 처녀가 하던 말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나는 진심으로 감동되어 옥향에게 엄지손가락을 흔들어보였다.

《야, 누이는 정말 고구마박사군요, 박사!》

《내가 박사라고요? 아이참.》

옥향은 어쭙게 웃었다. 웃으면서 그냥 조용히 말을 했다. 그러나 그 말은 자기자신에게 하는 말이였다.

《내가 무슨 박사겠어요. 나는 정말 박사가 못되는것이 한스러워요. 솔직히 나를 보고 어느 큰 백화점 같은데로 일터를 옮기는것이 어떤가며 팔소매를 잡아끄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는 못해요. 나는 이 매대에 너무나 정이 들어있어요. 사람들은 아마 다는 모를거예요. 이 군고구마 한알한알에도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는지...》

옥향은 호 가볍게 숨을 내그었다.

《나는 이 매대앞에 서는 사람들마다 그 사랑과 은덕을 심장깊이 새기고 누구나 보답의 한마음, 애국의 한마음을 가다듬게 된다면 더 바랄것이 없어요.》

걱정의 파도가 썩 처절씩 가슴벽을 두드렸다.

바로 그래서였구나.

사람들의 따뜻한 애정과 감사와존경의 눈길에 떠받들리어 이 거리의 한복판에 정답게 서있는 옥향의 군고구마매대.

옥향, 그는 아득히 높은 곳에서 참으로 고결하고 기품있게 살아가고있는 너인이였다. 그래서 그의 몸전체가 불덩어리처럼 언제나 후더운 열과 정, 사랑으로 빛나고 그렇듯 티없이 맑고 깨끗하며 그렇게도 고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것이 아닌가. ...

나는 옥향과 같이 눈내리는 밤거리를 천천히 걸고있었다. 옥향이 시어머님의 생일에 드릴 기념품도 들어다줄겸 그를 집까지 바래주는 걸음이었다. 어느사이 커그나 쌓인 눈이 발밑에서 빠그득 빠그득 귀맛좋은 소리를 냈다.

소리없이 날아내리는 눈송이들이 점점 더 뽀얗게 앞을 가리웠다. 그러나 우정 무궤도전차도 타지 않은터여서 우리는 소근소근 이야기를 나누며 반걸음씩 저겨딘고있었다.

《저, 실례가 아니라면... 대철동무에겐 애인이 있겠지요?》

《애인이요?》

별안간 나는 길복판에 우뚝 멈춰서서 구두끝을  
녀속에 그루박았다.

진희, 내가 과연 진희를 잊을수 있단 말인가.

정녕 그와 영영 갈라질수 있단 말인가?

부지불식간에 목안이 뜨겁게 타들어왔다.

나는 한웅큼 눈을 그러쥐며 얼굴에 부비고나서  
콘소리로 대답했다.

《있지요. 있구말구요. 그 처녀도 펍 훌륭한 녀  
자랍니다. 내 성미가 워낙 못돼먹어서 괜히 우쭐  
대며 속이나 자꾸 상하게 하는데 그 처녀가 마음  
고생을 크게 하지요. 김진희라고 나와 한작업반치  
년데 내 기회가 생기면 누이한테 데리고 오지  
요.》

뜻밖에도 나의 입에서 용감하게 이런 말이 튀  
어나왔다. 진희의 한조각 용서도 받지 못한채, 앞  
으로의 일을 꼬물만큼도 장담할수 없는 처지에서  
...

옥향은 빙그레 미소를 그렸다.

《대철동무를 보면 진희라는 그 처녀도 꽤찮으  
리라라는 생각이 드는걸요...》

온몸이 확 달아올랐다. 진희가 이 일을 알면 뭐  
라고 할가?

내가 잘못된 일이니 내가 먼저 용서를 빌자.

무릎을 꿇고서라도 백번 안되면 천번이라도. 사  
내란게 허심하고 대범하게 자기를 반성할줄도 알  
아야지, 래일이라도당장!

《옥류교》를 건너선 다음에야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희썸한 눈발속으로 점점 잦아드는 옥향의  
뒤모습을 점도록 지켜보며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이마며 볼에 찰쭈듯이 내려앉는 눈송이들마저  
못내 따스하게만 느껴졌다. ...

설명절을 며칠 앞둔 때여서 거리는 온통 환희  
와 랑만으로 들끓고있었다.

나의 발걸음도 자못 씩씩하고 당당했다. 더우기  
나는 지금 옥향의 집으로 가고있는 길이였다. 퇴  
근시간전에 정국아바이가 슬쩍 튕겨준 한마디 말  
이 나의 발걸음을 더욱 불달게 했다.

오늘이 바로 《동갑이》가 귀땀해준 옥향의 생  
일이라며 넌지시 건넸던 웅글은 목소리.

《어쩌겠나. 난 오늘밤에도 새 대상설비생산때문  
에 시간을 낼것 같지 못하구만. 옥향이 제 생일이  
라고 언제 날을 따로 마련해두었겠나. 그러니 자  
네가 가서 축하도 해줄겸 오늘 하루밤만이라도  
그를 편히 쉬도록 해주게. 옥향의 생일기념품이란  
음식이랑은 변변치 못하나마 우리 며늘애가 다  
준비해놓았네. 옥향에게 내인사를 꼭 전해달라구.  
한 로당원이 진심으로 감복했다구, 고맙다구...》

꽃상점에 들러 생화묶음을 사들고 서둘러 걸음  
발을 다그치는 나의 입에서는 경쾌한 노래가락까  
지 절로 흘러나왔다.

《옥류교》를 건너서 좌측편으로 두번째 고층살  
림집, 6층 2호라고 했지.

그러나 내가 방에 들어섰을 때 오늘의 주인공  
인 옥향의 모습만은 보이지 않았다. 요란하지는  
않으나 지성을 듬뿍 고인 생일상가운데에 내가

가져온 백일홍꽃다발을 꽂고난 뒤 나는 초조하게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계바늘은 여덟시를 넘어서고있었다.

(이거 퇴근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내가 머리를 기웃거리자 옥향의 시부모님들도  
걱정스럽게 끼어들었다.

《글쎄 우리 며늘애가 무슨 일때문인지 요지음  
은 자주 이렇게 늦어지긴 했네. 하지만 며칠전부  
터 영철이랑 오늘만은 엄마생일인데 꼭 일찌기  
들어와야 한다구 그만큼 당부했는데도... 쫓, 어디  
서 이렇게 늦어진단.》

영철이도 애가 타는지 애꿎은 머리카락만 쥐여  
뜯고있었다.

일흔나이가 넘은 옥향의 시부모님들, 더우기 옥  
향의 남편까지 618건설돌격대에 탄원해나간지 두  
해째나 된다고 했지. 게다가 탁아소에 다닌다는  
봄이는 또...

불현듯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른다.

우리 집에도 어머니의 손을 기다리는 일감들이  
그래 얼마나 많았던가?

나 혼자 안아키우면서도 아침이면 아침대로,  
직장일을 마치고 돌아온 밤이면 밤대로 그저 늘  
시간이 모자라 안타까와하던 어머니...

나는 옥향앞에 다시금 머리가 깊숙이 수그러  
졌다.

소박하고 평범한 살림살이, 한 가정의 주부로서  
옥향에겐들 어찌 남아돌아가는 시간이 있으랴. 남  
편의 뒤편까지 혼자 도맡아 안고 시부모님들을 모  
시느라, 아이들도 돌보느라 정말 눈코 뜰새없이 마  
음쓰이는 일, 옥향의 손길이 가닿아야 할 일들이  
그 얼마나.

얼마나 많은 한 가정의 짐이 옥향의 어깨우에  
실려있으며 그에게라고 왜 자그마한 마음속고충  
이나 그늘이라도 없으랴. ...

《허, 우리가 너무 늦었는가.》

옥향을 앞세우고 들어서는 사람은 정국아바이  
의 그 인상좋은 《동갑이》가 아닌가. 그뒤로 서  
너명의 낮익은 얼굴들.

《허참, 대철동무랑 만든 그 새 고구마구이함을  
다른 매대들에도 일반화해보겠다구 옆의 매대에  
이때껏 들어박혀있는걸 겨우 《체포》해가지고 왔  
다니까.》

어지간히 나무람섞인 《동갑이》의 목소리였다.  
그럼 그것때문에, 아직은 어설픈데가 적지 않을  
물건인데... 나는 더운것을 삼켰다. ...

박수가 터지고 오락회가 벌어졌다.

선참으로 소학교 2학년에 다닌다는 영철이가  
일어섰다.

《엄마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꾸벅 절을 하고 고개를 처든 영철이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반짝이고있는것이였다.

《어머닌 나빠. 나쁜 엄마야. 래일 당장 큰 이모  
네 집에 가서 봄이를 찾아오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가...》

《영철아.》

옥향이 다급히 뛰쳐일어났으나 영철이의 목소



리는 이미 흐느낌으로 변해버렸다. 어깨를 마구 들먹이며 품에 안겨든 영철이를 달래던 《동갑이》도 두눈을 습벅였다.

《원 녀석두…》 그의 눈가에도 물기가 번지고 있었다.

《아가 누구한테서 죄다 들은 모양인데 일이 이렇게 된바 내 동무들앞에서 다 털어놓지.》

《부위원장동지.》

옥향이 또다시 황급히 《동갑이》의 팔을 부여잡았으나 아바이는 그대로 주섬주섬 말을 이어나갔다.

《영철이는 사실 옥향동무의 친자식이 아니요. 옥향동무가 복무하던 중대 주변농장의 한 작업반장네 아이였지. …》

아버이장군님을 중대에 모시겠다고 그렇게도 아글타글 애쓰는 옥향이네를 성심성의로 도와나서던 그 작업반장부부, 그들이 뜻밖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옥향이 제대되면서 처녀의 몸에 품어안았던 아가 바로 영철이었다.

봄이를 낳아서부터는 영철이에 대한 정이 꼬물만큼이라도 덜어질세라 더더욱 원심을 쓰며 극성이더니 얼마전에는 아예 봄이를 자기 언니에게 떠맡겼던 것이었다.

진짜배기총대로 키워야 할 영철이의 눈동자에 단 한점의 그늘이라도 비끼게 해서는 안된다며…

《엄마야, 어머니!》

옥향의 품속에 뛰어들어 영철이는 목메여 웨치고 있었다.

나는 피가 지도록 입술을 짹 깨물었다. 그리고 부르짖었다.

(진희동무, 나를 용서해주오. 나는 정말 몸쓸놈이었소. 나같은 놈이 뭐라구. 나같은게 몇푼어치의 값이나 든다구 감히 이런 사람들속에 버젓이 머리를 쳐들고 다녔단 말이요? 동무가 나에게 왜 그렇게 이즈러져가고 거칠어져가는지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라고 했을 때 난 코웃음을 쳤었지. 이제야 난 알았소. 그것은 투정질, 불평불만이었고 배은망덕이었소. 난 인간이 아니었소. 인간이… 허나 믿어주오. 나도 반드시 옥향누이처럼 참되고 아름답게 살테요. …)

《동갑이》의 이야기도 계속되고 있었다.

《… 다 아시다싶이 옥향동무가 일하는 군고구마매대는 비록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작은 매대에서 넘쳐나는 군고구마의 향취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수십년간 이국살이를 체험해온 귀국공민인 나에게는 잊을수 없는 추억이 있습니다. 두손우에 따끈한 군고구마를 올려놓고 향수에 눈물짓던 동포들의 모습을 잊을수 없습니다. …

내 옥향동무 세대주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기

서보다 구역인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또 한 평범한 인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모두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 장군님식솔임을 뜨겁게 일깨워주며 아버지장군님을 받들어가는 옥향동무에게 나의 이 반백을 깊이 속이게 된다는것입니다.》

합창이 울린다.

나와 식료연구사처녀의 혼성2중창에 맞추어 모두의 심장속에서 불꽃처럼 터져나오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

아, 이런 때 두볼을 적시는 사나이의 눈물은 얼마나 좋은가.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품금소리 울려라

…

행복한 나날에나 어려운 나날에나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는 이 노래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울려퍼지는 내 조국!

아버이수령님과 우리 장군님두리에 뭉친 내 나라 사람들모두가 화목하여라는 노래구절이 류다른 감회를 불러일으키며 더욱 심금을 울려준다.

우리는 손에 손을 맞잡고 가슴터쳐 목청껏 부르고 또 불렀다.

우리 힘 꺾을자 그 어데 있으랴

풍랑도 무섭지 않네

…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도 하나 둘 창문가에 내려앉는 밤… 행복한 밤이었다.

×

우리는 또다시 일제히 전투에 진입하였다.

못 잊을 그날을 보낸 뒤 내가 백두산선군청년 발전소로 달려나온지도 어느덧 세해가 흘렀다.

그동안의 날과 달들은 수많은 《옥향이》들이 나와 함께 피도 살도 나누며 심장을 맞대고 산 나날들이기도 했다.

나와 진희는 그 사이 귀여운 딸애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다.

우리는 딸애의 이름을 《옥향》이라고 지었다. … 나는 지금도 때없이 자주 옥향과 그의 군고구마매대를 그려보곤 한다.

우리 생활의 그 어디서나 삶의 독특한 향기를 풍기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가.

그들에게서는 그 어떤 특별한 계기나 비상한 정황에서만이 아니라 레사로운 생활의 매 순간순간 이 시대 공민들의 본태와 진정한 인간미가 취할듯이 풍겨나오고있는것이다.

오, 감미롭고 구수한 군고구마의 향기여!…

## 내 삶의 년륜

윤정길

### 교단에 올라

이 아침에도 교단에 오르니  
반겨맞는 정찬 얼굴들  
나는 그들앞에 머리숙여 인사한다  
나의 강의는 이렇게 시작된다

그 어떤 말보다도 설명보다도  
마음속의 진정을 나는 이렇게 헤친다  
머리숙여 보내는 인사  
생활의 규범도 도덕도  
강의실엔 따로 정해졌던가

웃사람에게 먼저 인사드림이  
배우는 사람들의 레절이라 하라  
박사의 학위로도 교수의 백발로도  
어길수 없고 어겨서는 안되는  
강의실의 레법은 이렇게 지켜지거니

인사를 받아다오 제자들이여  
그대들이 나를 스승이라 부를수 있다면  
내 삶은 그대들의 마음속에 깃들리  
제자들이 새겨갈 인생의 나이로

내 한생의 보람도 흔적도 남으리

그대들 자라 지켜설 초소에서  
우리 장군님 기쁘시여 환히 웃으시도록  
위훈떨친 자랑을 아뢰일적에  
내 또한 웃으며 눈굽 흠치리라  
허나 만약 시련앞에 고개숙인 제자가 있다면  
내 또한 조국앞에 머리 못 들리라

미래의 주인—그대들앞에  
선대가 바치는 헌신의 표시로 알아다오  
머리숙여 보내는 교원의 인사  
대학생 그대들이 지켜야 할 레절은  
조국땅에 수놓아갈 참된 삶의 자욱인것을...

래일을 마중하여 나는 교단에 섰노라  
미래가 비껴웃는 눈동자들앞에  
나는 머리를 숙여 인사한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아  
조국은 래일을 이렇게 그대들에게 맡겼다

### 내 모습

이른아침 거울앞에서  
제모습을 다듬는 한때입니다  
안해가 웃고 딸도 웃어도  
버릇처럼 출근전엔 거울에 비춰보는  
내 모습입니다

교단에 나서려니  
자꾸만 마음이 더 가는 차림새  
이제는 어느덧 세월이 흘러  
머리에 흰오리 섞여도  
변함없이 지켜오는 나의 일과입니다

꽃피고 열매맺는 자연의 사계절을  
교정에서 맞고보내며

넓지 않은 교단우에  
한생의 사계절을 다 없고사는 마음

교단에 선 내 모습에 흠이 있다면  
학생들의 마음에도 구김살이 생기려니  
제자들이 한생을 내 모습에 비춰보며  
자기 앞날의 보람을 설계할수 없다면...

아, 오늘을 참답게 살아 래일에 후회없을  
내 삶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 아침에도 나는 봅니다 거울앞에서  
거울에 비낀 내 모습보다도  
나를 닮을 제자들 래일의 그 모습을

### 교훈시

성적표 칸칸마다 점수를 새겨갈 때  
나에겐 보여오네 다가오는 래일이

성적은 래일이 오는 징검돌로 되더라

## 교문에 서서

입학의 꽃송이 가슴에 달고  
교문에 들어서던 때 어제같은데  
오늘은 이 교문을 나서는구나  
미더운 졸업생 정든 그대들이여

내리는 꽃보라 늘어진 꽃테프  
참 세월도 빠르다  
교문에 서서 오래도록 내 손 흔드노니  
축하한다 축복한다  
수년세월 자라서 떠나가는 그대들

그대들 이제 가닿을 그곳은  
최전연초소와 공장지구  
혹은 조국땅 한끝...  
장군님 가시는 그 모든 곳

벽찬 생활이 굵이쳐흐르는  
성스러운 선군혁명의 전구마다에서  
그대들의 힘과 재능으로하여  
진군하는 내 조국의 보폭은 더욱 커지고  
강성대국의 대들보는 더 높이 얹히리

잘 가라  
모교가 새겨준 수업의 성적을  
투쟁의 길에서 위훈으로 검증받고  
이 교문으로 뿔뿔이 들어설 그대들아

아, 선군혁명의 첫자리에 삶의 빛을 남기고  
금별 빛내며 그대들 모교로 돌아올 날에도  
나는 이 교문에 오늘처럼 서있으리  
그대들 졸업의 교문을 나서는 날은 있어도  
스승된 이 마음을 떠난 날은 없어야

## 내 삶의 년륜

푸른 숲을 키우고  
들 가득 오곡을 가꾸며  
천만이 바친 애국에 받들려 강대한  
내 조국에  
나는 무엇을 바치는가

쇠물을 끓이고  
강하를 막아 언제를 세우며  
사람마다 한생의 긍지를 말할 때  
나의 한생은 어떻게 흘렀던가  
내 인생은 무엇으로 빛나던가

내 삶의 날과 날을 더듬어보면  
너무도 단조로운듯  
교정길의 사색길은 발자국소리  
깊은 밤에도 교수안을 번지던 소리  
강의실을 채우던 나직한 목소리...  
들끓는 현실은 내 멀리에 있었던가

위훈이란 말과 어울리지 않고  
기적이란 말과도 낯이 선  
나의 생활 나의 교단  
그러나 말하고싶다 나는 말하련다  
위훈을! 기적을! 삶의 희열을!

자신의 오늘을 위한 삶보다  
제자들의 장래를 위한 고심으로  
련련히 날과 날을 이으며  
제자들이 찾아낸 탐구의 싹이  
자신의 발명보다 더 기쁘던 마음

지식이란 최대의 재부를 얻기 위해  
젊은이들 교문으로 들어설 때  
지식이란 최대의 재부를 주기 위해  
머리 희도록 교문으로 들어서며

그 마음 불꽃 되어 제자들의 심장 달굴 때요, 정  
녕 나의 한생은  
넓지 않은 교정에만 흐르던가

인류가 쌓아온 지성의 령봉우에  
걸음걸음 나의 제자들을 이끌어세우려  
과학의 고지를 앞장서 뚫아온  
내 삶의 발걸음

총검이 서리발 뿔는 최전선과  
숲을 이룬 공장 드넓은 전야...  
이 땅 그 어디나 제자들 가는 곳마다  
내 삶의 자욱은 이어지고  
그들의 위훈으로 천만년 더욱 부강할  
조국의 래일에도 내 한생은 이어져  
나는 한생에 오늘과 래일을 다 사는 사람

우주를 정복하는 우리 위성의 궤도에도  
원췌를 전률케 하는 전쟁억제력의 총대에도  
그리고 이제 태어나고 태어날  
희한한 창조와 기적의 력사우에도  
제자들의 이름들로 내 삶의 년륜은 새겨져  
나는 한생으로 열백생을 사는 사람!

부러워하라  
영웅의 뒤에는 그를 키운 스승이 있다시며  
우리 장군님 직업적인 혁명가라 불러주신  
교육자—나의 삶을

정성을 바치고 뉘를 바치며  
키워낸 제자들과 더불어  
나의 삶은 오늘만이 아닌 래일에도 빛난다  
장군님 그려보신 승리의 그날에 사는  
아, 내 삶은 조국의 래일로 빛난다!

# 선군시대의 요구와 작가의 형상세계

-올해 상반기도 《조선문학》잡지에 발표된 단편소설들을 두고-

리창유

우리 조국과 혁명력사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게 될 장엄한 투쟁의 해, 민족사적경사의 해인 올해 상반기도에 우리 작가들은 사상예술적으로 비교적 우수한 단편소설들을 적지 않게 내놓았다.

이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나라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일대 통성과 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격동적인 시기에 공화국창건 60돐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비등된 열의를 한층 고무추동하기 위한 우리 작가들의 들끓는 기세를 잘 말하여준다.

단편소설은 우리 시대 주인공들의 생활과 투쟁의 일단을 통하여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신속정확히 제기하고 해명할수 있는 자체 양식상 특성으로 하여 우리 독자들의 귀중한 생활의 길동무로 되고있다.

단편소설에 선군시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 및 료리도덕적문제가 제때에 담겨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수령결사옹위정신을 핵으로 하는 혁명적군인정신으로 고동치는 생동한 성격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체의 사명을 망각한것으로 된다.

이것은 비단 현실주제의 단편소설에만 해당되는 사상미학적요구가 아니며 지난 시기의 생활소재로 썩여진 작품에도 그대로 해당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은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내세우고 그것을 사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해결하여야 인간학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올해 상반기도 《조선문학》잡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후시기에 산골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혁명업적을 소재로 한 단편소설 《움트는 아침》(박찬은, 4호)과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무력부장으로 사업하던 오진우동지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내용을 담은 단편소설 《믿음의 세계》(김룡연, 2호)가 실렸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 나라 명산 칠보산을 세계에 자랑할수 있는 인민의 유원지로 꾸려주시기 위하여 몸소 이곳을 찾으신 현지도사적을 내용으로 한 단편소설 《칠보산의 봄우뢰》(김도환, 6호)가 발표되였다.

이 3편의 수령형상소설들은 제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있지만 그가운데서도 《믿음의세계》는 생동한 생활세부들을 적지 않게 탐구하여 인입함으로써 혁명사적내용을 비교적 실감있게 감동적으로 그려보인 점에서 특색이 있다고 할수 있다.

올해 상반기도 《조선문학》잡지 지상에 실린 단편소설들을 살펴보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한생을 값있게 생활한 사람들과 공로자들에 대한 회상을 선군의 현실에 투영시켜 그려낸 사회주의애국주의주제의 작품들인 《전우의 고향》(백명길, 1호), 《병풍덕》(정금너, 2호), 《적동색머리수건》(황용남, 4호), 《숲에 깃든 녀》(백명길, 5호), 《보금자리》(리성식, 1호)와 선군현실주제의 작품들인 《연구사의 조수》(김혜영, 3호), 《대지의 눈》(박경원, 5호), 계급교양주제의 작품인 《호수가마을의 배사공》(김길손, 3호) 등이 사상예술적으로 비교적 우수한 소설들이라고 생각한다.

이 작품들을 살펴보면 우선 몇몇 현역, 현직작가들을 제외하고 《조선문학》잡지 지상에 처음으로 단편소설을 발표한 신인들이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수령형상소설은 제외) 여기서 우리는 서로 다른 두가지 경향에 대하여 이야기할수 있는바 그 하나는 앞으로의 소설창작을 담당할 신인대오가 왕성하게 자라나고있는 좋은 점과 다른하나는 이와는 달리 큰 형식의 작품창작에 몰두하던 나머지 단편소설창작에 거의 눈을 돌리지 않는 중견작가들의 그릇된 창작태도이다.

이 작품들을 살펴보면 또한 종전에 없거나 힘들게 보아오던 생활소재가 취급되어있다.

이것은 우리 작가들의 소재탐구령역이 비상히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선군의 현실을 반영한 군민일치의 주제, 혁명전통주제, 조국해방전쟁주제의 작품들은 별로 찾아볼수 없다.

성과를 거둔 작품들가운데서 《전우의 고향》과 《숲에 깃든 녀》은 한 작가에 의해 썩여진것들이다.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에 들어와 련속 두편의 우수한 작품을 《조선문학》잡지 지상에 발표함으로써 작가는 자기의 드높은 창작열의를 훌륭히 과시하고있다고 할수 있다.

이 두 작품의 우점은 무엇보다먼저 선군시대의 절박한 사회적문제를 제때에 포착하고 이에 민감한 해명을 준것이다.

《전우의 고향》에서는 이 땅우에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운 전후복구건설시기 우리인민이 발휘한 불굴의 투쟁정신은 어제도 그러했지만 선군의 기상이 나래치는 오늘에도 그리고 래일에도 영원

히 이어가야 한다는 우리 시대의 의의있는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작품에서는 한쪽다리를 의족하고 제대된 영예 군인인 리범수가 전사한 본대장 림선준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 그가 전투의 여가에 짬짬이 만든 미장갑을 그의 동생 림선욱에게 전달하는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해방전 어머니를 여의고 전쟁시기 미군놈의 폭격에 아버지마저 잃은데다가 전선에 나간 오빠마저 희생되었으므로 혈혈단신이 된 선욱은 미장갑을 오빠의 한낱 유물로 간주하고 이모가 있는 머나먼 길주땅에 이사가려고 한다. 이런 형편에서의 용군출신이었던 리범수는 중앙병원과송장을 무시하고 전우의 고향에 남아 미군놈 폭격에 폐허가 된 운천땅을 잘 꾸릴 결심을 다진다.

그의 결심에 감동된 선욱은 자기의 서툰 행동을 뉘우치고 고향에 남아 그와 결혼하고 한생 건설사업소 미장공으로 일한다. ... 그리고 아들이 건설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장을 거쳐 건설사업소 지배인이 되던 날 이 미장갑을 넘겨주며 아버지 리범수가 어떻게 되어 운천땅에 자리잡게 되었으며 건설사업소 지배인으로까지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작품에서는 주인공 리범수의 형상을 통하여 비록 나서자란 고향은 아니지만 전선에서 함께 싸운 전우의 고향땅에 남아 그가 못 다한 일, 그의 희망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시대 인간의 참된 도덕의리와 깨끗한 량심에 대하여 감명깊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시대 주체형의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삶, 어떤 생활이 가장 보람차고 가치있는것이며 거기에 이르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식 주체사실주의문학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형상해야 할 의의있는 인간문제라고 할수 있다.

우리 시대 주체형의 인간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고있으며 집단과 동지를 위하여 진심을 다 기울이는것을 생활의 철칙으로 삼고있다.

하지만 참된 삶을 위한 투쟁로정은 늘 곧고 평탄한것만 주어져있지 않다. 때로는 가슴아픈 희생과 곡절도 겪을수 있으나 총체적으로 참된 삶을 위한 투쟁로정은 혁명적량만에 넘친 보람찬 위훈으로 수놓아져있다.

이러한 참된 삶을 두고 우리 식 문학예술은 보람찬 생의 로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내세우며 곡절많은 그들의 인생행로를 밝고 값높게 형상하고있다.

작품에서는 영예군인의 몸으로 전우의 고향에 뿌리내린 의용군출신 제대병사 리범수가 운천땅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일떠세우는데 진심을 다 바쳤으며 이로 하여 건설사업소 지배인으로 사업하다가 전쟁시기 입은 상처의 후환으로 일찌기 세상을 떠나는것으로 값높은 그의 한생을 눈물도 있고 환희도 있게 잘 형상하였다.

《숲에 깃든 녀》은 산과 들에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는 일은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해방후 사모산지구에 다릅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었으며 전쟁의 불비속에서 양묘장의 애어린 나무모를 목숨으로 지켜낸 박제경아바이의 영웅적최후와 대를 이어 그의 아들과 며느리가 이 지구에 숲을 조성하고 가꾼 한 가정의 인생사를 극성이 있게 잘엮은 작품이다.

소설은 산림조성사업은 곧 애국이고 오늘날이나 나라 태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사람들의 중요한 사업이라는 의의있고 절박한 시대의 요구를 제기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선군시대의 현실적인 조미의 사회적문제를 반영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소설에서는 과거 일제시기 사모산지구의 북쪽으로 수백여리나 뻗은 다릅령에서 저절로 자란 다릅나무의 아지를 베내어 목침을 만들어 그것을 팔아 연명해가던 박제경이 왜년에게 비싼 값으로 팔아넘긴 목침이 화근이 되어 이 지구 산림간수 마쁘다눔에게 걸려들어 경을 치르게 되는 사건이며 그놈이 인부들을 데려다 다릅나무를 무대기로 찍어내자 분을 삭일수 없어 불을 놓아 다릅나무숲을 태워버리는 사건 그리고 10년형을 받고 감옥으로 끌려갔다가 7년만에 해방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후 어혈로 자리에 눕게 되는 이야기 등을 통하여 일제놈들의 우리 나라 산림략탈만행을 계급교양의 견지에서 잘 그려내고있다.

주인공 박제경이 산림조성사업에 발벗고 나서게 되는 계기는 해방된 이듬해 봄 평양 문수봉에 오르시여 조국의 앞날을 위하여, 후손들의 행복을 위하여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많이 심어야 하며 그것을 극력 아끼고 사랑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교시였다.

신문을 통하여 이 희한한 소식을 들은 박제경은 고향산천을 푸른 숲 우거지게 하는 길이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길이요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길이라것을 명심하고 자체로 양묘장을 꾸렸을뿐아니라 다릅령과 한생을 같이 할 결심밑에 이 지구에 나무모를 열심히 심는다.

그러던 그는 조국해방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날무렵 미군폭격기들의 무차별폭격속에서 양묘장을 지키다가 장렬히 희생된다.

부상당한 몸으로 몸을굴러 불길속에서 다릅나무모를 구원해내고 눈을 감는 박제경, 그의 뒤를 이어 전선에서 돌아온 아들내외가 이 령을 푸른 숲으로 뒤덮이게 한다. ...

작품은 단편소설치고는 작중인물들의 수에 있어서나 이러저러한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사건이 많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작품은 분량에 관계없이 잘 읽히우며 긍정인물들의 생활에 공감이가다.

이것은 작가가 인간과 생활을 미화분식하거나 꾸밈내기를 하지 않고 진실하게 그려내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심장으로 받들고 고향의 산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려는 사업에 스스로 발벗고 나선 한 공로자의 형상을 생동한 개성

을 가진 성격으로 잘 형상해내었기 때문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작품은 작가의 창작계열에서 새로운 높이에 이른 단편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에 지적한 두 단편소설의 특성은 또한 생동하고 특색있는 세부들을 인입하여 3대에 걸치는 이야기를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현재로 엮어 꾸어가면서 주인공의 생활에 집중시키고 집약시켜 립체미가 있게 구성을 잘 짜고든것이다.

《전우의 고향》에서는 하나의 미장칼세부를 인입하여 작품전반의 이야기를 펼쳐보이고있다.

일제시기 립선준의 아버지 립공태가 군청보수 공사에 내몰렸을 때 미장기술을 터득하려고 찜시간에 왜놈의 미장칼을 잠깐 써본게 《죄》로 되어 죽도록 매맞은 이야기며 해방된 이듬해 립선준이 새 교사전설장에 지원나갔다가 개울가에서 목욕을 하고 아버지의 미장칼을 풀숲에 두고온것으로 하여 된욕을 먹은 이야기, 전쟁시기 립선준이 승리한 래일이 오면 고향을 제손으로 꾸릴 결심으로 저희들이 싸벌군 미군비행기의 동체에서 첩관을 뜯어내어 미장칼을 찹찹이 만든 이야기, 그 미장칼을최후의 순간에 전우인 리범수에게 부탁하여 너동생 선옥에게 보내게 된 이야기, 또한 이 미장칼로 하여 리범수와 립선옥이 인연을 맺게 되고 결혼하게 된 이야기며 그후 이들의 아들인 《나》에게 전해지는 이야기 등이 그러하다.

《술에 갇든 녀》에도 이채로운 세부형상이 있다. 레컨대 다릅나무목침세부와 다릅나무모세부이다.

작품에서 다릅나무목침세부는 주인공 박제경의 일제시기 비참한 과거사를 펼쳐준다면 불타버린 다릅령에서 연약한 다릅나무를 발견한 세부는 그후 그가 양묘장을 자체로 꾸리고 술한 나무모를 키워냈을뿐아니라 전화의 불길속에서 이 나무모를 목숨바쳐 구원해내는 이야기로 승화된다.

이처럼 두 단편소설은 이채롭고 생동한 생활세부를 잘 들어주고 이야기를 묘기있게 잘 엮어나가고있다.

일반적으로 단편소설창작에서는 독특하고 생동한 하나의 세부를 잘 《인입》하여 활용한다면 이야기를 참신하게 잘 꾸며나갈수 있다.

따라서 생동한 생활세부를 탐구하여 이야기를 흥미있게 펼쳐나가는것은 작가의 형상기교에서 자못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이 작품들의 특성은 다음으로 자연묘사와 정황 묘사를 토색이 짙게 잘 펼친것이다.

하지만 《술에 갇든 녀》의 자연묘사를 하면서 인입한 메돼지와 관련한 일화로 하여 일련의 손상을 입고있다.

작품에서는 다릅령의 푸른 숲, 산짐승떼가 우글대고 산열매가 무르익는 숲속의 황홀한 세계를 형상함에 있어서 메돼지가 욕심스레 먹고 배설한 설익은 다래무지가 비에 젖고 서리를 맞은 후 알알이 맛이 들어 참 별맛이라는것, 그 말을 듣노라면 입안에 저절로 군침이 돈다는것과 같은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미감에 맞지 않는 비진실하고 저조한 일화를 삽입하고있다.

이러한 일화는 작품의 품위를 보장함에 있어서 커다란 손상을 준다고 말할수 있다.

《적동색머리수건》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한생을 값있게 보낸 실농군 립대복의 형상을 수령님과 관계속에서 흥미진진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작품에서는 모내는기계를 농장에 도입할 때있었던 일과 포전으로 젖먹이어린이들을 싣고다닐 유모차가 오가게 된 잇을수 없는 사연에 갇든 이야기에 형상의 초점을 돌리면서 주인공 립대복이 조국해방전쟁시기 미군놈의 폭격에 안해를 잃고 젖먹이 어린 딸 준실이를 키우던 사실이며 그가 전쟁시기 가족을 다 잃고 이 마을로 이사온 탁아소보육원 장길순과 뒤늦게야 가정을 이루게 된 남다른 인연 등을 적동색머리수건과 같은 생동한 세부형상을 통하여 진실하게 그려보이고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된 우리 인민의 행복한 모습을 뜨겁게 느끼게 하고있다.

작품에서 주인공 립대복을 비롯한 거의 모든 인물들의 형상은 광면적으로 밝게 채색되어있다.

외손주를 보고서야 뒤늦게 탁아소보육원인 장길순의 간진 일썌씨와 농장을 위해 뛰고 또 뛰는 성실성에 탄복하여 그를 마음속으로 련모하는 립대복의 형상은 매우 아름답고 순박하며 고지식하다.

그의 주도적인 성격적특질은 우리 농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신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수령님의 뜻대로 살며 일해나가는 다함없는 충실성이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험한 포전길에 나오시여 흙탕물이 묻은 신발로 농민들과 허물없이 만나 탁아소에 유모차를 보내줄데 대한 사랑의 말씀을 하실 때 모두들 마치 수령님께서 길이 험해 유모차가 다닐것 같지 못하다고 하실가봐 가슴조이는 장면을 묘사하고있다.

이 장면에서 대복은 농민들을 향하여 《이 못난 것들아!》라고 격한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는 천천히 무릎을 꿇어앉아 눈물을 흘리면서 흙탕물이 게발린 수령님의 신발을 부둥켜잡는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농장원들에게 진심을 터놓는다.

《수상님을... 이렇게... 매번 험한 길에 모시면서 두... 언제 한번 그 로고를 쪼끔치두 해야리지 않았던 이... 불충한 백성들이 막상 제 새끼들을 그 길에 세우자니 그제사... 그 길이 험한것인줄 알고... 이렇게 그 알량한 새끼들을... 걱정합니다. ... 이 철없는 백성들을 어떡하든... 좋습니까! 수상님!》

작품에서는 주인공 립대복의 선이 처음부터 기본이야기로 펼쳐지다가 위대한 수령님의 선에 합류되어 소설의 기본사상을 밝혀주고있다.

올해 상반기년도 《조선문학》잡지 지상에는 이밖에도 작가의 형상적묘미가 뚜렷한 작품이 여러편 발표되었다.

《보금자리》에서는 민족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잘할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에 대한 문제를 놓고 구룡산의 청운사의 중 심백의 내외가 해방직후 어떻게 반동놈들의 간교한 술책에도 속아넘어가지 않고 절간에 남아 유물관리사업에 전념할수 있게 되였는가를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다시 찾은 열쇠》는 선군시대에 과학자, 기술자들의 지식과 실력은 이들의 충실성과 애국심을 쥔수 있는 척도라는 의의있는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과학연구사업에서 담보란 있을수 없으며 그것은 부단한 탐구와 열정으로 최첨단기술을 소유해나갈 때만이 새것을 창조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새 세대 청년과학자들의 생활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있다.

작품의 우점은 생동한 세부의 대조와 내면심리에 대한 섬세한 묘사, 한편의 경음악을 연주하는 듯 한 경쾌하고도 짙은 정서로 차넘치게 하는 감정조직 등에서 잘 드러나고있다.

이밖에도 《대지의 눈》은 한생을 사회주의협동벌에서 농업증산을 위해 바친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려면 새 세대 청년들이 어떻게 살며 일해나가야 하는가를 특색있는 인간관계속에서 참신한 생활소재를 일반화하여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줄수 있다.

또 《호수가마울의 배사공》은 해방직후 어제날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호수가마울의 배사공이 새 조국 건설을 위해 생명의 위험도 무릅쓰고 반동분자들의 책동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극성이 있게 비교적 생동하게 형상한 작품이다.

《병풍덕》은 심심산골 병풍덕의 방목지에 제대 배낭을 풀어놓고 염소를 많이 기르기 위해 수십년세월 누가 보건말건 누가 알아주건말건 헌신의 구슬땀을 바친 애국자—한 공로자의 형상을 진지하게 파고든 작품이다.

소설에는 론의할 점들도 있다. 주인공 병윤반장의 생활을 그치지없이 쓸쓸하게 그린것이다.

깊은 산골인것으로 하여 급병이 든 안해를 급히 병원으로 후송하지 못하여 로상에서 숨을 거두게 한 가슴아픈 사실, 30대의 젊은 시절에 안해를 잃고서도 일에 다몰려 다시 후취할 생각을 못하고 때로는 남몰래 안해의 사진을 꺼내보면서 홀아비로 병풍덕방목지에서 한생을 보낸다.

참으로 기구한 인생사를 안고 고독하고 쓸쓸하게 살아간다.

작품에서 형상된 《나》의 아버지 병윤반장의 생활은 소재 자체가 그렇다 하더라도 전형화하여 밝고 낭만적으로 그려야 사람들에게 우리 시대 인간의 행복한 모습을뜨겁게 느낄수 있게 할수 있다.

이밖에도 올해 상반기년도 《조선문학》잡지 지상에 발표된 일련의 단편소설들에는 간과할수 없는 부족점들도 발로되고있다.

가장 중요한 부족점의 하나로서는 생활을 전형

화하여 그리지 못한것이다.

단편소설 《진달래꽃 필 때》(김광남, 2호)를 살펴보자.

작품에서는 여러가지 심장혈관계통질환을 치료할수 있는 건강반지를 발명하고 30대에 박사학위를 받은 한 과학자의 생활을 통하여 선군시대에 살고있는 과학자들의 참된 삶은 무엇이며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작품이 제기한 인간문제는 나무람할것이 없다고 본다.

문제는 이 작품을 읽고나면 주인공의 생활이 기구하다고 할만큼 고독하거나 외롭고 그러저 사람들에게 쓸쓸한 감정을 자아낸다는데 그 부족점이 나타나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작가가 원형의 생활소재라고 하여 거기서 본질적인것과 비본질적인것을 가려보지 못하고 비본질적이며 사말사적인데 형상의 초점을 돌린데 있다.

작품에서는 과학자의 과학탐구와 사랑을 대치시키면서 《사랑때문에 삶의 목표를 두려워》하는 인간, 사랑의 힘이 과학탐구에도 이끌어주었다고 하면서도 과학자들은 사랑과 가정문제에 머리를 쓰지 말아야 한다고 암암리에 주장하고있다.

이 주장은 선군시대 청년들의 인생관, 과학자들의 인생관과 엇갈린 주장이라고 할수 있다.

부족점의 다른 하나로는 현실생활을 미화분식하고 비진실하게 그리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단편소설 《약초》(송출연, 1호)를 두고 보자.

소설은 서로 돕고 이끄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그린 점에서는 수긍할만 한 작품이지만 생활을 비진실하게 그려내고 미화분식한 점에서 론의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물론 작품은 사실자료에 기초하여 이야기를 꾸몄다고 하지만 끝까지 자기 이름이나 주소는 알려주지 않고 잠깐 만난 사람의 얼굴표정을 보고 무슨 병이라는것을 지레짐작하였을뿐아니라 귀한 약초를 보내줄 의향을 표시했다는것, 그 약초를 캐느라고 아슬아슬한 벼랑을 뚫으며 며칠을 신고했다는것, 이런저런 사람을 거쳐 양덕에서 평양으로 그다음 사리원을 거쳐 개성으로 그것이 운반되다보니 때로는 이름모를 할머니며 처녀가 등장하고 또 한 일군이 승용차에 싣고가다가 길가에 잠깐놓고간 사이에 약초화분이 없어져 잃어버렸는가 하였는데 다행히 가당을 곳의 주소를 써놓았으므로 지나던 한 자동차운전사가 먼저 싣고 개성에 가서 본인에게 전달하였다는것, 그런데 약초를 받을 사람은 그사이 병이 다 나아 병약한 한 늙은이에게 병구완에 쓰라고 주었다는것 등 어찌보면 어느 한 작가의 작품구성과 류사한것 같으면서도 한결을 나아가 억지스럽기 그지없다.



# 별들이 웃는다

김영선

1

신발검수를 끝낸 애정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의자에 걸터앉았다. 오늘일이 비교적 잘된셈이었다. 것처럼 융통성없는 상업과장이 애정이가 요구하는 신발들을 거의 다 풀어준것이다.

처음 그는 특별히 제기되는 대상들은 곤란하다며 딱 잘랐었다. 그러나 애정이가 매 가정들을 방문하고 료해한 자료를 내보이자 오히려 열컬레를 더 주었다.

그것이 큰것은 아니지만 모든것이 어려운 조건에서 급한 모퉁이를 메꿀수 있는 예비가 조성되어 한시름 놓이었다. 이제는 한시바삐 전표를 써서 날려야 매일부터 공급할수 있었다.

잠시 땀을 들이고난 애정은 남녀별, 문수별로 신발을 갈라 진렬해놓고 공급전표를 쓰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애정은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들었다. 이름은모르지만 출근길에 자주 마주치군 하여 낯익은 손님이 매대로 다가왔다. 아침마다 무엇에 쫓기듯 반달음을 치군 하는 청년이었다.

《저… 신발 좀 살수 없습니까?》

애정은 직업적타성으로 청년의 신발을 내려다 보았다. 색날은 운동화가 눈을 찔렀다.

《몇반에 삽니까?》

애정은 습관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동안 머뭇거리던 청년은 처녀앞에서 용기를 가다듬으려는듯 두어번 헛기침을 하였다.

《사실 전 이 상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정이 딱해서…》

청년은 말끝을 여물쿠지 못하였다. 왜서인지 애정은 청년이 측은하게 여겨졌다. 한창 멋을 부릴 나이에 색날은 신발을 신은것이 마음에 걸렸던것이다.

《몇문이 필요되는가요?》

애정이가 해결해줄 기미를 보이자 청년은 급히 웃주머니에서 자그마한 수첩을 꺼내들었다.

《저… 운동화 27문 5컬레, 너자비닐신 28문 2컬레, 30문 3컬레, 장화…》

《뭘, 뭘라구요?》

애정은 너무도 어이가 없어 실례인줄 알면서도 청년의 얼굴을 뻔히 바라보았다.

《이 신발들은 세대공급용이므로 다치지 못합니다.》

생활은 어디까지나 독자들이 믿게끔 타당한 계기와 사건속에서 진실하게 그려야지 이렇게 허공 띄워놓고 《줄타기》를 해서는 작가의 의도와는 달리 사실을 왜소화할수 있다.

단편소설 《돌아보는 눈》(김삼열, 3호) 역시 진실성의 측면에서 그의 부족점을 찾아볼수 있다. 대학졸업생배치를 말아보는 한 일군이 처음에는 공장지배인이며 로력영웅이었던 사람의 아들을 아버지의 대를 이으라고 그 공장에 배치한다. 그런데 이 공장에 가기를 열렬히 희망하는 졸업생을 자기 고향에 있는 공장에 배치한다. 그는 그곳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커다란 기술혁신을 하고 든든히 뿌리를 내린다.

그렇다면 다된것이지 구래여 졸업후 몇해나 훨씬 지난 뒤 자기가 대학생졸업배치를 잘못 했다고 고향에 뿌리내린 사람을 빼내어 그가 초기에 소원하던 공장으로 옮겨가게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나는 구래여 대학생배치과 일군의 사업한계에

대해서는 논의하려 하지 않는다.

자기가 처음 배치할 때 잘못했다고 자책하면서 중뿔나게 자기 고향의 공장에 가서 기술혁신의 앞장에 선 기술자를 빼내어 다른 곳으로 보낸다면 그 공장은 어떻게 하는가.

이밖에도 단편소설 《약속》(심남, 3호)과 《장거리선수》(김덕철, 4호)는 문제제기가 뚜렷하지 않고 아리송하며 특히 형상의 jumps 부족하여 작가의 생경한 주장만이 나타나있는 부족점을 안고 있는 작품들이다.

이상에서 나는 올해 상반기년도 《조선문학》잡지에 실린 단편소설을 두고 그의 우열함을 분석평가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올해 상반기년도에 발표된 단편소설들의 창작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보다 우수한 사상예술적품격을 가진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우리 조국을 더욱 빛내이는데 참답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애정은 애써 부드럽게 설명하였다.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신세를 잊지 않겠습니다.》

손님은 자존심마저 꺾버리고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바싹 접어들었다.

애정은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런 때 허술히 놀다가는 넘어갈수 있었다.

《안됩니다. 자기 담당상점에 가서 이야기해보세요.》

《거긴 아직 이렇게 작은 문수의 신발이 들어오지 않아서...》

《조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애정은 장부를 덮으며 돌아섰다. 한동안 멍청히 서있던 청년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상점문을 나갔다.

샵시에 기본이 잡쳐진 애정은 깔끔한 눈길로 멀어져가는 청년의 뒤모습을 바라보았다.

애정은 미끈하게 잘생긴 사람이 더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때도 있다는것을 오늘 또다시 체험하였다. 그래도 인차 물리서는것을 보면 려치에 비해 성격은 온순한편이라고 생각했다.

애정은 애써 마음을 진정하고 다시 전표를 쓰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기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자기 구역 주민은 아니지만 왜서인지 색깔은 운동화가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 어떤 원인으로든 손님이 요구하는 상품을 해결해주지 못했을 때 느끼는 송구함과 죄책감은 그에게 직업적인 타성으로 굳어진것이었다.

(그가 신을 신발만이라도 해결해주었을걸...)

해가 기울 때까지 인민반장들에게 공급전표를 나누어주고 상점으로 돌아오던 애정은 깜짝 놀라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기동예술선전대공연시간이 다되었던것이다. 전국경연에서 1등을 한 그들은 저녁마다 시안의 기관, 기업소들에 나가 순회공연을 하였다.

혜령이가 자기 악기를 가지고갔으리라 타산한 애정은 오늘 예정된 도시건설사업소로 급한 걸음을 놓았다.

## 2

도시건설사업소 문화회관은 아담한 단층건물이었다.

긴 복도를 따라 회관대기실에 들어서던 애정은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벽체가 류달리 회고 깨끗한것이 저절로 눈길을 끌었다. 우유빛의 벽체를 조심히 손끝으로 만져보니 예상외로 굳고 유리처럼 매끈거리었다.

애정은 자기가 늦었다는것도 잊고 다시 밖으로 나와 회관과 나란히 선 청사들을 바라보았다. 연록색, 미색, 분홍색... 건물의 모양과 형태에 어울리게 다양한 색깔을 칠한 벽체는 어느것이냐 뿐만 기운이 서리고 미세한 분말들이 저녁노을에 홍옥처럼 반짝이었다.

무슨 외장재를 썼는지 너무도 희한하여 눈길을 떼지 못하던 애정은 혜령이가 찾는 소리에 대기실로 들어갔다.

먼저 온 동무들은 벌써 종목별로 모여서서 연습을 하고있었다.

애정은 우선 무대에서부터 나가보았다. 벌써 관중들이 들어와 웅성거리고있었다.

자기가 부를 노래를 입속으로 조용조용 외우며 무대를 타본 애정은 인차 돌아섰다. 무대규모는 물론 장치물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들었다.

대기실로 돌아온 애정은 급히 화장을 하고 손뽕 금건반을 훑어보았다. 혼자서 손뽕금을 타며 노래를 불러야 하므로 악기에 자그마한 이상이라도 있었다가는 랑패를 당할수 있었다.

애정이가 몇번 건반을 훑는 사이 무대막이 열렸다. 관중들은 첫 종목부터 열렬한 박수를 보내었다. 화술소품이 공연될 때에는 허리를 꺾으며 너무 웃다가 눈물까지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다음은 우리 나라 그 어디에나 흔히 있는 자재로 다양한 색깔의 외장재를 만들어 우리가 사는 도시를 항구문화도시로, 선군시대의 선경으로 꾸리는데 크게 기여한 로동자발명가 최진호동무를 축하하여 윤애정동무가 독창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내 나라의 푸른 하늘>》

자기 차례가 되어 무대 한끝에 대기하고있던 애정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조금전에 보았던 희한한 외장재들을 이곳 기업소의 평범한 노동자가 발명하였다니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허나 그것이 사실임을 말해주듯 관람석에서는 애정이가 무대에 나서기도 전에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노래부를 자기보다도 최진호에게 보내는 환호라는것을 애정은 쉽게 느낄수 있었다.

소개자가 빨리 나오라고 손짓하여 애정은 총총히 무대로 나갔다. 아름다운 선물이 관중들을 조용히 잠재우며 음악의 세계으로 이끌어갔다.

민들레 곱게 피는 고향의 언덕에  
하얀 연을 띄우며 뛰놀던 그 시절

...

애정은 한소절한소절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불렀다. 자기의 노래가 로동자발명가 최진호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바라서였다.

...

아 철없이 바라본 푸른 저 하늘이

내 조국의 자랑인줄 어이 몰랐던가

회관이 떠나갈듯 요란히 울리는 박수소리와 함께 꽃다발을 든 청년들이 우르르 무대로 올라갔다.

《별로 한 일도 없는 저를 축하해주어 고맙습니다.》

세번째 꽃다발을 받아들던 애정은 그만 입을 딱 벌리었다. 뜻밖에도 몇시간전에 상점에 찾아왔던 그 청년이 박씨같이 하얀 이발을 드러내며 웃고

있었던것이다.

애정은 아연하여 한동안 바늘처럼 곳곳해졌다.

《이번에는 저를 고무해주고 사심없이 도와준 우리 기업소 전체 종업원들을 축하하여 노래를 불러주시시오.》

최진호는 환호하는 관중들에게 허리굽혀 사의를 표하고 무대를 내려갔다.

애정은 괜히 가슴이 후두두 뛰여 막뒤로 들어갔다. 무대담이 작지 않은 그였으나 최진호를 너무도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모습으로 만나고보니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새 노래를 소개하는 사이라도 잠시 진정하고싶었다.

세번째 재청까지 받아주고서야 대기실로 돌아온 애정은 의자에 팔씩 주저앉았다.

최진호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정말 도시미화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외장재를 연구했던 말인가, 그런데 신발은 무엇때문에 것처럼 많이 요구했을까.

애정은 착잡한 생각에 잠겨 공연이 언제 끝났는지도 몰랐다. ...

### 3

거리에 나선 애정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울긋불긋 새옷단장을 한 고층살림집들을 둘러보았다. 최진호의 연구성과가 도시미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하니 무심히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정말 어떤 사람일까? 도시건설사업소에서 얼핏 들은 소리는 공장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데 졸업론문이 우수하여 학위를 받을것이라고 하였다. 제대군인당원에 대학졸업생, 학위까지 받는다면 얼마나 훌륭한 청년인가.

애정은 어째서인지 최진호에 대한 생각이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사람들의 물결속에 휘말려든 애정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시장입구였다.

(어마나, 내가 무슨 공상에 빠졌담.)

애정은 비로소 자기가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세대 신발교환때문에 상업관리소 창고로가던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 공급한 신발중에 두켤레가 크다고 제기되었던것이다. 오후 첫시간에 오라고 하였으니 빨리 갔다와야지 손님들이 기다릴수 있었다.

애정은 사람들의 물결을 헤치며 급히 걸었다.

《아부지, 아부지!》

스키모를 쓴 자그마한 사내애가 앞을 막아서는 바람에 애정은 걸음을 멈추었다.

스키모는 애정의 치마자락이 손에 잡히자 뻥히 올려다보고는 실망하여 더 크게 울었다. 바람이라도 불어넣은듯 풍풍 부푼 솜옷을 입은 사내애는 인형같이 깜찍하게 생기었다. 서너살이나 되었을가.

《너 아버지를 잃은게로구나.》

무심히 지나칠수 없어 허리를 굽히고 물으니 혹

혹 흐느낄뿐 대답이 없었다.

《저리로 가서 아버지를 찾아보지요.》

애를 길옆으로 데리고나온 애정은 사탕 한봉지를 사주어 울음을 그치게 하였다.

사랑알을 오물오물 씹으면서도 연신 아버지를 찾아 두리번거리는 애를 바라보는 애정의 마음은 초조하였다. 이 많은 사람들속에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애아버지를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이름이 뭐나요?》

《퇴성이.》

《몇살이나요?》

《시살.》

어린애는 고사리같은 손가락 셋을 가까스로 퍼보이었다. 애정은 초조한 속에서도 퇴성이가 어찌나 귀여운지 꼭 품안아주고싶었다.

《아버진 어디 갔나요?》

모르겠다는듯 고개를 살래살래 젓던 퇴성은 또 다시 아버지를 찾으며 울기 시작하였다.

우는 애를 달래며 아버지가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퇴성이를 높이 쳐들고있던 애정은 불쑥 떠오른 생각에 당황하여 얼른 내려놓았다. 누가 보면 잘못 생각할것 같아서였다.

퇴성은 자기를 버리고 가려는줄 알았던지 발을 동동 구르며 더 크게 울어대었다.

(도대체 이 애를 어쩌면 좋을가. 그대로 갈수도 없고 그렇다고 데리고 다닐수도 없고...)

가까운 보안서에 맡기는수밖에 없었다.

애정은 퇴성이를 둘러업었다. 담썩 업혀들며 목을 쓸어안은 보드라운 살결에서 찌릿한 정이 애정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앞으로 나에게도 요런 귀염둥이가 생길수 있을가.

《아부지!》

생각에 잠겨 교차길에 나서던 애정은 퇴성이가 되알지게 소리치며 잔등에서 내리려고 버드럭거리는 바람에 앞을 바라보았다. 뜻밖에도 최진호가 허둥지둥 달려오고있었다.

《미안합니다.》

최진호는 애정의 등에서 퇴성이를 제껴 받아안았다.

《이 애 불날옷을 사는 사이 없어져 놀랐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이마에 땀이 질펀히 내뻘 최진호의 손에는 《령리한 너구리》가 새겨진 어린이옷 한벌이 들려있었다.

애정은 자기 얼굴이 해쓱해지는것을 스스로도 느끼었다. 뭐라 응답을 해야 할텐데 입이 얼어붙어 말이 나가지 않았다.

《퇴성이, 이 사탕 누가 사주었나요?》

《아지미.》

《고맙다고 인사했나요?》

《나 울었어요. 아부지 없어서.》

《그러면 안되지요. 인사하자요.》

최진호는 퇴성이를 애정이앞에 세웠다.  
 《고맙습니다.》  
 최진호의 선창에 따라 퇴성은 엉거주춤 허리를 굽히었다.  
 《고… 맏… 습… 니…다.》  
 《호호호…》  
 애정은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었다.  
 《아들이 참 귀엽군요. 잘 돌봐야지 그러다 잃어버리겠어요.》  
 애정은 최진호와 퇴성이를 남겨두고 급급히 자리를 떴다.

#### 4

애정은 손수레를 앞세우고 직매점으로 갔다. 새로운 도색자재가 생산된다는것을 안 상점책임자 한부영은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에 선군시대 봉사기관답게 상점을 일신시키자고 팔을 걷고 나섰다.

애정이가 그 발명가에게 축하의 노래를 불러주었다는것을 안 한부영은 어떤 색깔의 도색자재를 얼마만큼 사오라고 등을 떠밀었다. 애정이가 가야 요구되는 색깔의 도색자재를 빨리 가져올수 있다는 것이었다.

직매점앞에는 애정이처럼 빈 통을 실은 자동차며 손수레들이 줄을 지어 서있었다.

애정이가 다가가니 뜻밖에도 최진호가 손님들에게 도색방법을 설명하고있었다. 그를 알아본 순간 애정은 얼굴이 확 달아올라 손수레쪽으로 돌아섰다. 애아버지라는것도 모르고 은연중 마음이 끌리었던 자신이 부끄럽기 그지없었다. 최진호자신이나 남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는가.

잠시후 자동차, 손수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판매가 시작된것이었다.

애정은 최진호가 야속하였다. 하필이면 직매점에 까지 나타날건 뭐람. 지금쯤 책임자는 이제나저제나 기다리고있을것이다. 돌아가는길에 전채상점에 들러 세멘트도 실어야 했다. 래일부터는 옥계천공사가 시작되니 오늘중으로 상점꾸리기를 끝내야 할텐데 마주서기 딱한 사람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진정하려고 잠시 서있던 애정은 자신을 탓하며 결연히 고개를 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서슴어할가. 차라리 애아버지라는것을 안 이상엔 총각보다 대하기 더 쉬울게 아닌가. )

손수레를 직매점출입문앞에 바싹 들이대게 한 애정은 명랑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퇴성이 아버지, 축하의 노래를 불러준 사람에게 우선권을 줘야지요?》

《아, 애정동무!》

판매원들과 같이 팔을 걷고 도색자재를 퍼주던 최진호의 인상적인 흰 이발이 활짝 드러났다.

《내가 애정동무를 몰라보셔야 되겠소. 어서 전표

를 떼오시오.》

애정은 책임자가 써준대로 연록색, 노란색, 흰색 등 전표를 떼서 최진호한테 주었다. 신바람이 나서 도색자재를 퍼담던 그가 불쑥 물었다.

《언제면 애정동무의 그 류창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다시 들을수 있을까?》

최진호에게서 바깥쪽을 받아 통에 쏟으며 애정도 한술 떴다.

《지나친 과찬인데요.》

《지나친 겸손은 뭐라고 했던가요?》

《교만? 아이참, 발명에만 명수인줄 알았더니 사람을 놀리는데도 솜씨가 보통아니군요.》

《아, 아닙니다. 내가 애정동무를 놀리다니 될변이나 한 말인가요?…》

애정은 찰떡매는 시늉을 하는 최진호가 재미있게 보여 손등으로 입을 가리우고 웃었다. 최진호도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껌싸게 손을 놀리면서도 노상 싱글벙글하였다. 웃음속에 통은 인차 채워졌다.

애정이가 도색자재와 세멘트를 싣고 상점에 도착하니 출입문앞에서 기다리던 한부영이 급히 다가왔다.

《어서 들어가 세면하고 화장을 해야겠다.》

애정은 여느때없이 헤덤비는 책임자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갑자기 화장은 왜요?》

《내가 것처럼 고르고고르던 애정이 대상자가 오늘에야 나타났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 만나봐야지. 방금전에 자기네 청년동맹 비서랑 같이 와서 기다린다.》

애정은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한부영의 말은 사실이였다. 애정이 대상자는 자기가 골라준다면 수많은 총각들을 만나보고 퇴농군 하였다. 그 누구든 자기 《비준》없이 절대 안된다고 엄포를 놓으며 시시껄렁한 녀석들이 찾아오면 애초에 잘라버리어 애정은 애매하게 코대놓다는 뒤소리까지 들었다.

그러나 애정은 자기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해주는 책임자를 탓하지 않았고 어느때든지 자기리상에 맞는 대상자를 꼭 선택하리라는것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오늘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는것을 보니 비로소 《비준》대상이 나타난 모양이였다. 어떤 사람일까. 먼저 와서 기다리고있다니 물어볼 경황도 못되였다. 책임자를 믿는수밖에 없었다.

감정도 전염이 되는지 한부영이가 서두르자 애정도 괜히 덤벼치며 세면을 하고 작업복을 갈아입었다.

애정의 머리단장과 옷차림을 찬찬히 훑어본 한부영이 먼저 종업원실문을 열고 들어갔다.

《드디어 <춘향> 이가 왔네. 애정아, 어서 인사해라.》

한부영은 뚱뚱한 자기 몸뒤에 숨어있는 애정을 앞으로 내세웠다.

애정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두 남자가 서있는쪽에 다소곳이 머리를 숙여보였다.

《제 도시건설사업소에서 일하는 진호동무의 동무입니다. 김철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반갑습니다. 진호동무, 뭘하고있소?》

애정은 자기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들었다. 도시건설사업소에서 함께 일한다는 그 동무뒤에 퇴성이 아버지가 서있었다.

(세상에 이럴수 있는가. 애아버지가 처녀앞에 나타나다니…)

한부영과 그 동무라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애정은 갑자기 귀속이 웅웅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져 입술을 옥물었다.

《애정아, 너 왜 그러니?》

한부영이가 팔을 잡아흔들자 애정은 모욕감을 참을수 없어 방에서 뛰쳐나왔다.

《애정아!》

한부영이가 따라나오며 소리쳤다.

《책임자 어머니, 놔두십시오. 저에게 어린애가 있다고 그러는것 같은데… 뻘칩니다.》

최진호의 목소리가 마당에서 울리는것으로 보아 그들도 밖으로 쫓아나온 모양이었다.

《아니, 어린애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동무는 나에게 총각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럴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은…》

《철영동무, 그만두오. 필요없소. 가세요.》

쫓구치는 오열을 녹갯히느라 담장에 기대서있던 애정은 자전거반치개를 제끼는 소리에 도망치듯 몸을 피했다.

## 5

봄빛이 완연하였다.

옥계천기슭의 능수버들에는 파란 잎새들이 앞을 다투어 피어나고 돌담우에 늘어진 개나리가지에도 노란 망울이 금시 입을 터칠듯 뽕뽕하게 부풀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변함없이 푸르른 사철나무잎새에는 락하산이 내려앉은듯 거미줄보자가가 동실동실 씩씩했는데 그우에서 아침이슬이 구슬알처럼 령롱한 빛을 뿌리었다. 멀리에서 바라보면 마치도 사철나무에 흰 면사포를 씌운것 같았다. 하도 신기하여 그 면사포를 가만히 들추어보니 녹두알만 한 거미가 쉬임없이 명주실을 뽑아 집을 짓고있었다.

봄을 맞으며 모든 생물체들이 약동하고있는것이다.

애정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며 걸음을 옮기였다. 괜히 마음이 서글퍼지며 한숨이 나왔다.

(내가 왜 이럴까?)

불쑥 어제일이 다시금 떠올랐다. 최진호, 그가 그렇게도 파렴치한 인간이었던가. 어떻게 애아버

지가 처녀를 보러 다닐수 있는가.

애정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었다. 처녀가 나이 들면 이렇게도 값이 떨어지는가, 모든 처녀들이 이런 번민을 거쳐 결혼이라는 신기한 대문을 넘어서는것인지…

《귀가 먹었니? 백번 찾아도 못 듣고…》

누군가 잔등을 툭 치는 바람에 애정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반들거리는 늙세면기를 한쪽손에 든 혜령이가 발썌발썌 웃고있었다. 그들은 예술소조에 함께 참가하는지 오래여 자매간처럼 가까운 사이였으나 애정은 아무 말도 하고싶지 않았다.

《왜 또 처녀시절번민이야?》

《…》

《너 사랑병이라도 난계구나. 어느 총각이 우리 독창가수를 그렇게 속태우니?…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니?》

애정은 또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혜령아, 너 잘생긴 배우가 부정인물역을 할때도 마음이 끌리던?》

《그건 무슨 소리야?》

《내가 어제 그런 사람을 만났댔다. 곁은 멀쩡한데 마음속엔 먹칠을 했더구나.》

애정은 최진호와 만났던 일을 간단히 이야기하였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동무라는 사람이 틀려먹었다.》

또다시 한숨을 내쉬던 애정은 급히 혜령의 팔을 흔들며 앞을 가리키었다. 벌써 상업관리소청년들이 모여서서 인원점검을 하고있었다.

작업량은 간단치 않았다. 옥계천 유보도에 깔린 많은 량의 모래와 흙을 가져내고 석축한 돌에 긴 이끼를 닦아내야 하였다.

물동량이 많은 바다가서내기부터 시작한 그들은 잠시의 휴식도 없이 전투를 벌리었다.

애정은 이 생각, 저 생각 다 털어버리고 결사계집질을 하였다.

오전에 바다가서내기를 끝낸 그들은 오후부터 석축담기에 달라붙었다. 그런데 쉬울것만 같던 일이 예상외로 까다롭고 능률이 나지 않았다. 오랜 세월 돌에 붙어 자라난 퍼런 이끼는 겨우내 해빛과 바람에 마르고 먼지가 올라 수세미로 문대겨도, 삽과 호미로 긁어도 잘 떨어지지 않았다. 한시간나마 역사질을 하였으나 손바닥만큼밖에 자리가 나지 않았다. 이러다가는 어느 세월에 끝낼지 막연하였다.

《이건 담배씨로 뒤통박파기보다 더 안타깝구나.》

혜령이가 맥이 나는지 투덜거리며 털썩 주저앉아 기다렸던듯 너도나도 일손을 놓고 한마디씩 푸념하였다.

화가 치민 애정은 돌로 이끼낀 곳을 딱 때리었다. 그러자 뜻밖에도 이끼가 떨어지며 하얀 화강

석이 드러났다.

(어마나, 이렇게 하면 되는걸.)

애정은 돌로 계속 두드리었다. 이끼는 쉽게 벗겨졌으나 두드리면 돌이 인차 부서져나갔다.

《헤령아, 빨리 가서 망치를 얻어와.》

망치로 두드리니 능률이 있다. 맥을 놓고 앉아있던 동무들도 망치를 얻어가지고와서 달라붙었다. 작업은 예상외로 빨리 끝났다. 이제는 겹열만 받으면 되었다.

애정은 수정같이 맑아진 옥계천물에 손과 장화를 씻었다.

《오늘 작업성과는 전적으로 애정동무의 〈세계적인 발명〉 덕이다. 학위학직수여위원회에 제기해야 하지 않을까?》

헤령의 통답에 처녀들이 까르르 웃어대었다.

로동의 희열로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전환된 애정은 까부는 헤령에게 물보라를 끼었다말고 뜰우에 시선이 굳어졌다. 자기네 청년동맹비서와 같이 최진호가 다가오고있었다. 공교롭게도 그가 겹열성원으로 나온것이다.

옥계천유보도바닥으로부터 석축돌 하나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살펴본 최진호는 긴장해서 서있는 처녀들에게로 돌아섰다. 순간 애정이와 허공에서 눈길이 마주치며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기였다.

《불합격입니다. 다시 해야겠습니까.》

응당 그러리라고 생각한 애정은 땀소하며 돌아섰다.

《어째서 불합격이에요?》

헤령이가 참지 못하고 대들었다.

《이끼가 끼지 못하게 대책을 세워야지 망치로 돌을 두드리 품보를 만들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강석짜에 발랐던 세멘트까지 모두 깨놓았으니 장마철에 물이 스며들면 허물어질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가림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농기계공장 로동제급이 한 구간인데 애국의 마음이 어떻게 비겼는지 한번 가보십시오. 생각되는것이 있을겁니다.》

최진호는 더 할 말이 없다는듯 돌아섰다. 누구도 붙잡을념을 못하였다. 소박한 그의 말속에는 어딘가 범접하지 못할 설득력이 스며있었던것이다.

《얼마나 잘했나 가보자.》

헤령이가 침묵을 깨뜨리자 애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섰다.

그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품위있고 현대감이 나게 다스려놓았던것이다. ...

밤새껏 잠을 설친 애정은 다음날 아침일찍 집을 나섰다. 자기의 《발명》덕에 상업관리소가 망신당하였으니 오늘은 어떻게 해서나 합격이 되도록 하여야 했다.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내에 농기계공장처럼 할수 있을까.

옥계천기슭으로 다가가던 애정은 자기네 구간에

서 누구인가 벌써 작업을 하고있는것이 보여 걸음을 다그치었다. 다가가 얼핏 얼굴을 본 애정은 그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최진호였던것이다.

애정은 최진호가 일하는 곳으로 내려갔다. 한 구간에 각이한 크기의 돌들을 그 모양과 형태에 따라 매끈하게 다듬어 미장을 하였는데 마치도 옥계천 맑은 물에 꽃잎들이 흘러가는것 같았다. 진호의 마음이 그대로 비친 석축앞에 애정은 저절로 고개가 숙어지었다. 자기와 최진호사이에 얼마나 크나큰 간격이 있었는가를 애정은 비로소 깨달아지었다.

그날 애정이네들은 최진호가 시범으로 보여준것처럼 옥계천석축을 알뜰히 손질해놓았다.

## 6

시당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청년동맹초급단체비서들의 강습에 참가한 애정은 배우고 느끼는바가 많았다. 늘 듣는 말같았지만 모르고 한 일들이 한두가지 아니였다.

오전에 시당책임비서를 비롯하여 청년동맹일군들의 강의가 끝나자 오후에는 방식상학과 경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을 들으며 애정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공화국창건 60돐을 뜻깊게 맞기 위하여 기적을 창조하고 헌신하고있는가를 새삼스럽게 느끼였다.

특히 이번 옥계천공사에서 모범을 보인 농기계공장 청년동맹비서의 토론은 자기가 시대의 요구에 멀리 뒤떨어졌다는것을 절감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강습이 끝나자 시청년동맹비서가 이제부터 강습생들을 축하하여 각 기관, 기업소에서 준비한 예술공연을 시작하겠다고 알려주었다.

노래와 춤은 언제나 즐겁고 환희로운것이였다.

애정은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매 종목이 끝날 때마다 열렬한 박수를 보내었다.

상업관리소에서는 헤령의 독연이 뽐히였다. 자그마한 처녀가 수백명관중이 들어찬 회의실을 웃음으로 가득차게 했다.

애정은 배를 그러안고 웃는 관중들을 보며 무대에 출연하는것도 좋지만 관람하는것도 그에 못지않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끼였다.

소개자가 나오자 웃음소리는 서서히 잦아들었다.

《이번에는 뜻밖에 일어난 해일피해로 부모를 잃은 마을의 어린이 17명을 맡아키우고있는 총각아버지네 가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떠나갈듯 한 박수갈채속에 꽃송이를 흔들며 어린애들이 무대로 나오기시작하였다. 총각애들도 처녀애들도 하나같이 곱고 옷차림이 단정하여 애정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터치였다.

맨 마지막으로 서너살난 총각애가 붉은 꽃송이와 함께 고무풍선을 들고 아장아장 걸어나왔다.

애정은 박수치던 손이 저도 모르게 굳어지였다.

(퇴성이가 아니야?)

어리둥절해진 애정이가 댄 앞줄 가운데로 들어서서 퇴성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는데 손풍금을 멘 최진호가 무대로 나왔다.

요란한 박수에 화답하며 어린애들이 일제히 꽃송이를흔들자 무대는 순식간에 화려한 꽃바다로 변하였다.

(그럼 저 동무가 총각아버지란 말인가. 총각이 어떻게 어린애들을 키울수 있는가.)

애정은 믿어지지 않았다. 믿을수가 없었다. 세상에 총각아버지가 어디 있는가.

군사복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잠시 전우의 집을 들렀다가 얼마전에 있는 자연피해때 많은 국가재산을 구출해내고 희생된 사람들의 자식들이 있다는것을 알자 애육원에 보내기로 했던 그들모두를 자기가 맡아 키울것을 결심하고 애들이 나서자란 우리 도시에 남은 최진호동무.

끊임없는 전선시찰의 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어깨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바라서 서슴없이 그 애들의 아버지가 되어준 최진호의 소행에 대한 소개자의 격동에 찬 소개를 들었을때 애정의 가슴은 놀라움과 환희로 끓어올랐다.

애정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기라도 한듯 온 장내가 떠나갈듯 환호로 들끓었다.

《총각의 몸으로 17명 어린이들의 친아버지가 된 최진호동무에게 다시한번 열렬한 박수를 보내줍니다.》

애정은 박수칠 생각도 있고 꽃바다속에 서있는 최진호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최진호, 그가 이처럼 훌륭한 청년이었던가.

애정은 불현듯 깨달아지는것이 있었다.

애들의 눈에, 마음속에 아름다운 고향을 안겨주자고 외장제도 연구하였을 최진호, 애정의 눈앞에는 알뜰히 손질한 옥계천석축도 떠올랐다. 나는 언제부터 우리 시대가 낳은 이런 훌륭한 모습도 가려볼줄 모르는 청맹과니가 되였는가.

그렇다, 나는 선군시대가 가꾸어놓은 아름다움을 향유할줄만 알았지 그것을 창조할줄 모르다보니 신발을 부탁하는 그를 도리어 오해하였고 총각이 아버지로 될수 있다는 경이적인 사실들을 상상도 못하였다. 퇴성이를 안고있다가 누가 볼세라 일른 내려놓은 나의 행동이 우연이겠는가.

사랑이 없이는 헌신이 있을수 없다. 최진호는 아이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자기가 사는 이 거리와 사회주의 내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기에 자기 육체와 넋까지도 깡그리 바쳐가는것이아닌가.

사랑하자, 나도 최진호처럼 내가 사는 도시와 사회주의 내 조국의 모든것을 열렬히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데 헌신하자.

애정은 최진호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보며 마음속 결심을 다지고 또 다지였다.

최진호의 반주에 맞추어 아이들은 붉은 꽃송이

를 흔들며 《장군님 따르는 마음》을 불렀다.

관중들모두가 일어나 박자에 맞추어 박수를 치며 호응하였다.

노래가 끝나자 시당책임비서가 무대에 올라가 최진호의 손을 힘있게 잡아주고 어린이들의 머리를 일일이 쓰다듬어주었다.

애정은 눈곱이 젖어드는것도 모르고 박수를 치고 또 쳤다.

판매가 끝나자 애정은 한부영과 같이 상점을 나섰다. 최진호네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어제 저녁 한부영의 집으로 찾아간 애정은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며 최진호를 다시 만나겠다고 하였다.

한부영은 애정이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애정이가 누구라구. 그런걸 난 괜히 혼자서 속을 썩이였구나. 아이가 17명이라면 애정이가 질겁하지 않겠나 걱정되어 말도 못했지. 나하구 함께 가자.》

아이들에게 줄 신발과 간식을 든 한부영과 나란히 애정은 손풍금을 메고갔다.

최진호의 집앞에 이르니 방안에서 짹짹박수소리가 울려나왔다.

그들은잠시 문밖에 서있었다.

《다음은 모두 일어나 합창을 하세요.》

최진호의 말소리에 이어 전주가 울리자 아이들의 랑랑한 노래소리가 밤하늘에 메아리쳤다.

비바람 창가에 몰아쳐오고

찬서리 내린다 해도

귀여운 아이들아 두려워말아

아버지가 계신단다

...

애정은 손풍금으로 아이들의 노래에 반주를 맞추며 입속으로 같이 따라불렀다.

...

포근한 너희 요람 지켜주신다

온 나라 아이들을 보살피신다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아버지

아 아버지

문득 노래소리가 끊어지며 문이 벌컥 열리었다.

17쌍의 초롱초롱한 눈들이 일제히 밖을 내다보았다. 애정의 손풍금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진 모양이었다.

《애들아, 너희들의 어머니가 왔다.》

한부영은 의아해하는 아이들앞으로 애정을 떠밀었다.

《어머니?》

아이들이 와르르 뛰쳐나와 애정을 둘러쌌다. 너무도 뜻밖인듯 최진호는 문앞에 조각상처럼 굳어져있었다.

《이 사람 총각아버지, 어서 나와 처녀어머니를

맞아들어야지.》

한부영이가 먼저 마루에 올라서며 최진호의 팔을 끌었다.

《엄마!》

문득 퇴성이가 두팔을 벌리고 다가왔다. 손뽕금을 내려놓은 애정은 퇴성이를 꼭 그어안았다. 왜 서인인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엄마란 부름이 귀

설기도 하고 행복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그날 최진호의 집에서는 밤이 깊도록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는 맑은 하늘가에는 태양의 빛을 받은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며 웃고 있었다. ...

## 세계작가일화

### 필명에 깃든 사연

1937년 일제가 중일전쟁을 도발했다는 소식에 접한 양말(중국의 녀류작가)은 치솟는 분노를 억제할수 없었다. 예견치 못했던것은 아니었으나 불쑥 사실에 접하고보니 그 어떤 새로운 충격이 가슴에 안겨졌다.

《아, 일제가 끝내 중일전쟁을 도발했구나. 그런데 장개석도당은... 아니, 누구를 한탄하고있을 때가 아니다. 나 자신이 싸워야 한다. 그래 나 자신이!》

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쥐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아이의 울음소리가 귀청을 찼다. 낡은지 몇달밖에 안되는 젖먹이귀염둥이였다.

《그런데 아이는... 이 일을 어쩔담. 아이를 업고 홍군을 따라다닐수는 없지 않는가. 하필이면 이런 때...》

생각해볼수록 자신이 끝없이 저주스러웠다. 하지만 어쩔수 없는 일이었다. 이미 1933년부터 해오던 지하활동에도 몸을 잠글수 있었으나 량심이 허락치 않았다.

《가자, 진찰기근거지에 들어가 손에 총을 들고 일제와 싸우자. 애도 후에는 리해하겠지. 이 어머니가 왜 자기를 떼두고 근거지에 들어갔는가를 ...》

그로부터 며칠후 홍군이 있는 진찰기근거지로 들어가는 청년들의 대렬속에는 처녀로 차린 한 녀인이 있었다. 그가 바로 녀류작가 양말이었다.

이후부터 양말은 양성업이라는 본명대신에 혁명이라는 거세찬 파도의 하나의 물갈기라는 의미에서 양말이라는 필명을 쓰기 시작하였다.

근거지에 들어간 양말은 신문 《려명보》와 《진찰기일보》 편집사업을 맡아하면서 혁명적인 글들을 련속 발표하여 싸우는 홍군전사들과 인민들을 크게 고무하였다.작가의 필명은 혁명승리후에도 신문지상들과 잡지들에 련속 나타났다. 생의 마지막까지 양말은 자신을 필명 그대로 혁명에 합류한 하나의 물갈기로 여기면서 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